1.혼동하기 쉬운 말

1.가냘프다–사람의 몸·팔다리·목소리 따위가 몹시 가늘고 약하다. (사람의 신체 부위에만 쓰임)

<보기>가냘픈 몸매, 가냘프고 나직한 목소리

- **가녀리다**–물건이나 사람의 몸·팔다리·목소리 따위가 몹시 가늘고 약하다.

<보기>가녀린 몸매, 가녀린 들국화

2.가라앉다–액체 위에 떠 있거나 섞여 있는 물건·물체가 밑바닥으로 내려앉다. (물건이나 물체가 액체의 밑바닥으로 이동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산이나 건물처럼 이동이 불가능한 대상에 대해서는 쓰이지 않음)

<보기>배가 바다 속으로 가라앉았다.

- **잠기다**–물건이나 물체가 액체 속에 들어가 겉에서 보이지 않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가라앉다'와 같으나 밑바닥에 내려앉는다는 의미를 반드시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보기>홍수로 논이 물에 잠기다.

3.가락지–전통적으로 결혼한 여자들이 끼는 두 개다 한 쌍을 이루는 장식하지 않은 고리

- **반지**(斑指)–결혼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낄 수 있는, 다양한 모양과 장식을 지닌 한 짝으로만 된 고리

4.가르다–칼 따위로 물체의 복판을 본래의 것에서 따로 떨어지지 않게 양편으로 나누다.

<보기>칼로 생선의 배를 가르다.

- **나누다**–하나의 대상을 본래의 것에서 따로 떨어지게 여러 부분으로 분리하다.

<보기>생선을 세 토막으로 나누다.

- **노느다**–나누어진 부분이 특정인의 몫이 되는 것을 전제로 일정한 몫을 여럿으로 나누다.

<보기>밥 한 공기를 둘이 노나 먹다.

- **쪼개다**–단단하고 결이 있는 물체에 힘을 가하여 순간으로 여러 부분으로 나누다.

<보기>장작을 도기로 쪼개다.

5.가르치다–(지식 · 기능 따위를) 일깨워서 알게 하다. =교(敎)

<보기>글을 가르치다.

- **가리키다**–어떤 방향이나 대상을 집어서 보이거나 말하거나 알리다.

<보기>방향을 가리키다.

6.가운데–일정한 길이·넓이·부피를 가진 물체의 가장자리에서 같은 거리에 있는 위치로, 공간적·시간적·추상적 의미를 가진다.

<보기>운동장 가운데 물이 고여 있다.

- **속**–거죽이나 껍질을 제외한 부분

<보기>수박 속이 꽉 찼다.

- **안**–둘레에서 가운데로 향한 쪽

<보기>벽장 안에 뭔가 있는 것 같아.

7.가없다–끝이 없다. 다함이 없다.

<보기>가없는 부모님의 은혜

- **가엽(엾)다**–불쌍하고 딱하다.

<보기>부모를 잃은 가엾은 소녀

8.간(間)-한 대상에서 다른 대상까지의 사이나 관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 **간**(間)-기간을 나타내는 일부 병사 뒤에서 '동안'의 의미를 더하거나, 일부 명사 뒤에서 '장소'의 의미를 더하는 접미 사로 앞말에 붙여 쓴다.

<보기>오 년간, 이틀간, 대장간

9.간석지(干潟地)-밀물 때에 바닷물에 잠기고 썰물 때는 물 위에 드러나는 개발되기 이전의 자연 그대로의 상태

- **간척지**(干拓地)-농경지 등을 이용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호수나 바닷가를 둘러막고 물을 빼내어 만든 땅

10.갈음-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체)하는 것이란 뜻으로, '갈다(代替)'의 어간에 '-음'이 붙은 형태

<보기>연하장으로 세배를 갈음한다.

- **가름**-둘로 나누거나 사물이나 상황을 구별하거나 분별하는 것으로, '가르다'의 어간에 '-ㅁ'이 붙은 형태

<보기>편을 가름

- **가늠**-어떤 목표나 기준에 맞고 안 맞음을 헤아려 보는 것

<보기>짙은 안개 때문에 한 치의 앞도 가늠을 할 수 없다.

11.갈취(喝取)-으르거나 남의 돈이나 물품 따위의 구체적인 물건을 강제로 빼앗음

- **강탈**(强奪)-주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하여 남의 돈이나 물품·권리 따위 구체적인 물건은 물론 추상물에 대해 강제로 빼앗음

12.갑절-어떤 수량을 두 번 합친 것으로, 두 배의 의미만 가지고 있음

<보기>올해 쌀 수확량이 갑절 늘었다.

- **곱절**-어떤 수량을 몇 번이고 거듭 합친 것이므로, '두 배'라는 뜻으로 쓰이기도 하며, 수관형사의 수식을 받을 수 있음

<보기>그 동안 안정됐던 물가가 세 곱절 올랐다.

13.값-어떤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빌리거나 빌려 주는 데 대한 대가로서의 돈

<보기>요즘 땅값이 올랐다.

- **가격**-특정한 상품의 가치를 나타내는 돈의 액수

<보기>농산물의 소매가격은 산지와 차이가 많다.

- **삯**-사람의 육체적 노동에 대한, 또는 시설 · 물건 등을 빌려 쓴 데 대한 대가로서의 돈

<보기>품삯. 배 삯

14.갖은-'골고루 갖춘, 가지가지의'의 뜻으로 언제나 '갖은' 꼴로 쓰임

<보기>갖은 욕설을 퍼붓다.

- **가진**-'몸에 지닌, 손에 쥔'의 뜻으로 '가지다'의 관형사형

<보기>손에 가진 것이 뭐냐?

15.거름-땅에 뿌리거나 흙에 섞거나 하는 영양물질=비료

<보기>밭에 거름을 주다.

- **걸음**-두 발을 떼어 옮기는 동작

<보기>걸음이 느리다.

16.**거절(拒絶)**-개인과 개인의 사사로운 관계에서 상대의 뜻을 물리침

<보기>그는 나의 제안을 일언지하에 거절하였다.

- **거부(拒否)**-개인과 집단 집단과 집단 사이의 공식적 관계에서 상대의 뜻에 동조하거나 찬성하지 않음

<보기>야당의 거부로 의안이 부결되었다.

17.**거치다**-어떤 처소를 지나거나 잠깐 들르거나 어떤 과정을 밟다.

<보기>영월을 거쳐 왔다. 서류 심사를 거치다.

- **걷히다**-걷음을 당하다.

<보기>외상값이 잘 걷힌다. 안개가 걷히다.

18.**걱정**-가장 포괄적인 의미로 사소하고 가벼운 고민거리로 마음의 괴로움을 겪는 상태

<보기>소풍날 비가 안 와야 할 텐데 걱정이다.

- **시름**-오래 전부터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우울하고 얼굴에 일상적으로 어두운 그늘을 드리우고 있는 상태

<보기>그 여자는 장애자인 외아들 때문에 시름에 젖어 산다.

- **근심**-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에 대해 답답해하고 괴로워하는 것(문제)

<보기>돈 문제라면 너무 근심마지 마십시오.

19.**건넌방**-전통 한옥에서, 안방에서 대청을 건너 맞은편에 있는 방

- **건넛방**-단순히 대청 건너편에 있는 방

<보기>사랑방 건넛방

20.**걷잡다**-(잘못 치닫거나 기우는 형세 따위를)붙들어 바로잡거나 통제하다.

<보기>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 **겉잡다**-겉가량으로 대강 어림잡다.

<보기>겉잡아서 이틀 걸릴 일이다.

21.**겨누다**-목표물이 있는 곳의 방향과 거리를 똑바로 잡다.

<보기>한쪽 눈을 감고 총을 목표물에 겨누다.

- **겨루다**-서로 버티어 승부를 다투다.

<보기>실력을 겨루다.

22.**개발(開發)**-토지·삼림·천연자원 등 주로 물질적인 것이나 사람의 일반적인 능력 등을 개척하여 유용하게 하거나 기술·경제·산업 등을 발전시킴

<보기>경제 개발, 인력 개발

- **계발**(啓發)-인간의 내부에 잠재되어 있는 능력이나 재질·재능 등 주로 개인적인 능력을 밖으로 드러내어 발휘하도록 일깨워 주거나 이끌어 줌

23.**개량**(改良)-구체적인 대상을 보완하거나 고침

<보기>품종 개량

- **개선**(改善)-추상적인 대상을 좋게 고침

<보기>처우 개선, 식생활 개선

24.**更**-'**갱**'으로 읽는 경우는 '다시'의 뜻을 나타내며, 길게 발음한다.

<보기>갱:생(更生)

- 更-'**경**'으로 읽는 경우는 '고치다, 바꾸다'의 뜻 나타내며, 짧게 발음한다.

<보기>경장(更張), 경질(更迭)

갱신(更新)-다시 새로워지거나 새롭게 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그 기간을 연장하는 일

<보기>비자를 갱신하다.

- **경신(更新)**-(옛 제도나 기구 따위를) 고쳐 새롭게 하거나 기록경기에서 종전의 기록을 깨뜨리는 것

<보기>100m 달리기 시합에서 기록을 경신했다.

25.그저-다른 일은 하지 않은 채 그냥, 무조건하고

<보기>그저 한 번만 봐 주십시오.

- **거저**-아무런 노력이나 대가 없이 공짜로

<보기>그런 건 거줘 줘도 싫다.

26.검사(檢査)-사람의 몸이나 사물의 상태가 일정한 규범이나 기준에 비추어 옳고 그름, 낫고 못함, 좋고 나쁨 등의 정도에 이르렀는지 판단하는 일

- 조사(調査)-모르거나 분명하지 않은 일을 좀 더 명확히 알기 위해 단순한 사실을 살피거나 찾아보는 일

<보기>인구 조사, 사고 경위 조사

27.고소(告訴)-피해 당사자나 고소권자가 범죄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여 법적 처리를 구하는 일

<보기>그녀는 고소를 취하하였다.

- **고발(告發)**-고소권자가 아닌 제삼자가 어떤 범죄 사실을 경찰서나 검찰청에 신고하여 그 수사나 기소를 요구하는 일

<보기>사고 목격자가 뺑소니 운전자를 경찰에 고발하다.

28.과일-나무의 열매를 포함하여 참외 · 토마토와 같은 일부 열매채소를 가리키는 일상언어

<보기>

- **과실**-열매채소를 제외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나무의 열매를 가리키는 농학(農學)언어

29.과태료(過怠料)-공법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한 사람에게 벌로 물게 하는 돈

- **범칙금(犯則金)**-경범죄를 짓거나 도로교통법을 위반하거나 한 사람에게 물리는 돈

30.게시(揭示)-여러 사람에게 알리기 위해 써서 내걸거나 내붙여 보이되, 보이는 방법에 초점을 둠

<보기>승진 결과를 현관 옆 게시판에 게시하다.

- **고시**(告示)-특히 국가 기관 등에서 널리 알리는 데 초점을 두고 뭇 사람에게 널리 알림

<보기>공무원 시험 날짜를 8월 25일로 고시했다.

- 공시(公示)-일정한 내용을 일반에게 널리 알림. 공공 기관이 어떤 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삼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는 일을 의미할 때도 있음

<보기>심의 결과를 공시하다.

31.골다-잘 때에 숨이 콧구멍을 울려 드르렁거리는 소리를 내다.

<보기>코를 골다.

- **곯다**-속이 물크러져 상하거나 음식을 양에 차게 먹지 못하거나 굶다.

<보기>달걀 곯은 냄새. 배를 곯다.

- **곪다**-살에 염증이 생겨 고름이 생기거나 내부의 부패나 모순이 쌓여 터질 정도에 이르다.
  <보기>상처가 곪았다.

32.교사(敎師)-일정한 자격을 가지고 초등 · 중고등학교의 선생을 가리킴

- **교원(敎員)**-대학의 선생을 포함한 모든 교사

33.구속(拘束)-(피의자나 피고인을)수사나 공판, 형의 집행확보를 위해 강제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가두어, 신체의 자유를 주지 않는 것으로 '구인'과 '구금'을 포함하는 말

- **구인(拘引)**-피고인이나 그 밖의 관계인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때 강제로 법원이나 경찰서 등에 끌고 오는 것
- **구금(拘禁)**-유죄 확증 전에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구치소나 교도소에 가두는 일
- **구류(拘留)**-1~30일 동안 교도소에 가두는 자유형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刑)의 일종

34.겨를-어떤 일을 하다가 다른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간격(여유)
<보기>바빠서 쉴 겨를이 없다.

- **사이**-한 사물에서 다른 사물까지의 공간적, 시간적, 사회적 간격을 이름
  <보기>서울과 부산가지의 거리. 부부 사이가 원만하다.
- **틈**-두 사물 사이에 벌어진 작은 공간, 짧은 시간
  <보기>축대 틈으로 물이 흘러나왔다. 그들은 죄수가 도망칠 틈을 주지 않았다.
- **짬**-두 물체가 서로 맞붙은 틈이나 어떤 일의 겨를
  <보기>책상 서랍의 짬. 너무 바빠서 잠시의 짬도 없다.

35.견디다-사람이나 물체가 신체적으로 겪는 고통이나 어려운 상황·압력 따위에 굽히지 않고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다.
<보기>이 돈이면 한 달은 견디겠다. 그는 어떤 고통도 견딜 수 있다.

- **버티다**-사람이나 물체가 신체적으로 겪는 고통이나 어려운 상황·압력 따위 등 외부에서 가해지는 힘에 굽히지 않는 경우에도 두루 쓰인다.
- **참다**-생리적인 현상이나 심리적인 현상을 겉으로 드러내지 않고 억누르다.
  <보기>울음을 참다. 그는 텔레비전이 보고 싶었지만 참았다.

36.결점(缺點)-완성도에 비추어 잘못되거나 부족한 점
<보기>그 작품은 결점을 찾아볼 수가 없다.

- **단점**(短點)-완성도에 상관없이 부정적이거나 잘못되고 모자란 점
  <보기>단점을 보완하다. 그의 단점은 게으른 것이다.
- **약점**(弱點)-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한 점
  <보기>약점이 잡히다.

37.결재(決裁)-결정한 권한이 있는 자가 부하 직원이 제출한 안건을 허가하거나 승인하는 것
<보기>사장의 결재를 맡다.

- **결제(決濟)**-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간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것
  <보기>이 달 말까지 대금을 결제하겠습니다.

38.결혼식의 종류

1주년-지혼식(紙婚式)	5주년-목혼식(木婚式)
10주년-주석혼식(朱錫婚式)	15주년-동혼식(銅婚式)
20주년-도기혼식(陶器婚式)	25주년-은혼식(銀婚式)

30주년-상아혼식(象牙婚式), 진주혼식(眞珠婚式)
35주년-산호혼식(珊瑚婚式), 비취혼식(翡翠婚式)
40주년-녹옥혼식(綠玉婚式) 45주년-홍옥혼식(紅玉婚式)
50주년-금혼식(金婚式) 60주년-다이몬드혼식(婚式)

39.계시다-주체가 '있는 것'을 직접적으로 높이는 말로, 주체존대선어말어미 '-시'의 활용이 아닌, 어휘 자체가 높임의 뜻을 나타내는 말임

<보기>어머님께서는 지금 병원에 계신다.

- **있으시다**-'있다'에 주체 존대선어말어미 '-시'가 붙어 주체와 밀접히 관련된 대상이 '있는 것'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말

40.고국(故國)-주로 해외에 나가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가리킬 때 쓰이며, 잠시 나가 있는 경우에도 쓰임. 또는 이미 없어진 나라를 뜻하기도 한다.

<보기>현지 아나운서가 고국에 승전보를 알려 왔다.

- **모국**(母國)-주로 해외에 살고 있는 사람이 자기 나라를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나 잠시 나가 있는 경우에도 쓰이지 않음

<보기>그는 이민을 떠난 지 10년 만에 모국을 방문했다.

- **조국**(祖國)-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던 나라로, 국내에 있든 해외에 있는 사람이든 모든 경우에 다 쓰임

<보기>조국의 통일을 위해 싸우다.

41.고난(苦難)-주로 육체적·정신적으로 몹시 힘들게 하는 좋지 못한 사정이나 형편 등으로 겪는 괴로움이나 어려움을 아울러 이르는 말

- **고통**(苦痛)-주로 외부적인 자극으로 말미암아 육체적·정신적으로 몹시 불편하게 느끼는 괴로움이나 아픔을 아울러 이르는 말

42.고단하다-육체적으로 힘든 일을 하여 기운이 없다,

<보기>오래 걸었더니 몸이 몹시 고단하다.

- **고달프다**-육체적인 경우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힘든 경우에 마음이나 마음, 처지가 어려운 상태에 있어 기운이 없다.

<보기>고달픈 신세, 고달픈 마음을 달래다.

43.고랑-밭이나 땅의 두 두둑 사이에 길고 좁게 들어간 곳

<보기>감자밭 고랑에 물이 고였다.

- **두둑**-논이나 밭을 갈아 흙을 조금 높고 길게 이어서 쌓아 놓은 곳

<보기>텃밭 두둑에 고구마를 심었다.

- **이랑**-갈아 놓은 밭의 한 두둑과 한 고랑을 아울러 이르는 말

<보기> 우리 밭은 이랑이 아주 길다.

44.곱다-주로 사람이나 색깔이나 촉감이 부드러운 느낌을 주어 보기에 좋다.

<보기>곱게 화장한 신부

- 아름답다-사람이나 사물의 모습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보기에 좋다.

<보기>아름다운 우정, 꽃이 아름답다.

- 예쁘다-주로 사람이나 사물의 생긴 모양이 깜찍하고 귀여워 보기에 좋다.

<보기>예쁜 아기, 예쁘게 생긴 장난감

45.일반직 공무원

1급 관리관(管理官) 2급 이사관(理事官)
3급 부이사관(副理事官) 4급 서기관(書記官)
5급 사무관(事務官) 6급 주사(主事)
7급 주사보(主事補) 8급 서기(書記)
9급 서기보(書記補)

46.공용어(公用語)-한 나라 안에서 따로 국어를 가지고 있는 경우, 일사어가 아닌 공식적으로 쓰는 언어

<보기>다양한 주민으로 구성된 스위스의 경우, 독일어·프랑스어·이탈리아어·레토로망어 등 네 언어가 공용어로 Tm인다.

- **공통어(共通語)**-한 나라 안에서 공통으로 두루 널리 쓰이는 말

<보기>700여개의 방언이 쓰이는 인도의 경우, 힌두어와 영어가 공통으로 쓰인다.

47.과민(過敏)하다-사람, 사물, 현상 따위에 대해 느끼는 감각이나 감정이 보통 정도를 지나치다.

<보기>작은 소리에도 과민한 반응을 보이다.

- **예민**(銳敏)하다-사물이나 현상 따위에 대해 느끼는 능력이나 어떤 현상을 분석하고 판단하는 능력이 빠르고 뛰어나 다.

<보기>녀석은 지금 감수성이 예민할 때이다. 그의 신경은 어둠 속에서도 예민하게 작용했다.

48.공포(公布)-정부나 공공 단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질 수 있는 법령이나 조약 등을 국민에게 알리는 절차

<보기>헌법 개정안이 공포되었다.

- **공표**(公表)-개인이나 단체가 불특정 또는 다수에게 널리 알리지만 단지 공개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법적인 효력을 갖지는 않는 절차

<보기>노조는 오늘부터 파업에 들어간다고 공표했다.

49.관습(慣習)-집단적·사회적으로 관례가 된 풍습

<보기>어른을 공경하는 일은 우리의 오랜 관습이다.

- **습관**(習慣)-개인적 차원의 사람이나 동물의 버릇

<보기>습관은 제2의 천성이다.

50.'愎'의 발음-본디 음은 '퍅'이나 표준어 사정원칙에 의해 '팍'으로 적는다.

<보기>**괴팍**(乖愎)하다(성미가 까다롭고 별나서 붙임성이 없다)

그러나 '강**퍅**(剛愎)하다(성미가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나 '**퍅**(愎)하다(성질이 까다롭고 너그럽지 못하여 걸핏하면 성을 내고 뾰로통하다)' 등은 본디 음을 따라 적는다.

51.교포(僑胞)-핏줄이 같은 사람으로, 대체로 우리 국적을 갖고 다른 나라에 정착하여 살고 있는 사람으로 거주지를 기준으로 동포보다 좁은 의미이다.

<보기>우리 선수단은 현지 교포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 **동포**(同胞)-같은 나라에 살거나 다른 나라에 살며 같은 민족 의식을 가진 사람으로 해외에 거주하는 교포보다 포괄적 의미로 쓰인다.

<보기>국내외 동포,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52.구리다-똥이나 방귀 냄새와 같다. 사람을 대상으로 할 때는 하는 짓이 더럽고 지저분하며

행동이 떳떳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데가 있다.

<보기>구린 방귀 냄새. 그는 무언가 구린 데가 있는지 남의 눈치만 살피고 있다.

- **고리다**-썩은 풀이나 달걀 따위에서 나는 냄새와 같다. 마음씨나 하는 짓이 아니꼬울 정도로 옹졸하고 인색하다.

<보기>발에서 고린 냄새가 난다.

(센말)코리다. 코린 내

53.구명(究明)-주로 학구적인 행위로 사물의 본질이나 원인 따위를 깊이 있게 연구하여 밝힘

<보기>생물의 진화 과정을 구명하다.

- **규명**(糾明)-범죄나 부정 따위의 진상을 자세히 캐고 따져 사실을 밝힘

<보기>노파 살인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다.

54.구분(區分)-일정한 기준에 따라 전체를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나누는 것

<보기>생물은 동물과 식물로 구분할 수 있다.

- **구별**(區別)-차이점을 기준으로 사물의 성질이나 종류에 따라 나누는 일

<보기>그들은 너무 닮아 구별이 안 된다.

55.개펄-갯가의 개흙이 깔린 벌 <준>펄

- **갯벌**-바닷물이 드나드는 모래톱(벌판, 사장, 밭)

■개흙-갯가나 늪 바닥 등에 있는 거무스름하고 미끈미끈한 흙

56.군중(群衆)-일정한 장소에 모인 많은 사람

<보기>그는 광장에 모인 군중에게 연설을 시작했다.

- **대중**(大衆)-흔히 전문적이거나 특별한 사람들을 상대하여 일반적인 사람의 무리를 가리킴

<보기>대중 음악

- **민중**(民衆)-지배 계층에 대해 상대적으로 지배받는 사람

<보기>민중 봉기. 민중을 억압하다.

57.귀퉁이-사물이나 마음의 한 구석이나 부분 또는 물건이 삐죽 나온 부분으로 길에 대해서는 쓰지 않음

<보기>가슴 한 귀퉁이가 아주 허전하다.

- **모퉁이**-길이 각이 지게 구부러지거나 꺾여져 돌아간 자리나 구석진 곳이나 가장자리

<보기>담 모퉁이

- **모롱이**-산모퉁이의 휘어 둘린 곳

58.궁둥이-앉을 때 바닥에 닿는 부분

<보기>궁둥이도 붙일 데 없는 좁은 방

- **엉덩이**-살이 도도록한 궁둥이의 윗부분=**볼기**

<보기>엉덩이가 무거워 행동이 굼뜨다(동작이 답답할 만큼 느리다).

- **방둥이**-길짐승의 엉덩이

<보기>방둥이가 마른 소가 일을 잘한다.

- **둔부**-궁둥이와 엉덩이를 아울러 이르는 말

59.그러고 나서-'그러고'는 '그리하다(그렇게 하다)'의 준말인 '그러다'의 활용형이고, '나서'는 '행동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나다'의 활용형이다.

<보기>아이는 숙제를 했다. 그러고 나서 놀았다.

- **그리고 나서**-연결 접속 부사 '그리고'와 '-고 나서'가 합쳐진 말로 쓰일 수 없는 말이다.
  <보기>그녀는 청소를 했다. 그리고 나서 빨래를 했다.(X)

60.**그러모으다**-(흩어져 있는 것을) 거두어 한 곳에 모으다.
  <보기>가랑잎을 그러모았다.

- **긁어모으다**-물건을 긁어서 한데 모으거나 이리저리 부정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다.
  <보기>백성으로부터 재산을 긁어모은 관리

61.**그러므로**-'그렇다'의 어간 '그러'에 까닭을 나타내는 어미 '-므로'가 어울린 형태<그러하기 때문에>
  <보기>그는 매우 친절하다. 그러므로 모두 그를 좋아한다.

- **그럼으로(써)**-'그러다'의 명사형 '그럼'에 부사격 조사 '으로'가 어울린 형태<그렇게 함으로써>
  <보기>그는 책을 많이 읽는다. 그럼으로써 필요한 지식을 얻는다. 네가 그럼으로(써) 언제나 남들이 손해를 본다.

62.**그을리다**-햇볕을 쬐어 살갗이 검어지거나 불이 탈 때 불완전 연소로 검게 되다.
  <보기>햇볕에 그을려 피부가 갈색이 되었다.

- **그슬리다**-사람이나 짐승의 털이 살짝 불이나 뜨거운 열에 닿아 겉만 조금 타다.
  <보기>촛불에 머리카락이 그슬리다.

63.**금세**-지금 바로, 이제 곧. '금시에'의 준말
  <보기>떡 한 접시를 금세 먹워 치웠다.

- **금새**-물건이 거래되는 가격이나 시세
  <보기>끝물 수박이라 금새가 형편없이 낮다.

64.**금언**(金言)-작가가 분명치 않은 생활의 본보기로 할만한 귀중한 내용을 가진 짧은 어구
  <보기>진리의 길은 비좁고 곧은 것이다.

- **격언**(格言)-속담 등과 같이 사리에 꼭 들어맞아 교훈이 될 만한 짧은 한 마디를 다른 사물에 비유하여 하는 말
  <보기>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란다.

- **명언**(名言)-작자를 알 수 있는, 이치에 들어맞는 훌륭하거나 유명한 말
  <보기>너 자신을 알라.

65.**금전**(金錢)-주로 추상적인 대상을 가리킴
  <보기>이웃과 금전 문제로 다투다.

- **돈**-추상적인 대상뿐 아니라, 지폐나 동전 등 구체적인 대상도 가리킴
  <보기>돈 관계가 복잡하다. 돈을 쓰다.

- **화폐**(貨幣)-주로 구체적인 대상을 가리킴
  <보기>낡은 화폐를 바꾸다.

66.**기류(氣流)**-고공에서 일어나는 상하 또는 수평으로 일어나는 바람의 흐름

- **바람**-지면에서 수평으로 일어나는 공기의 흐름

67.**기르다**-사람·가축··식물 등 길이를 자라게 함
  <보기>아이를 기르다.

- **가꾸다**-대상이 취미삼아 다룰 수 있는 식물에 국한되며, 식물이 아닌 경우 그 대상을 보기

좋게 하거나 가지런하게 하는 의미로 쓴다.

<보기>화초를 가꾸다. 강아지를 예쁘게 가꾸다.

- **키우다**–사람·가축·식물 등의 대상을 '부피와 양'을 자라게 함

<보기>아이를 키우다. 꿈을 키우다.

68.기일(期日)–정해 놓은 바로 그 날만을 가리킴

<보기>시험 기일

- **기한**(期限)–한 시간적인 시점에서 앞으로 다가올 한 시점까지의 계속되는 동안을 뜻함

<보기>접수 기한. 납부 기한

69.기특(奇特)하다–아랫사람, 특히 어린이들에 대해 말이나 행동이 놀라우면서 신통하여 귀염성이 있다는 의미이나, 자신에 대해서는 쓰지 않는다.

<보기>어린 녀석이 기특한 생각을 다하는구나.

- **대견하다**–말이나 행동이 마음에 꼭 들고 자랑스럽다,는 의미로, 주로 아랫사람에게 쓰이는데 어른들에게도 쓰이며 자신의 일에 대해서도 쓰인다.

<보기>그 어려운 일을 혼자 해내다니 대견하다.

70.기획(企劃)–'아직까지 없거나 새로운 일을 이루기 위해 미리 짠 얽이'라는 뜻으로 주로 국가 기관이나 기업체에서 사용한다.

<보기>기획 업무를 담당하다.

- **계획**(計劃)–'미래의 일에 대한 좀더 조직적이고 세부적이며 실천성을 고려한 얽이'란 의미로 기획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하나의 세부적인 방침까지를 이를 때도 쓰인다.

<보기>방학 동안의 계획을 세우다.

71.길–사람이나 차·배·항공기 등이 다닐 수 있게 인위적으로 만들거나 자연스레 만들어진 육지·바다·공중의 공간

<보기>차로 가는 길이 배로 가는 길보다 멀다.

- **도로**(逃路)–사람이나 차들이 다닐 수 있게 인위적으로 만든 육지에만 있는 길

<보기>버스가 새로 난 길을 달렸다.

72.깐보다–어떤 형편이나 기회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가늠하다.

<보기>간보아 사람을 대하다.

- **깔보다**–(남을) 호락호락하게 얕잡아 보다.

<보기>가진 것이 없다고 깔보지 마라.

73.껍데기–두껍고 메마르며 안에 있는 물질과 비교적 잘 떨어지며, 물건을 잘 간수하기 위해 만든 작은 상자 모양의 봉지나 포장 같은 것에도 쓰인다.

<보기>호두 껍데기. 이불 껍데기. 담배는 없고 껍데기만 남았다.

- **껍질**–안에 있는 물질과 잘 떨어지지 않으며 얇은 두께에 무른 성질을 가진 것에 두루 쓰인다.

<보기>바나나 껍질

74.꽁지–새의 꽁무니에 붙은 기다란 깃

<보기>꽁지 빠진 새 같다.

- **꼬리**–동물의 꽁무니에 가늘고 길게 내민 부분

<보기>강아지가 꼬리를 치다.

• **꽁무니**-짐승이나 새의 등마루뼈의 끝이 되는 부분

<보기>꼬리는 동물의 꽁무니에 가늘고 길게 내민 부분이다.

75.꼬르다-구체적인 대상이 매이거나 조이거나 싸여 있는 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되게 함

<보기>보따리를 꼬르다.

• **풀다**-구체적인 것이나 정신적·심리적인 것을 묶거나 감기거나 얽히거나 합쳐진 것을 그렇지 않은 상태로 되게 하다.

<보기>허리띠를 풀다. 긴장을 풀다.

76.끈-주로 어떤 물건에 붙어서 잡아매거나 손잡이로 쓰는 물건을 가리킨다.

<보기>끈 떨어진 갓. 운동화를 신고 끈을 단단히 묶었다.

• **줄**-노·새끼 따위와 같이 무엇을 묶거나 동이는 데 쓸 수 있는 가늘고 긴 물건을 통틀어 이르는데, 주로 두 물체를 사이에 두고 가로질러 이을 수 있는 것을 가리킨다.

<보기>빨래를 줄에 널다. 철사 줄로 손을 묶다.

77.끼다-때나 먼지 등이 엉겨서 달라붙다.

<보기>눈곱이 덕지덕지 낀 얼굴

• **끼이다**-좁은 틈 사이에 박히다.

<보기>이빨 사이에 끼인 고춧가루

78.-ㄴ걸-어떤 사실이 이미 알고 있던 것이나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경우에 쓰는 반박이나 감탄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보기>그는 이미 떠난걸. 이 그림 제법 괜찮은 걸

• **-ㄴ 걸**-관형사현 어미 'ㄴ'이 의존명사 '것'에 목적격 조사 '을'이 붙은 형태가 줄어든 말이므로 반드시 띄어 쓴다.

<보기>내가 먹던 걸 아기에게 주마.

79.-ㄴ데-뒤에 오는 어떤 일에 대해 그것과 관련된 상황을 미리 말할 때 쓰는 연결어미로 듣는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거나 여운을 남기는 종결어미로 쓰인다.

<보기>돈은 있는데 시간이 없다.

• **-ㄴ 데**-관형사형 어미 'ㄴ'에 장소나 경우 따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데'가 결합된 형태이므로 띄어쓴다.

<보기>머리 아픈 데 먹는 약. 노래하는 데는 길동이가 최고야.

80.-ㄴ지-막연히 의문을 가지고 앞의 사실과 연관시키는 연결어미나, 가벼운 질문의 종결어미로도 쓰인다.

<보기>키가 얼마나 큰지 버스 천장에 머리가 닿는다.

• **-ㄴ 지**-'-ㄴ'은 뒤에 오는 의존명사 '지'를 꾸며 주는 관형사형 어미이고, '지'는 어떤 일이 있었던 때부터 지금까지의 동안을 나타내는 의존명사로 이루어진 구로 띄어쓴다.

<보기>집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다.

81.나머지-흔히 전체 수량이 있고, 그 중에서 필요한 만큼을 채우고도 남는 것을 가리킨다.

<보기>이 돈으로 책을 사고, 나머지는 용돈으로 써라.

• **우수리**-흔히 돈 따위에서 끝자리에 붙는 약간의 돈을 가리킬 때 많이 쓰인다.

<보기>물건을 사고 받은 우수리는 저금통에 넣었다.

82.나쁘다-좋지 않거나 옳지 않다. '해롭다'가 쓰일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해서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

<보기>머리가 나쁘다. 담배는 몸에 나쁘다.

- **해롭다**-주로 '-에' 뒤에 쓰이며 어떤 것에 이롭지 못하거나 손상을 입히다.

<보기>농작물에 해로운 벌레를 잡다.

83.나열-일정한 형식이나 순서에 관계없이 벌여 놓음

<보기>물건을 나열하다.

- **배열**-특정한 방식이나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음

<보기>물건을 크기 순서대로 배열하다.

- **열거**-여러 가지 예나 사실을 늘어놓음

<보기>친구의 잘못을 열거하다.

- **진열**-여러 손님에게 보이려고 물건을 죽 벌여 놓음

<보기>장난감을 진열해 놓았다.

84.날씨-매일의 구체적인 기상 상태를 가리킴

<보기>대단히 맑은 날씨

- **일기(日氣)**-막연한 기상 상태

<보기> 불순한 일기

- **기후(氣候)**-수 년 동안의 날씨 변화를 토대로 한 거시적인 기상 상태

85.말다툼-주로 감정 대립으로 다툼

- **말싸움**-의견 대립으로 맞섬

86.매무시-옷 입은 것이 잘못된 데가 없는지 살펴보는 일

<보기>거울을 들여다보고서 매무시를 다시 하다.

- **매무새**-옷을 입은 모양새

<보기>옷매무새가 곱다.

87.반나절-한나절의 바쯤 되는 동안

<보기>이 일은 반나절이면 끝난다.

- **나절가웃**-하루 낮의 4분의 3

88.나태(懶怠)-행동이나 성격 따위가 느리고 게으름

<보기>나태한 생활

- **태만**-구체적으로 어떤 일에 대한 태도 따위에 열심히 하려는 마음이 없고 게으름

<보기>업무에 태만하다.

89.나가다-안에서 밖이나 앞쪽으로 이동하다.

<보기>나가서 놀아라.

- **나아가다**-앞으로 이동하거나 목적하는 바를 지향하여 가다.

<보기>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다.

90.낟알-이삭에 매달려 있는 상태 그대로의 알

<보기>보리 낟알

- **낱알**-하나하나 따로따로인 알

<보기> 옥수수에서 낱알을 하나하나 뜯어내었다.

91.날조(捏造)-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거짓으로 꾸밈

<보기>날조된 사건

위조(僞造)-어떤 물건을 속일 목적으로 복사기나 기타 기계 또는 수작업 등으로 진품인 것처럼 새로운 물건을 만들어 내는 것

<보기>위조 수표

변조(變造)-기존의 진품에 글자 · 숫자를 변경 · 첨삭하거나 사진 따위의 부착물을 떼고 다른 것을 붙이는 일

<보기>여권을 변조한 일당이 붙잡혔다.

92.내막(內幕)-주로 의도적으로 감추어 드러나지 않은 일의 속 내용

<보기>사건의 내막이 드러나다.

사정(事情)-개인이나 단체가 겪고 있는 일의 형편이나 까닭

<보기>친구의 딱한 사정을 알다.

실상(實狀)-알려져 있는 일의 실제 상태나 내용

<보기>사건의 실상을 파악하다.

93.너머-명사로서, '산·고개 따위 높은 곳의 저쪽'

<보기>산 너머 남촌에는 누가 살고 있을까?

넘어-타동사로, '넘다'의 '넘-'에 어미가 붙은 것으로, '이쪽에서 저쪽으로 어떤 사물의 위를 지나서'

<보기>고개를 넘어 십여 리는 더 가야 한다.

94.넓이-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 사이의 면적

<보기>교실의 넓이와 운동장의 넓이를 비교해 보자.

너비-물건의 가로만 잰 길이

<보기>이 강의 너비는 50m나 된다.

95.-노라고-'자기 나름대로 한다고'

<보기>하노라고 했는데 이 꼴이 되었다.

=느라고-앞말이 뒷말의 원인이나 이유가 됨

<보기>아침을 먹고 오느라고 늦었다.

96.녹용(鹿茸)-자라기 시작한 지 약 2개월 이내의, 아직 각질화되지 않아 물렁한 숫사슴의 뿔

녹각(鹿角)-성장을 멈추고 각질화되어 단단하게 된 숫사슴의 뿔

97.놀라다-뜻밖의 일로 가슴이 뛰거나 겁나다.

<보기>그의 갑작스런 행동에 크게 놀랐다.

놀래다-남을 놀라게 하다.

<보기>그는 사람 놀래 주는 게 취미다.

98.놀이-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스스로 하는 활동을 두루 이름

<보기>주사위 놀이를 하다.

오락(娛樂)-소극적으로 취미나 심심풀이로 남는 시간에 기분을 즐겁게 하는 일

<보기>텔레비전 시청은 우리 가족의 유일한 오락이다.

유희(遊戱)-장난스러운 의도나 몸짓 등으로 즐겁게 놀며 장난하는 행위

<보기>그녀는 발을 까닥거리며 혼자만의 유희를 즐겼다.

99.농락(籠絡)-의도적으로 남을 교묘한 꾀로 속여 이익을 얻거나 마음대로 놀림

<보기>소비자를 농락하다.

희롱(戱弄)-짓궂은 장난으로 남을 제멋대로 놀리거나 가지고 놂

<보기>유부녀를 희롱하다.

100.뇌사(腦死)-뇌의 모든 기능이 상실되어 심폐 소생술에 의지하지 않는 한 곧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태

식물인간 상태-대뇌의 기능은 상실되었으나 뇌간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어 인공 장치 없이도 자발적으로 호흡을 할 수 있는 상태

101.누다-의지를 가지고 소변이나 대변을 몸 밖으로 내보내다.

<보기>오줌을 누다.

싸다-'누다'를 속되게 이르는 말로 어린아이들의 경우처럼 의지와 상관없이 대소변을 보다.

<보기>기저귀에 동을 싸다.

102.누적(累積)-시간이 지남에 따라 자연적으로 포개져 쌓임

<보기>피로가 누적되다.

축적(蓄積)-일부러 의지를 경험 · 지식 ·자금 따위를 모아서 쌓음

<보기>경험과 부를 축적하다.

103.누출(漏出)-기체나 액체, 비밀이나 정보 따위가 밖으로 새어나감

<보기>가스가 누출되다.

유출(流出)-귀중한 물품이나 정보 따위가 나라나 조직 밖으로 흘러나감

<보기>시험문제가 유출되다.

104뉘우치다-도덕적, 윤리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스스로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겠다고 결심하다.

<보기>그는 그 동안 부모님에게 저지른 불효를 뼈저리게 뉘우쳤다.

후회하다-도덕적, 윤리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고, 자기가 한 일이나 행동이 잘못이나 실수였음을 느끼고 그러지 말았어야 했다는 과거의 반성에 강조점이 두다.

<보기>버스 떠난 뒤에 후회해 보아야 아무 소용없다.

105.느긋하다-마음에 여유가 있어 넉넉하다.

<보기>모처럼 휴가를 얻어 느긋한 시간을 보내다.

누긋하다-(물체가) 메마르지 않고 눅눅하거나 성질이 유순하다.

<보기>아직 떡이 누긋해서 먹을 만하다.

106.늘리다-부피 · 양 · 수 따위가 더 크게 하거나 많아지게 하다.

<보기> 몸무게를 늘리다.

늘이다-원래 것에 힘을 가하여 길이가 더 길어지게 하다.

<보기>엿가락을 늘인다.

느리다-움직임이나 일을 해내는 속도가 더디다.

<보기>진도가 너무 느리다.

107.능숙하다-구체적인 행위, 즉 능력이나 기술 · 지식 따위를 어렵지 않게 잘하다.

<보기>능숙한 말솜씨로 청중들을 사로잡다.

능통하다-기술 · 기능 · 지식 등의 분야 전체에서 아주 뛰어나다.

<보기>그는 외국어와 경제 분야에 능통하다.

108.**다량(多量)**-여러 종류를 가리키거나 셀 수 있는 양이 아닌 경우에 쓰임
<보기>다량의 칼슘이 함유되어 있는 멸치
- **대량(大量)**-한 종류를 가리키거나 셀 수 있는 양인 경우에 쓰임
<보기>자동차를 대량 수출하다.

109.**다르다**-비교되는 두 대상이 같지 아니하다.
<보기>너와 나는 생각이 다르다.
- **틀리다**-사실이나 셈 따위가 그르거나 맞지 않다.
<보기>답이 틀리다.

110.**다리다**-다리미로 문질러 구김을 펴다.
<보기>옷을 다리다.
- **달이다**-끓여서 진하게 하거나 우러나게 하다.
<보기>보약을 달여 먹다.

111.**다만**-능력이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느 한 가지 대상에 관심이 제한됨을 나타내는 말
<보기>나는 다만 얼굴이라도 보았으면 했다.
- **단지(但只)**-여러 가지 대상 중에서 선택된 것이 적거나 대단찮은 범위에 국한됨
<보기>그것은 단지 헛소문에 불과하다.
- **오직**-여러 가지 대상 가운데서 특별히 어느 하나나 둘 정도의 것에 관심을 제한하고 그 대상을 최선으로 것으로 생각함
<보기>우리에게는 오직 승리만 있을 뿐이다.

112.**다치다**-부딪치거나 맞거나 하여 상하다.
<보기>부주의로 손을 다쳤다.
- **닫히다**-'닫다'의 피동형, 닫음을 당하다.
<보기>문이 저절로 닫혔다.
- **닫치다**-문이나 창 따위를 힘주어 닫다.
<보기>문을 꼭 닫치고 들어오시오.

113.**다투다**-상대편에게 물리적인 힘을 가하거나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잘잘못을 가리다.
<보기>그는 사소한 문제로 친구와 다투었다.
- **싸우다**-물리적인 힘이나 말 따위로 상대편을 이기려고 하다.
<보기>그들은 총과 칼로 무장한 채 싸웠다.

114.**단검(短劍)**-양쪽이 모두 날로 된 작은 칼
<보기>소총 끝에 꽂는 단검을 대검이라고 한다.
- **단도(短刀)**-한쪽은 날, 다른 한쪽은 등으로 된 작은 칼
<보기>등산용 단도로 멧돼지를 잡았다.
- **비수(匕首)**-남을 상하게 하려는 의도로 품고 다니는 날이 날카로운 작은 칼
<보기>비수를 품다.

115.**단념(斷念)**-피치 못할 사정으로, 마지못하여 잊어버리는 일
<보기>할머니의 노염이 대단하셔서 독신주의를 단념했다.
- **체념(諦念)**-실현 가능성이 없어 그만두거나 잊어버리는 일

<보기>세계적인 물리학자가 되려는 꿈은 체념한 지 오래다.

116.**단박(에)**-그 자리에서 바로

<보기>그가 나를 단박에 알아보았다.

- **대번(에)**-서슴지 않고 단숨에

<보기>그는 어려운 수학 문제를 대번에 풀었다.

117.**단어(單語)**-낱말 하나하나

- **어휘(語彙)**-일정 범위의 단어의 집합

118.**단절(斷切)**-두절을 포함하여 관계나 교류 따위가 끊어짐

<보기>국교를 단절하다.

- **두절(杜絶)**-교통이나 통신이 끊어짐

<보기>통신이 두절되다.

119.**단점(短點)**-완성도와 상관없이 부정적이어서 허물이 되는 것

<보기>전력 소비가 많은 것이 이 냉장고의 단점이다.

- **결점(缺點)**-완성도에 비추어 부족한 것

<보기>결점을 찾을 수 없는 완벽한 미술작품

- **약점(弱點)**-주로 사람의 경우에 쓰이며 능력이 부족하거나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하여 감추고 싶거나 기를 펴지 못하게 되는 점

<보기>재능이 있으나 끈기가 없는 것이 그의 약점이다.

120.**달리다**-필요한 양이나 수보다 모자라다.

<보기>요즘 인기라 물량이 달릴 정도다.

- **딸리다**-어떤 것에 매이거나 속해 있음

<보기>딸린 식구가 많아 사정이 어렵다.

121.**담**-집 둘레에 일정한 공간을 둘러막기 위하여 흙이나 벽돌로 쌓아올린 것

<보기>담을 높게 쌓다.

- **벽**-집이나 방 따위를 둘러막기 위하여 쌓은 것, 극복하기 어려운 한계

<보기>집 벽에 칠을 새로 했다. 담을 높게 쌓다.

122.**담그다**-액체 속에 넣거나 김치 · 술 · 장 따위의 재료를 버무리거나 물을 부어서 그릇에 넣다

<보기>김치 한 항아리를 담갔다.

- **담다**-그릇 속에 물건을 넣다.

<보기>반찬을 접시에 담다.

123.**당하다**-부당하거나 원치 않는 일을 직접 겪다.

<보기>놀림을 당하다.

- **입다**-손해나 도움 따위를 받거나 겪다.

<보기>부상을 입다. 혜택을 입다.

124.**대비(對備)**-일어날 가능성에 대응하기 위해 미리 준비함

<보기>가뭄에 미리 대비하다.

- **대처(對處)**-이미 일어났거나 진행 중인 일에 대해 알맞은 조치를 취함

<보기>대처 방안을 마련하다.

125.**대여(貸與)**-건물이나 물건·돈 따위를 빌려주는 일
<보기>학자금 대여
- **대출(貸出)**-돈이나 물건 따위를 빌리거나 꾸어 주는 일
<보기>은행에서 대출을 받다.

126.**~던지**-지나간 일을 나타냄
<보기>얼마나 춥던지 귀가 떨어지는 줄 알았다.
- **~든지**-어느 것을 선택하든 상광 없는 사실이나 사물을 나열하는 보조사
<보기>가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127.**도막**-짧고 작은 동강
<보기>철사 도막
- **토막**-크고 덩어리가 진 도막
<보기>나무 토막

128.**도취(陶醉)**-감성적으로 어떠한 것에 홀린 듯이 순간적으로 열중하거나 기분이 좋아짐
<보기>승리감에 도취되다.
- **심취(心醉)**-어떤 일이나 사람에 깊이 마음을 쏟음
<보기>니체 철학에 심취하다.

129.**도피(逃避)**-잘못을 저질렀거나 좋지 않은 상황에 처하였을 때 도망하여 몸을 피함
<보기>적을 피해 산으로 도피하다.
- **피신(避身)**-여러 가지 상황으로 신변에 위험을 느껴 몸을 숨김
<보기>전쟁이 나서 피신을 가다.

130.**돋구다**-안경의 도수 따위를 더 높게 하다.
<보기>안경의 도수를 돋구다.
- **돋우다**-기세나 흥미, 입맛 따위가 더 높아지게 하다.
<보기>흥미를 돋우다.

131.**두껍다**-물체의 두께가 보통의 정도보다 크고 넘다.
<보기>옷을 두껍게 입다.
- **두텁다**-신의, 믿음 인정 같은 감정 따위가 굳고 깊다.
<보기>신앙심이 두텁다.

132.**뒤집다**-안과 겉을 뒤바꾸거나 밑에 오는 부분을 위로 오게 함
<보기>옷을 뒤집어 입다.
- **엎다**-밑과 위의 구별이 있는 경우, 물건 따위를 거꾸로 돌려 위가 밑을 향하게 하다.
<보기>꽃병을 엎다.

133.**덕분(德分)**-남이 베푼 고마움
<보기>지도하여 주신 덕분에 성공했습니다.
- **덕택(德澤)**-베풀어 준 혜택이나 도움
<보기>전축을 쓸 수 있게 된 것은 에디슨의 덕택이다.

134.**덥다**-땀이 날 정도로 불유쾌한 상태
- **따뜻하다**-땀이 나지 않을 정도로 기분 좋은 상태
- **뜨겁다**-오래 있으면 델 만큼 견디기 어려운 상태

135.**돈**-거래나 교환이 이뤄지는 일상생활의 구체적인 장면에서 빈도 높게 쓰이는 물건
<보기>돈을 빌리다.
- **화폐**-경제 현상의 추상적인 장면에 주로 쓰임
<보기>화폐의 공급

136.**동네**-공간적으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못 박아 말하기 어려운, 여러 집이 모여 있는 도시 생활공동체
- **마을**-비교적 공간적인 한정이 가능한, 여러 집이 모여 있는 시골 생활공동체

137.**드러나다**-가렸거나 숨겨졌던 것이 나타나다.
<보기>그의 실체가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 **들어내다**-안에 있던 것을 밖을 옮기다.
<보기>이번은 위를 드러내는 수술이었다.

138.**드리다**-'주다'의 높임말, 윗사람에게 축하나 감사 따위를 하거나 신에게 정성을 올리거나 비는 행위
<보기>선물을 드리다. 축하를 드리다. 예배를 드리다.
- **바치다**-'드리다'보다 공손한 표현으로 신이나 어른에게 아낌없이 내놓거나 쓰다.
<보기>임금에게 공물을 바치다.

139.**등산(登山)**-산에 오르는 모든 행위
<보기>북한산으로 등산을 가다.
- **등반(登攀)**-험한 산이나 높은 곳의 정상을 반드시 오르기 위해 기어오른 일
<보기>암벽 등반에 나서다.

140.**따르다**-액체를 천천히 가는 줄기를 이루게 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다.
- **붓다**-액체를 빠르게 굵은 줄기를 이루어 다른 곳으로 옮기다.
- **쏟다**-액체를 급격하게 한꺼번에 나오게 하여 다른 곳으로 옮기다.

141.**때깔**-물건이나 옷 따위의 겉에 드러나는 색깔이나 모양새, 맵시를 통틀어서 이름
<보기>한복의 때깔이 곱다.
- **빛깔**-물체가 빛을 받아서 생기는 특이한 색
<보기>무지개의 빛깔이 곱다.

142.**떠들썩하다**-여러 사람이 큰 소리로 말하여 시끄럽다.
<보기>명절에는 모처럼 모인 가족들의 이야기로 집안이 떠들썩하다.
- **시끌벅적하다**-큰 소리가 나고 무엇이 움직여 시끄럽고 어수선하다.
<보기>한밤중에 싸움이 벌어졌는지 바깥이 시끌벅적하다.
- **야단법석이다**-많은 사람이 모여 큰 소리로 말하여 부산스럽게 굴다.(사람+소리+움직임)
<보기>강둑이 터지자 마을 사람들이 야단법석이다.

143.**떨다**-자꾸 경망스럽게 행동이나 태도가 반복되다.
<보기>방정을 떨다.
- **털다**-달려 있거나 붙어 있는 것이 떨어지게 흔들거나 차거나 하다.
<보기>그녀는 먼지가 잔뜩 묻은 옷을 털었다.

144.**뜰**-화초나 나무, 혹은 푸성귀가 심어져 있는 공간으로 집의 앞뒤로 가까이 딸려 있는 닦

이지 않은 땅
<보기>뜰에 상추를 심다.
- **마당**-집의 앞뒤에 평평하게 닦아 놓아 활동 공간으로 비워 놓은 땅
<보기>마당에서 타작을 하다.

145.**띠다**-물건을 지니다. 용무나 사명을 가지다.
<보기>우리는 민족적 사명을 띠고 태어났다. 푸른빛을 띤 초원
- **띄다**-'뜨이다'의 준말로 뜨게 하다.
<보기>금방 눈에 띄었다.
- **띄우다**-물 위나 공중에 뜨게 하다. 사이가 뜨게 하다.
<보기>소식을 띄워 보내다. 책상 사이를 띄우다.

146.**-ㄹ걸**-혼잣말에서 사람의 추측이 상대의 기대와 다름을 나타내거나, 하지 않은 일에 대한 후회나 아쉬움을 나타내는 종결어미
<보기>공부 좀 열심히 할 걸
- **-ㄹ 걸**-의존명사 '것'과 목적격조사 '을'이 붙은 형태가 줄어든 말
<보기>그녀는 냉장고에서 먹을 걸 꺼냈다.

147.**-(으)러**-그 동작의 직접 '목적'을 표시하는 어미
<보기>공부하러 간다.
- **-(으)려**-그 동작을 하려고 하는 '의도'를 표시하는 어미
<보기>친구를 만나려고 한다.

148.**마술(魔術)**-재빠른 손놀림이나 특수한 장치를 써서 눈속임으로 신기한 일을 보여주는 기술
<보기>그의 마술은 기네스북에도 올라 있다.
- **요술(妖術)**-동화와 같은 상상의 세계에서 신비한 현상을 만들어 내는 기술
<보기>하늘을 날아다니는 요술 양탄자

149.**마침내**-어떤 일이 긍정, 부정을 막론하고 마무리되거나 행동 따위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종결의 의미를 갖는 문장에서 주로 쓰인다.
<보기>마침내 작품이 완성되었다.
- **드디어**-어떤 일이나 행동 따위가 그로부터 시작됨을 나타내므로 주로 긍정적, 희망적 문맥에서 시작의 의미를 갖는 문장에서 쓰인다.
<보기>드디어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150.**마치다**-(하던 일을)끝내다. 마무리하다.
<보기>벌써 일을 마쳤다.
- **맞추다**-틀리거나 어긋남이 없게 하다. 마주 대다. 무엇에 맞도록 하다. 미리 부탁하여 만들게 하다.
<보기>박자를 맞추다. 입을 맞추다. 보조를 맞추다. 옷을 맞추다.
- **맞히다**-물음에 맞는 답을 내다.
<보기>여러 문제를 척척 맞혔다.

151.**만들다**-노력을 기울이거나 기술을 써서 목적한 것을 이루다.
<보기>출판사에서 책을 만들다.
- **짓다**-재료를 가지고 짜임새나 구조를 갖추어 새로 구성한 것을 이룸

<보기>매듭을 짓다.

152.막역(莫逆)하다–서로 허물이 없이 썩 친하다.

<보기>막역한 친구가 일주일 전에 이민을 갔다.

- **막연(漠然)하다**–범위나 내용이 갈피를 잡을 수 없게 어렴풋하다.

<보기>하면 되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그 사업을 시작했다.

153.망가지다–단단한 물건이나 단단하지 못한 사물의 모양이 상하거나 그 기능이 손상되다.

<보기>그는 다 망가진 승용차를 몰고 다닌다.

- **부서지다**–단단한 물건 따위가 개어져 조각나거나 헐어져 짬이 느슨하다.

<보기>문이 부서져 삐걱거리다.

154.맞다–제시된 문제나 말이 요구하는 답이나 알고 있는 말과 일치하다.

<보기>답이 맞다.

- **옳다**–사리(합리성)에 비추어 바르거나 격식에 알맞다.

<보기>사람은 옳게 살아야 한다.

155.맞추다–정답을 비교하는 것과 같이 어떤 것을 다른 것과 나란히 놓고 비교하여 살피다.

<보기>아이들이 서로 답을 맞추어 보느라 바쁘다.

- **맞히다**–어떤 문제를, 또는 문제에 대한 답을 옳게 답하거나 옳은 상태로 되게 하다.

<보기>아이는 수수께끼의 답을 맞히지 못했다.

156.매기다–기준에 따라 값, 등수 등을 정하다.

<보기>품질에 비해 싼 값을 매겼다.

- **메기다**–둘이서 노래를 부를 때 먼저 부르거나 윷놀이에서 말을 옮겨 놓다.

<보기>선창(先唱)을 메기다.

157.매다–끈 따위를 엇걸고 잡아당기어 밀접하게 연결하거나 마디를 만들다.

<보기>머리띠를 매다.

- **묶다**–사물을 대상으로 끈 따위로 엇걸고 잡아당기어 움직이지 못하게 하거나 한데 있게 하다.

<보기>짐을 묶다.

158.매우–‘보통 정도보다 훨씬 더’란 뜻으로 ‘아주’보다 절제된 표현으로 완곡한 표현에 더 자연스럽게 쓰인다.

<보기>그 동물은 매우 사납다.

- **몹시**–‘더할 수 없이 심하게’란 의미로 대체로 부정적인 정서를 나타낸다.

<보기>그는 몹시 화가 났다.

- **아주**–‘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란 뜻으로 ‘매우’보다 지나친 정도를 나타낸다.

<보기>그녀는 한국을 아주 떠났다.

159.무섭다–공포감이 대상 자체의 속성에서 기인하는 즉각적 상태의 공포감

<보기>그 영화는 대단히 무섭다.

- **두렵다**–대상을 받아들이거나 이해하는 심리상태에서 기인하는 비즉각적인 상태의 불안감

<보기>부실 공사로 붕괴 사고라도 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든다.

160.머지않아–‘멀지 않아’가 줄어진 꼴, 시간적으로 오래지 아니하여

<보기>머지않아 봄은 다시 올 것이다.

멀지 않아–'멀다+않다'가 줄어진 꼴로, 공간적으로 떨어지지 아니하여

<보기>친정이 멀지 않아 좋은 점이 참 많다.

161.먼저–앞서서, 둘 이상의 대상이나 일이 있을 경우, '순서상 더 앞에'라는 의미다.

<보기>당신 먼저 하세요.

빨리–보통 소요되는 정도보다 덜 걸리게

<보기>빨리 결정하다.

일찍–예정된 시각보다 또는 일정한 시각보다 이르게, 행위가 시작되거나 끝나는 시점에 초점을 둔다.

<보기>1시간 일찍 귀가하다.

162.메다–주로 끈이나 긴 채 따위가 달려 있는 물건 따위를 어깨에 걸치거나 올려놓다.

<보기>핸드백을 어깨에 메다.

지다–주로 물건 전체를 꾸려서 등에 얹다.

<보기>과일 상자를 등에 지다.

163.강태–강원도에서 나는 명태

건명태–북어

더덕북어–얼부풀어서 더덕처럼 마른 북어

동태–겨울에 잡아 얼린 명태

막물태–맨 끝물에 잡힌 명태

북어–말린 명태=건명태

생태–말리거나 얼리지 않은 잡은 대로의 명태

선태(鮮太)–갓 잡은 싱싱한 명태

황태(黃太)–더덕북어

164.몇–사람 수 · 나이 · 개수 따위에서 그리 많지 않은 수를 막연하게 나타내거나 잘 모르는 수를 물을 때 쓰는 말

<보기>자네가 올해 몇인가?

얼마–값 · 시간 · 거리 ·양 · 정도 따위의 모르는 수량 · 정도 · ·값을 물을 때 쓰는 말

<보기>지갑에 돈이 얼마 없다.

165.모시다–대상을 공경하여 대하거나 소중히 대하는 행위를 포함해 윗사람이나 존경하는 이를 가까이에서 받들다.

<보기>그녀는 시부모님을 모시고 산다.

섬기다–그 가르침이나 명령

따위를 소중히 여겨 신이나 윗사람을 극진히 받들다.

<보기>사람들은 그를 진정한 스승으로 섬겼다.

166.목적–어떤 일을 하게 하는 원동력으로서의 동기나 이유에 초점을 두어 광범위한 목표를 가리키거나 추상적인 수식어와 어울려 쓰임

<보기>인생의 뚜렷한 목표

목표–대체로 현실적이고 실현이나 성패 여부가 분명히 판가름되며 행동을 통하여 이루거나 도달하려고 할 때 쓰임

<보기>공격 목표

167.몽둥이–일부러 깎거나 다듬지 않은 자연사태의 조금 굵고 기름한 막대기

<보기>왜구의 횡포에 분개한 백성들이 몽둥이를 들고 일어섰다.

방망이–인위적으로 깎거나 다듬어 만든 둥그스름하고 길게 깎아 만든 도구

168.**무슨**–잘 모르는 대상을 묻거나, 특별히 정하여지지 않는 사물을 이를 때 쓰임

<보기>도대체 무슨 말을 들었기에 그렇게 화가 났니?

어떤–잘 모르는 사물의 특성 · 상태 · 성격 따위를 묻고나, 대상을 뚜렷하게 밝히지 않고 이를 때 쓰는 말

<보기>그는 어떤 사람입니까?

169.무용(舞踊)–전문적인 교육을 받아 음악에 맞추어 율동적인 동작으로 감정과 의지를 표현하는 예술

<보기>한국 고전 무용을 전공하다.

춤–전문적인 경우를 포함해서 장단에 맞추거나 흥에 겨워 팔다리와 몸을 율동적으로 움직이는 동작

<보기>흥에 겨워 춤을 추다.

170.무치다–나물 등에 양념을 넣고 한데 섞다.

<보기>시금치를 맛깔스럽게 무쳐서 먹었다.

묻히다–물이나 자잘한 것 등을 묻게 하다.

<보기>간장을 살짝 묻혀서 먹어 보세요.

171.문명(文明)–사람의 지혜가 깨어 야만과 미개에서 벗어나 물질과 기술이 개선된 상태

<보기>아프리카에는 아직도 문명이 뒤떨어진 여러 나라가 있다.

문화–사람의 지혜가 깨어 자연 그대로의 상태를 벗어나 언어 · 예술 · 종교 · 지식 · 도덕 등 정신적, 지적인 일체의 성과

<보기>인류는 찬란한 문화를 창조했다.

172.미덥다–굳게 믿고 의지할 만하다는 뜻으로, 주로 사람 자체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을 내릴 때 쓰임

<보기>아들이 별로 미덥지 않다.

미쁘다–부기에 굳게 믿고 의지할 만한 데가 있다는 뜻으로, 주로 사람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한 개별적인 인상을 나타낼 때 쓰임

<보기>그의 걸음걸이는 도저히 미쁘게 보이지 않는다.

173.밉다–미워하는 이유나 원인이 분명하여 물건의 모양이나 생김새가 볼품없거나 사람의 행동거지가 못마땅하여 눈에 거슬리다.

<보기>얼굴이 밉다.

싫다–싫은 원인이 '밉다'에 비해 분명하지 않고, 일이나 대상이 마음에 들지 않거나 나쁘게 생각하여 대하거나 가까이하기를 꺼리다.

<보기>남자가 싫다.

174.바뀌다–원래의 내용이나 모양이 다른 것으로 대신하게 되거나 다르게 고쳐지다.

<보기>그녀는 머리 모양이 생머리에서 파마머리로 바뀌었다.

변하다–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따로 없이 자연스럽게 다른 것이 되거나 성질이 달라지다.

<보기>눈이 녹아 물로 변하였다.

175.**바치다**-자기의 정성이나 힘 · 목숨 등을 남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하다.

<보기>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다.

- **받치다**-우산이나 양산 따위를 펴서 들다.

<보기>우산을 받치고 간다.

176.**박이다**-관용적으로 굳어진 제한된 의미로 쓰여 굳은살이 생기거나 습관 · 태도 따위가 깊이 배다.

<보기>발에 굳은살이 박이다.

- **박히다**-'박는' 행위와 직접 또는 비유적으로 관련되어 두드러져 꽂히거나 깊이 넣어지거나 새겨지다.

<보기>그의 생전의 모습이 뇌리에 박혀 있다.

177.**받히다**-떠받음을 당하다.

<보기>쇠뿔에 받혔다.

- **밭치다**-건더기가 섞인 액체를 체 따위에 걸러 국물만 받아내다.

<보기>술을 체에 밭치다.

178.**밖에**-주로 체언 뒤에 붙어서 '그것 말고는', '그것 외에는'의 뜻을 나타내되 부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임

<보기>이번 일은 너밖에 해낼 사람이 없다.

- **뿐**-체언이나 부사어 뒤에 붙어서 '그것만이고 더는 없음' 또는 '오직 그렇게 하거나 그러하다'는 뜻을 나타내되, 긍정을 나타내는 말과 함께 쓰임

<보기>오직 믿을 사람을 너뿐이다.

179.**반도**-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이 바다 쪽으로 길게 내민 땅

- **곶**-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이고 한 면이 바다 쪽으로 길게 내민 땅의 뾰족한 끄트머리

180.**반드시**-틀림없이 꼭 또는 예외 없이 꼭

<보기>약속 시간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 **반듯이**-작은 물체나 생각 · 행동 따위가 비뚤어지거나 기울거나 굽지 아니하고 바르게

<보기>언제나 몸가짐을 반듯이 하도록 해라.

181.**반어(反語)**-표현하고자 하는 의도와는 정반대의 표현으로써 언어적 효과를 높임

<보기>참 푸지게도 준다.(인색하다)

- **역설(逆說)**-모순 어법을 통해 언어적 효과를 높임

<보기>눈 뜬 장님.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

182.**반증(反證)**-어떤 주장에 대하여 반대되는 논거를 들어 증명함

<보기>무죄임을 반증할 만한 결정적인 증거가 없다.

- **방증(傍證)**-사실을 직접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되지 않지만, 주변의 상황 등을 밝힘으로써 간접적으로 그 증명에 구실을 하는 증거

<보기>아직 결정적 단서를 찾지 못한 경찰은 여러 가지 방증을 토대로 수사의 방향을 일단 타살 쪽으로 잡고 있다.

183.**발명(發明)**-그때까지 없었던 새로운 기계나 물건 따위를 생각해 내거나 만들어 내는 것

<보기>다이너마이트를 발명한 노벨

발견(發見)-남이 미처 찾아내지 못하였거나, 세상에 알려지지 않은 사물을 맨 먼저 찾아내는 것

<보기>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

184.발전(發展)-이전보다 세력이 크게 넓어지거나 제도나 기구 등이 낮은 상태에서 높은 상태가 되는 것

<보기>과학이 발전하려면 기초과학 연구가 튼실해야 한다.

발달(發達)- 일정한 수준 또는 상당한 수준에 이름

<보기>서양은 일찍부터 과학이 발달하였다.

185.배부(配付)-어느 정도 제한되거나 정하여져 있는 사람들에게 출판물이나 서류 · 물건 따위를 나누어줌

<보기>회원들에게 회보를 배부하다.

배포(配布)-정해져 있지 않은 사람에게 신문이나 책자 따위를 널리 나누어 줌

<보기>행인들에게 전단을 배포하다.

186.보상(補償)-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적법한 행위에 의하여 국민 또는 주민에게 가한 재산상의 손실을 보태어 채워줌

<보기>도로 건설에 따른 주민들의 손실을 국가에서 보상하다.

배상(賠償)-위법 행위로 남의 권리를 침해하여 손해를 입힌 자가, 손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그 손해를 메꾸어 줄 때 손해의 이전과 동일한 상태로 만들어 줌

<보기>잃어버린 물건을 돈으로 배상하다.

187.배짱-이미 마음속으로 다져 먹은 생각을 굽히지 않고 버티어 나가는 성품

<보기>배짱대로 해 봐라.

배포(排布)-물건 따위를 일정한 차례나 간격에 따라 벌여 놓는 것처럼, 머릿속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조리 있게 계획하는 마음

<보기>배포가 두둑하다.

188.번영(繁榮)-국가 · 민족 · 기업 따위의 집단이 한창 성하게 일어나 퍼지고 영화롭게 됨(긍정적인 경우)

<보기>우리 민족의 번영

번창(繁昌)-기세가 한창 왕성하고 크게 일어나 잘 뻗어 나감(긍정적, 부정적인 경우)

<보기>향락 산업의 번창

189.벌리다-둘 사이를 떼어서 넓히거나 멀게 하다.

<보기>가랑이를 벌리다.

벌이다-어떤 일이나 물건을 펼쳐 놓거나 늘어놓다.

<보기>가게를 벌이다.

190.볕-내리쬐는 뜨거운 기운

<보기>볕이 따뜻하다.

빛-물체를 볼 수 있게 하는 자극

<보기>빛이 없어 캄캄하다.

191.보수(報酬)-어느 한때 또는 맡아서 두고두고 하는 일의 대가

<보기>정당한 보수를 받아야 근로 의욕도 생긴다.

삯–필요한 때마다 일을 해 주고 받는 대가

<보기>이틀치 삯을 쌀로 받았다.

임금(賃金)–계약 등에 의해 고정적으로 하는 일의 대가

<보기>남녀 임금 격차가 심하다.

192.보존(保存)–잘 간수하여 존속하게 하는 것

<보기>이 식품은 냉장고에 넣어 약 1주일 정도 보존이 가능하다.

보전(保全)–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지님

<보기>우리 영토를 잘 보전하자.

193.봉오리–망울만 맺힌 채 아직 피지 않은 꽃

<보기>철쭉이 탐스럽게 봉오리가 맺혔다.

봉우리–산에서 높고 뾰족하게 솟은 부분

<보기>저 봉우리까지 올라가 보자.

194.부끄럽다–주어진 조건이나 상황 쪽에 원인이 있어 당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하게 느끼는 상태에 있거나 숫기나 용기가 없어 거리낌을 느끼는 상태에 있다.

<보기>거짓말을 한 자신이 부끄럽다.

수줍다–성격적인 이유에서 숫기가 없어 다른 사람 앞에서 말이나 행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어려워하는 태도가 있다.

<보기>그녀는 수줍은 듯 얼굴을 붉힌다.

195.부딪다–물건과 물건이 서로 힘 있게 마주 닿다.

<보기>뒤차가 앞차에 부딪는다.

부딪치다–주체가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거나 그냥 있는 어떤 대상을 향하여 아주 힘 있게 닿거나 대다.

<보기>파도가 바위에 부딪쳤다.

부딪치이다–'부딪히다'의 피동형

<보기>후진하는 자동차에 부딪치이었다.

부딪히다–의지 없이 움직여 오는 동작으로 힘 있게 마주 닿아지거나 대어지다.

196.부르다–호칭어를 말하여 상대가 반응을 보이게 하다.

<보기>이름을 부르다.

이르다–주로 사물에 무엇이라고 이름을 붙이거나 가리켜 말하다.

<보기>견우 · 직녀가 만나는 다리를 오작교라 이른다.

일컫다–주로 사물을 별명을 지어 말하거나 가리켜 말하다.

<보기>호랑이를 백수의 왕이라고 일컫는다.

197.부수다–단단한 물체를 여러 주각이 나게 깨뜨리다.

<보기>유리창을 부수다.

부시다–그릇 따위를 깨끗하게 씻다.

<보기>냄비를 물로 한 번 부시고 물을 받았다.

198.(부정문)못–능력이나 외부적 조건에 의한 부정

<보기>그는 술을 먹지 못한다.(못 먹는다.)

안–주체의 의지에 의한 부정

<보기>다시는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안 부르겠다.)

199.분간(分揀)-어떤 사물을 겉으로 드러난 것을 중심으로 직관적으로 다른 것과 구별하여 내거나 가려서 앎

<보기>진짜와 가짜를 분간하다.

- **분별(分別)**-사고과정을 거쳐 서로 다른 사물을 구별하여 내거나 가려서 앎

<보기>그는 가끔 분별이 없는 행동을 하곤 했다.

200.불모지(不毛地)-자연적인 조건이 좋지 못하여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거칠고 메마른 땅

<보기>풀 한 포기 자라지 못하는 불모지

- **황무지(荒蕪地)**-인위적인 노력이 가해지지 않아 잡풀이 우거져 농작물이 자라기 어려운 곳

<보기>오랫동안 버려 준 황무지를 개간하다.

201.불평(不平)-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마음에 들지 않는 사항을 말로 드러내어 표현하다.

<보기>불평을 늘어놓다.

- **불만**-어떤 일이나 사람에 대하여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심리적 태도

<보기>불만이 많다.

202.붙들다-사람이 다른 사람이나 물건을 손안 또는 팔 사이에 있게 하거나 힘을 주어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다.

<보기>양손으로 친구의 손을 붙들다.

- **잡다**-사람이 손이나 몸의 다른 부분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어떤 물건을 손안이나 일정한 범위 안에 있게 하다.

<보기>그물로 물고기를 잡다. 혼인 날짜를 잡다.

- **쥐다**-손가락을 오므려 주먹이 되게 하거나 힘이나 권력 따위를 자기 것으로 하여 마음대로 쓸 수 있게 되다.

<보기>주먹을 쥐었다가 천천히 펴다. 한 국가를 쥐고 흔들다.

203.비추다-빛을 내는 대상이 다른 대상에 빛을 보내어 밝게 하거나 그렇게 하여 어떤 물체의 모습이 나타나게 하다.

<보기>길바닥에 손전등을 비추다.

- **비치다**-빛이 나서 환하게 되거나 그 빛을 받아 어떤 모양이 나타나 보이다.

<보기>햇빛이 밝게 비치다.

204.빛-어둠을 밝히는 모든 광선

- **볕**-오로지 태양의 광선만을 가리키며, 아울러 그 빛의 따뜻한 기운을 가리킴

205.빠개다-작고 단단한 물건을 두 쪽으로 가르다.

<보기>호두를 빠개고 알맹이를 꺼냈다.

- **짜개다**-단단한 물건을 연장으로 베거나 찍어 가르다.

<보기>동생이 장작을 도끼로 짜갰다.

206.빠르다-사람이나 물체 따위의 움직이는 속도가 보통 정도를 넘다.

<보기>두뇌 회전이 빠르다.

- **재다**-신체의 특정 부분만을 움직이는 속도가 보통 정도를 넘다.

<보기>손놀림이 재다.

207.**어서**-재빠른 행동을 요구하다.

<보기>어서 와!

- **얼른**-'미루지 말라'는 뜻을 내포함

<보기>얼른 해!

- **빨리**-'느리지 않게'의 뜻을 내포함

<보기>늦지 않게 빨리 와!

- **냉큼**-가볍고 민첩한 행동을 요구함

<보기>냉큼 못 와!

- **퍼뜩**-의식할 사이 없는, 반사적 행동을 요구함

<보기>퍼뜩 와!

208.**빻다**-찧어서 가루로 만들다.

<보기>밀을 빻아서 밀가루를 만들다.

- **쓿다**-거친 곡식을 찧어 속꺼풀을 벗기고 깨끗하게 하다.

<보기>수수를 쓿다.

- **찧다**-내리치는 행위에 초점이 있으며 곡식 따위를 절구에 담고 공이로 내리쳐 쓿거나 빻거나 으깨다.

209.**사람**-구체적 개개의 존재

- **인간(人間)**-추상적, 관념적, 총칭적 존재

210.**사용(使用)**-도구나 물건 등을 그 본디의 용도에 맞게 쓰는 일

<보기>망치를 사용하여 못을 박다.

- **이용(利用)**-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혹은 편의를 얻으려고 사람이나 사물 등을 부리거나 쓰는 일

<보기>성냥개비를 이용해 탑을 쌓다.

211.**산림(山林)**-산에 이루어졌거나 울창하지 않은 숲

- **삼림(森林)**-평지에 이루어진 숲도 가리키며 울창한 숲을 이름

212.**살해(殺害)하다**-사람의 생명을 빼앗다.

<보기>포로들을 무참히 살해하다.

- **암살(暗殺)하다**-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몰래 사람의 생명을 빼앗다.

<보기>대통령을 암살하다.

- **죽이다**-사람이나 혹은 동물의 생명을 빼앗다.

<보기>강도가 사람을 죽이다. 호랑이를 죽이다.

213.**살**-웃어른에게 쓰기 어려운, 사람이나 동물의 나이를 세는 단위

- **세(歲)**-아이와 어른 모두에게 쓸 수 있음

214.**살지다**-탐스럽게 살이 많은 상태를 나타내는 형용사

- **살찌다**-살이 붙거나 많아지는 작용을 나타내는 동사

215.**상(上)**-위와 아래의 구별이 분명한 물체의 위를 이르는 명사로 띄어 쓴다.

<보기>지구 상에 살고 있는 모든 생물

- **-상(上)**-'그것에 관한' 또는 '그것에 있어서'의 뜻을 나타내거나 구체적이거나 추상적인 공간에서의 한 위치를 뜻함

<보기>절차상의 문제

216.새-몸에 깃털이 나 있고 다리가 둘이며 공중을 날 수 있는 짐승

- **조류**-몸에 깃털이 나 있고 다리가 둘이며 공중을 날 수 없는 짐승도 포함됨

217.생기다-없던 일이나 물질이 나타나다.

<보기>돈이 생기다.

- **일어나다**-마음이나 이미 존재하던 것이 위로 또는 밖으로 움직이거나 나타나다.

<보기>먼지가 일어나다.

218.생명-사람을 비롯한 모든 생물을 포함하여 살아 있는 현상이나 힘

- **목숨**-사람의 살아 있는 현상이나 힘

219.나이를 기리는 말

15세-지학(志學) – 십유오이지우학(十有五而**志**于**學**-열다섯에 학문에 뜻을 두었다)

20세-약관(弱冠) – 이십왈약관(二十曰**弱冠**-스물을 약관이라고 한다)

30세-이립(而立) – 삼십이립(三十**而立**-서른에 자립하였다)

40세-불혹(不惑) – 사십이불혹(四十而不惑-마흔에 모든 사리 판단에 미혹하지 않았다)

50세-지명(知命) – 오십이지천명(五十而**知**天**命**-쉰에 천명을 알았다)

60세-육순(六旬) – 육십이이순(六十而**耳順**-예순에 모든 일을 들으면 마음이 통하여 거스름이 없었다)

61세-환갑(還甲), 회갑(回甲), 화갑(華(花)甲), 주갑(周甲)-태어난 해의 갑(甲)이 다시 돌아옴

62세-진갑(進(陳)甲) -환갑보다 한 해 더 나아간(진(進)) 나이란 뜻

66세-미수(美壽) – '미(美)' 자를 파자하면 '육(六)+육(六)'이 되는 것에서 유래됨

70세-칠순(七旬), 고희(古稀) –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인생 칠십은 예로부터 드물었다)

71세-망팔(望八) – 팔십을 바라보는 나이

77세-희수(喜壽) – 희(喜)는 초서로 七이 셋 있는 글자임

80세-팔순(八旬), 산수(傘壽)

81세-망구(望九) – 아흔을 바라보는 나이

88세-미수(米壽) – '미(米)'를 나누면 '팔십팔(八十八)'이 됨

90세-졸수(卒壽) – '졸(卒)'은 약자로 '구십(九十)'의 세로쓰기

91세-망백(望百) – 백(百)을 바라보는 나이

99세-백수(白壽) – '백(百)'에서 '일(一)'을 빼면 99가 되므로

220.섞다-두 가지 이상의 액체와 액체, 고체와 고체를 혼합하다.

<보기>쌀과 보리를 섞다.

- **타다**-다량의 액체에 소량의 액체나 가루를 뒤섞다.

<보기>보리차에 분유를 타다.

221.선언(宣言)-국가나 단체가 지니고 있던 의견이나 주장 따위를 드러내어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

<보기>민주화 선언

선포(宣布)-결정된 법령이나 합의된 사실을 단순히 많은 사람들에게 알림

<보기>계엄령 선포

222.설다-사물의 외관이나 소리에 익숙하지 못하다.

<보기>눈에 설다.

서투르다-어떤 일이나 생각 또는 감정 따위에 능숙하지 못하다.

<보기>애정 표현이 서투르다.

223.성(性)깔-거친 성질을 부리는, 공격적, 부정적인 버릇이나 태도

<보기>성깔을 부리다.

성미(性味)-'성질 · 마음씨 · 비위 · 버릇 · 취미' 등을 통틀어 이르거나 성질의 특징을 이르는 말

<보기>성미가 고약하다.

224.순수(純粹)-딴 생각이나 그릇된 욕심이 없음

<보기>의도가 순수하다.

순박(淳朴)-겉으로 드러난 옷의 차림새나 외양 또는 태도가 꾸밈이 없음

<보기>인심이 순박하다.

순진(純眞)-마음이 꾸밈이 없고 참됨. 주로 어린이에 사용하며, 어른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의미를 내포한다.

<보기>순진한 말

225.스무-'스물'을 뜻하는, 고유어계 수 관형사로 단위를 나타내는 의존명사 앞에 쓰임

<보기>스무 살이 된 딸

스물-'열의 갑절'을 뜻하는 고유어계 양수사로 사물의 수량을 나타내는 데 쓰임

226.승강이-양편이 팽팽이 맞서 서로 자기 주장을 고집하며 옥신각신함

<보기>그들은 서로 자기가 옳다고 승강이를 벌였다.

실랑이-어느 한 편이 일방적으로 자기의 주장이나 생각이 옳으니 그르니 하며 남을 괴롭힘

<보기>그는 술만 마시면 아무나 붙잡고 실랑이를 벌였다.

227.시호(諡號)-제왕이나 재상, 덕망이 높은 사람이 죽은 뒤에 그들의 공덕을 칭송하여 붙이던 이름

<보기>임금은 이순신 장군에게 충무라는 시호를 내렸다.

묘호(廟號)-임금이 죽은 뒤에 그 공덕을 기리어 붙이던 이름

<보기>조선을 세운 이성계의 묘호는 태조다.

자(字)-장가든 뒤에 본명 대신 부르던 이름으로 본명을 소중히 여겨 함부로 부르지 않던 관습에 따라 따로 지어 불렀음

<보기>공자의 이름은 구(丘)고 자는 중니(中尼)다.

호(號)-친구나 허물없는 관계의 사람들 사이에 쓰던 이름으로 주로 친구들 간에 썼다.

228.싣다-물체를 운반할 목적으로 차 · 배 · 수레 · 비행기 · 짐승의 등 따위에 올리거나 어떤 곳에 가기 위하여 스스로 탈 것에 오른다는 의미로도 쓰인다.

<보기>트럭에 짐을 싣다. 고단한 몸을 버스에 싣고 집으로 돌아가다.

태우다-사람을 탈 것이나 짐승의 등 따위에 타게 하다.

<보기>이 아이를 다음 마을까지만 태워 주시겠습니까?

229.심려(心慮)-과거에 일어났거나 현재 진행 중인 일에 대해 마음속으로 걱정함 또는 그런 걱정

<보기>이번 일로 공연히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 **염려(念慮)**-앞일에 대한 여러 가지 일로 마음을 써서 걱정함

<보기>기회를 놓칠까 염려하다.

230.써라-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마주 대하고 하는 명령어

<보기>(교사가 학생을 앞에 두고)글씨를 또박또박 써라.

- **쓰라**-듣는 이를 생각하지 않고 매체를 통해서 하는 명령어로 주로 문장체에 쓰인다.

<보기>(출제자가 수험생에게)다음 글을 읽고 50자 이내로 그 줄거리를 쓰라.

231.쓰러지다-몸 전체가 균형을 잃고 길게 바닥에 닿은 상태

- **넘어지다**-균형을 잃고 발바닥 이외의 몸이 바닥에 닿은 상태

232.**아깝다**-'상실'의 의미가 강조되어 귀중하게 여기고 있던 것을 잃거나 놓치거나 하여 섭섭하거나 대상의 가치가 제대로 쓰이거나 다루어지 않아 안타깝다.

<보기>목숨이 아깝다.

- **아쉽다**-아예 없거나 모자라서 안타깝거나 미련이 남아 섭섭하다.

<보기>시간이 아쉽다.

233.아끼다-대상을 아깝게 여기거나 귀중히 여기다.

<보기>몸을 아끼다.

- **위(僞)하다**-대상을 이롭게 하거나 도우려 함

<보기>직장을 위하다.

234.아니하다-부정을 나타내는 보조용언으로 '-지' 아래에서만 쓰인다.

<보기>밥을 먹지 아니하다.

- **아니 하다**-'부사+타동사'로 반드시 목적어와 직접 호응된다.

<보기> 일을 아니 한다.(일을 하지 아니 한다.(않는다.)

235.아직-어떻게 되기까지 시간이 더 지나야 하거나 어떤 일이나 행위가 끝나지 않은 상태임을 뜻하는 말

<보기>봄이 되려면 아직 멀었다. 그는 아직 청춘이다.

- **여태**-어떤 행동이나 일이 끝났어야 하는데 끝나지 않고 현재까지 지속되어 옴을 뜻하는 부정적인 말

<보기>해가 중천에 떴는데 여태 일이 안 끝났다.

236.**안**-'아니'의 준말

<보기>공부를 안 한다.

- **않-** -'아니하'의 준말

<보기>공부를 하지 않는다.

237.안치다-삶거나 찌거나 끓일 물건을 솥이나 시루에 넣다.

<보기>솥에 쌀을 안치다.

- **앉히다**-앉게 하다.

<보기>윗자리에 앉힌다.

238.알갱이-열매 등의 낟알

<보기>보리 알갱이가 바닥에 흩어졌다.

알맹이-겉 부분을 제외하고 남은 속

<보기>누가 밤 알맹이만 쏙 빼먹은 거야?

239.얇다-대상이 구체적인 명사로, 주로 물질의 두께가 두껍지 아니한 경우에 쓰임

<보기>판자가 얇다.

엷다-대상이 '빛깔', '웃음' 따위의 추상적인 명사로, 물질의 두께가 두껍지 아니한 경우에 쓰임

<보기>색이 엷다.

240.애끓다-걱정 · 분노 · 울분 · 원망 등으로 속이 끓거나 타는 듯한 상태

애끊다-슬픔이 극한에 이르러 마음이 쓰리고 아픈 상태

241.애인(愛人)-사랑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가리킬 수 없으며 주로 구어에 쓰임

<보기>그녀가 그 사람의 애인이다.

연인(戀人)-사랑하는 두 사람을 동시에 가리킬 수 있으며 주로 문어에 쓰임

<보기>두 사람은 행복한 연인이다.

241.왠지-'왜인지'의 준말

<보기>왠지 모르게 서글퍼진다.

웬지-어찌 된, 어떤, 어떠한

<보기>이 밤중에 웬 소란일까?

242.원만(圓滿)하다-모난 데가 없이 둥글둥글하고 부드럽거나 일이 순조롭다.

<보기>참 원만한 성격을 지녔다.

웬만하다-'우연만 하다(그저 그만하다)'의 준말. (정도나 형편이) 어지간하다.

<보기>추위가 웬만하다.

243.어기다-약속이나 부탁 또는 명령 · 규칙 · 법률 따위를 지키거나 좇지 아니하고 거슬러 행동하다.

<보기>법규를 어기다.

위반(違反)하다-구속력이나 강제력이 있는 것을 대상으로 하여 명령 규칙 · 법률 따위의 정한 바에 거슬러 행동하다.

<보기>교통 법규를 위반하다.

244.어느-여럿 중, 어떤 것인지 모를 때 씀

<보기>지금 바람이 어느 쪽으로 불고 있습니까?

여느-다른 것과 다를 바 없는, 보통의

<보기>그는 여느 때와는 다르게 보였다.

245.어린이-4~5세 정도에서 중학교 가기 전까지의 연령에 있는 사람

아기-태아(胎兒)와 3, 4세까지의 사람

아이-'아기'와 '어린이'를 두루 이르는 말, 어린이 되기까지의 어린 사람

246.어름-두 물건의 끝이 한데 맞닿는 자리

<보기>경계서 어름에서 일어난 현상

얼음-물이 얼어서 굳어진 것

<보기>얼음이 얼었다.

247.**어스름**-날이 저물 무렵이나 동이 트기 전에 햇빛이 거의 비치지 않아 물체가 희미하게 보일 만큼 어두운 상태

<보기>저녁 어스름

- **으스름하다**-침침하고 흐릿하다

<보기>으스름 달밤

248.**언어(言語)**-의사 표현 또는 전달하기 위한 음성 및 문자기호

<보기>언어에는 말과 글이 있다.

- **말**- 의사 표현 또는 전달하기 위한 음성기호

<보기>말은 시·공간적 제약이 있다.

249.**여의다**-죽어서 이별하다.

<보기>3년 전 할아버지를 여의었다.

- **여위다**-몸에 살이 빠져 앙상한 상태가 되다.

<보기>며칠 앓고 났더니 몰라보게 여위었구나.

250.**여성(女性)**-성의 측면에서 남성에 상대하여 성인 여자 전체를 가리킴

<보기>여성의 권위를 향상시키다.

- **여인(女人)**-주로 문어체에서 성인이 된 여자를 이름

<보기>중년 여인

- **여자(女子)**-남자에 상대하여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나이에 상관없이 이르는 말

<보기>그녀는 한 여자로 태어나 남편만을 의지하며 살았다.

251.**열사(烈士)**-주로 맨몸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저항하다가 의롭게 죽은 사람

<보기>이준 열사

- **의사(義士)**-주로 무력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항거하다 의롭게 죽은 사람

<보기>안중근 의사

252.**예**-아주 오래 전의, 옛날 옛적(명사)

<보기>예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 **옛**-지나간 때의, 예전의(관형사)

<보기>옛 모습 그대로였다.

253.**위법(違法)**-법령과 선량한 풍속 및 사회질서에 어기는 것

- **불법(不法)**-선량한 풍속과 사회질서를 어기는 것
- **지사(志士)**-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제 몸을 바쳐 일하려는 뜻을 가진 살아 있는 사람

<보기>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싸우겠다는 지사들이 만주로 몰려들었다.

254.**오금**-무릎의 뒤쪽 오목한 부분

<보기>오금을 펴다.

- **장딴지**-종아리에서 살이 볼록한 부분

<보기>장딴지에 쥐가 나다.

- **정강이**-무릎 아래에서 발목까지 앞에 뼈가 있는 부분

<보기>정강이가 까지다.

255.**오명(汚名)**-주로 자기의 의사나 행위로 말미암아 얻게 된 불명예

<보기>불량 거래자라는 오명을 씻었다.

누명(陋名)-자기의 의사나 행위와는 상관없이 얻게 된 불명예
<보기>범인이라는 누명을 벗다.
256.오죽-'얼마나'의 듯으로 '~했으면'과 연결됨
<보기>오죽 답답했으면 그런 소리를 하겠어?
오직-오로지, 오직 한 곬으로
<보기>나에게는 오직 너뿐이다.
257.우물-일부러 땅을 파서 지하수가 괴게 한 곳
샘-천연적으로 지하수가 솟아나는 곳
258.일체(一切)-'모든 것', '온갖 것'
<보기>아버지께서는 재산 일체를 학교에 기부하셨다.
일절(一切)-'아주', '전혀', '절대로'의 뜻으로 흔히 어떤 내용을 부인하거나 행위를 금지할 때 쓰는 말
<보기>일절 떠들지 말라.
259.입-특별히 높임이나 낮춤의 뜻이 없이 '아가리, 주둥이, 부리'라고 써야 할 자리에까지 두루 쓰임
부리-날짐승의 주둥이
<보기> 닭의 부리
아가리-비교적 큰 길짐승의 입
<보기>호랑이 아가리
주둥이-'어류, 졸, 포유류, 양서류' 등의 입
<보기>붕어 주둥이.
260.잇달다-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거나 일정한 모양이 있는 사물을 다른 사물에 이어서 달다.
<보기>연 이틀 화재가 발생했다. 객차 뒤에 화물칸을 잇달았다.
잇따르다-어떤 사건이나 행동 따위가 이어 발생하거나 움직이는 물체가 다른 물체의 뒤를 이어 따르다.
<보기>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한다. 오토바이 세 대가 우리 옆을 잇따라 지나갔다.
261.자꾸-여러 번 반복하거나 끊임없이 계속하여, 시간적인 사이와는 관계없이 잇따라 계속되는 경우에 쓰임
<보기>손을 자꾸 흔들다.
자주-시간적인 사이가 짧게 여러 번 되풀이될 때 쓰임
<보기>그는 부모님을 자주 찾아뵙지 못했다.
262.자백(自白)-상대편의 강요나 추궁 따위에 의해 저지른 죄나 일 또는 비밀 따위를 털어놓음
<보기>범인은 형사의 끈질긴 추궁에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고백(告白)-본인의 뜻에 의해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는 사실을 털어놓음
<보기>그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다.
263.자세(姿勢)-움직이거나 가눌 때 몸의 형태, 혹은 사물을 대하는 마음가짐이나 대도를 이름
<보기>공격자세를 취하다.
태도(態度)-몸의 태도와는 상관없이 어떤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의 모습 또는 대상이나 상

황을 대하는 입장이나 관점
<보기>거만한 태도
264.자제(自制)-자기 스스로 감정이나 욕망 따위를 정도에 넘지 않도록 알맞게 조절함
<보기>술과 담배를 자제하다.
자중(自重)-품위를 지켜 말이나 행동, 몸가짐 따위를 신중하게 함
<보기>웃어른이 계실 때에는 늘 자중하도록 해라.
265.작렬(炸裂)-(폭발물이)터져서 쫙 퍼지는 것
<보기>폭죽이 밤하늘을 수놓으며 작렬하다.
작열(灼熱)-몹시 뜨겁게 타오름
<보기>태양이 작열하는 한여름
266.장래(將來)-이루려고 하는 그 무엇이 꼭 이루질 것이라는 생각을 바탕에 둔 앞날
<보기>장래가 보장된 청년
미래(未來)-어떤 일의 실현 가능성에 매이지 않는, 시간적 개념으로서의 앞날
<보기>과거도 중요하지만 미래는 더욱 중요하다.
267.장수-장사하는 사람
<보기>인심이 후한 호떡 장수 아저씨
장사-이익을 위해 물건을 사고파는 일
<보기>요즘은 장사해서 남는 게 없다.
268.장애(障碍)-신체기관이 본래의 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어떤 사물의 진행을 가로막아 충분한 기능을 못하게 함
<보기>지체 장애. 전파 장애
장해(障害)- 어떤 일을 하는 데에 특별하게 해가 되는 것을 가리킴
<보기>흡연은 건강을 유지하는 데 장해가 된다.
269.-장이-손으로 물건을 만들거나 고치는 일을 직업으로 가진 기술자를 홀하게 이름
<보기>미장이. 유기장이. 대장장이
-쟁이- 생긴 모습이나 성질, 습관, 행동 따위가 유별난 사람을 홀하게 이름
<보기>멋쟁이. 허풍쟁이
270.재료(材料)-소재가 물리적으로 변화하여 그 근본 성질이 변화하지 않을 때의 그 감
<보기>면사는 옷감의 재로로 쓰인다.
원료(原料)-소재가 화학적으로 변화하여 그 근본 성질이 변화한 제품으로 될 때의 그 감
<보기>사탕수수는 조미료의 원료가 된다.
271.재산(財産)-돈이나 물건 따위의 값나가는 것뿐만 아니라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 비유적으로 가치 있는 것을 뜻함
<보기>재산을 탕진하다. 문화유산은 우리의 소중한 재산이다.
재물(財物)- 개인이 소유한 돈이나 그 밖의 값어치 있는 구체적인 물건
<보기>재물을 탐내다.
272.조리다-어육이나 채소 등을 양념하여 바특하게 끓이다.
<보기>생선을 바싹 조리다.
졸이다-속을 태우다시피 조바심하다.

<보기>마음을 졸이며 기다리다.

273.**저렇다**-'저러하다'의 준말로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 모양 따위가 저와 같다.
<보기>모양은 저렇지만 성능은 뛰어난 자동차다.
- **저러다**-''저리하다'의 준말로 저렇게 행동하거나 말하거나 생각하다.
<보기>지금은 안 가겠다고 저러지만 나중에는 마음이 바뀔 걸.

274.**저리다**-몸의 일부가 너무 오래 눌려 있어서 신경이 마비된 듯한 느낌이 있다.
<보기>다친 다리가 저리다.
- **절이다**-소금이나 식초 따위를 써서 절게 하다.
<보기>김장 배추를 절이다.

275.**적시다**-물체의 내부로 물기가 배어들게 하거나 묻혀 젖게 하다.
<보기>손에 물을 적시다.
- **축이다**- 주로 건조한 물체에 비교적 적은 양의 물을 뿌리거나 하여 축축하게 하다.
<보기>목을 축이다. 가마니에 물을 축이다.

276.**정돈(整頓)**-지저분한 것을 치우고 남는 것을 가지런히 하는 일
<보기>사무실을 잘 정돈해라.
- **정리(整理)**- 흐트러진 것을 질서 있게 하거나 필요 없는 것을 지우는 일
<보기>책꽂이는 잘 정리해라.

277.**조국(祖國)**-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온 자기 나라나 국적을 바꾸었을 때 이전 국적의 나라를 가리킴
<보기>조국을 떠나다.
- **모국(母國)**-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왔으나 현재 조상의 국적을 더 이상 가지고 있지 않은 나라를 가리킴
<보기>해외 동포의 모국 방문
- **고국(故國)**-조상 때부터 살아왔고 자기가 태어났으나 현재는 살고 있지 않은 나라
<보기>고국을 떠나온 지 어언 3년이 되었다.

278.**좇다**-남의 말이나 의견 · 주장 따위를 따르거나 목표나 이상을 추구하다.
<보기>꿈을 좇는 젊은이
- **쫓다**- 사람이나 동물 따위를 일정한 장소에서 물러나게 하거나 어떤 것을 잡으려고 급히 뒤를 따르다.
<보기>거지를 문 밖으로 쫓다. 어머니를 쫓아 시장에 가다.

279.**주요(主要)**-'줏대가 됨', '골격이 됨'
<보기>물가 인상의 주요 원인
- **중요(重要)**- '매우 소중하고 요긴함'
<보기>참으로 중요한 일

280.**주전부리**-'주전'은 '때를 가리지 않고 군음식을 점잖지 않게 자꾸 먹다'를 의미하므로 '때를 가리지 않고 점잖지 않게 군음식을 자꾸 먹음을 뜻함
<보기>종일토록 주전부리만 하니 입맛이 없지.
- **군것질**-주로 사서 먹는, 끼니 외에 과일이나 과자 따위의 군음식

<보기>아이들이 하굣길에 군것질을 많이 한다.

281.**주검**-사람의 죽은 몸, 송장, 시체
<보기>전우의 주검을 수습하기 시작했다.
- **죽음**-사람이 목숨을 잃는 일이나 현상
<보기>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282.**줍다**-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다른 곳으로 치우거나 가지기 위한 행동
- **집다**-물건을 잡는 행동 자체를 일컬음

283.**즐겁다**-일이나 활동 자체가 주는 만족감 때문에 기분이 좋다.
- **기쁘다**-일이 바라는 쪽으로 이루어져 기분이 좋다

284.**지그시**-슬며시 힘을 주어 누르거나 밀거나 하는 모양
<보기>눈을 지그시 감다.
- **지긋이**- 나이가 들어 비교적 듬직하게
<보기>나이가 지긋이 들어 보인다.

285.**지금**-현재를 중심으로 하여 바로 전과 후
- **방금**-현재를 포함하지 않은 바로 직전
- **금방**-현재를 포함하지 않은 바로 직전과 직후

286.**진짜**-본뜨거나 위조하지 않은 참된 물건
<보기>진짜 권총
- **참**-꾸미거나 어긋나지 않은 사실이나 이치
<보기>그 말은 참이다.

287.**겉짐작**-겉으로만 헤아리는 짐작=겉어림
- **속짐작**-마음속으로는 하는 짐작
- **걸음짐작**-걸음으로 길이나 거리를 헤아리는 일
- **지레짐작**-미리 넘겨짚어 어림으로 헤아림

288.**집념(執念)**-목표가 분명히 정해져 잊지 아니하고 끈덕지게 마음을 The음
<보기>승리를 향한 집념
- **집착(執着)**-목표가 정해지이 않은 것에 관계하여 마음이 늘 쏠려서 잊지 못하고 매달림
<보기>재산에 대한 강한 집착

289.**참가(參加)**-여럿이 함께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성과를 얻으려 하는 어떤 모임이나 단체 또는 일에 일회적인 행사나 집회 또는 전쟁 등에 나아가 주어진 일을 하는 것
<보기>우리 학교도 이번 대회에 참가한다.
- **참석(參席)**-모임이나 회의에 일정한 자격이나 권한이 있는 사람이 단순히 그 자리에 있는 상태
<보기>결혼식에 하객으로 참석하다.
- **참여(參與)**-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공적인 일이나 사회적인 운동 등에 관여하여 그것에 도움을 주는 일
<보기>사회개혁 운동에 참여하다.

290.**채**-이미 있는 상태를 그대로 유지함

<보기>토끼를 산 채로 잡다.

-째-'그대로', '전부'

<보기>나무가 뿌리째 뽑히다.

체-그럴듯하게 꾸미는 거짓 태도

<보기>쥐꼬리만한 지식을 가지고 되게 아는 체하다.

291.칭송(稱頌)-여러 사람이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잘한 일이나 좋은 일에 대해 칭찬하여 일컬음

<보기>그는 훌륭한 청년이라고 마을에서 칭송이 자자했다.

칭찬(稱讚)-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좋은 점이나 착하고 훌륭한 일을 높이 평가함

<보기>선생님께서 아이들을 칭찬하셨다.

292.체험(體驗)-삶에 영향을 줄 만큼 특별하거나 중요한 일을 직접 몸으로 겪는 일

<보기>전쟁을 체험해 보지 못한 세대

경험(經驗)-특별하고 중요한 일을 물론이고 평범한 일을 겪는 것도 가리킬 수 있고, 몸으로 겪는 일을 물론이고 책이나 영화나 가르침 등을 통해 어떤 일을 접함

<보기>다양한 경험을 해야 지혜를 키울 수 있다.

293.심포지엄(symposim)-어떤 특정한 주제에 대하여 3~6명의 전문가가 미리 원고를 준비하여 강연식으로 발표하고, 이를 바탕으로 참석자와 청중이 질의 · 응답하는 방식

포럼디스커션(forum discussion)-사회자의 지도 아래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이 간략한 발표를 한 다음, 청중이 그에 대해 질문하면서 토의를 전개하는 방법

패널디스커션(panel discussion)-특정한 문제를 해결하거나 해명하기 위해 이에 대해 관심이나 정보 · 경험 등을 가진 몇 사람을 선출하여, 청중 앞에서 의견을 발표하고 함께 생각하는 공동토의

원탁회의-사회자나 참여하는 청중 없이 10명 안팎의 참가자들이 원탁에 둘러앉아 동등한 처지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방법

294.타산지석(他山之石)-남의 잘못되거나 하찮은 점을 보고 교훈을 얻는 것

<보기>다른 사람의 실수나 그릇된 행동을 헐뜯지만 말고 타산지석으로 삼을 줄 알아야 한다.

귀감(龜鑑)-남의 훌륭한 점을 보고 교훈을 얻는 것

<보기>그의 효행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다.

295.토(吐)하다-먹은 음식이나 식도 · 기도 등을 통해 입 밖으로 왈칵 쏟아 내는 것

<보기>멀미나 나 먹은 것을 토하다.

게우다-약한 힘으로 먹은 것이 넘어와 입안에 그득해지거나 입 밖으로 흘리는 것

<보기>아이가 젖을 게우다.

296.특색(特色)-(비교의 대상과)특별히 다른 점 또는 뛰어난 점

<보기>특색 있는 목소리로 인기를 끌고 있는 가수

특장(特長)-(사용하거나 이용하기에)특별히 이로운 점

<보기>지프의 특장은 험한 길을 거침없이 달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징(特徵)-(다른 것과 쉽게 구별할 수 있는)특별히 눈에 띄는 좋은 점이나 나쁜 점

<보기>마마의 가장 큰 특징은 고열(高熱)과 발진(發疹)이다.

297.**판단(判斷)**-마음속으로 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림
<보기>판단 기준을 세우다.
- **판별(判別)**-구별된 사물의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낫고 못함 등을 판단하여 구별함
<보기>가자인지 진짜인지 판별하다.
- **판정(判定)**-둘 중의 하나를 옳고 그름, 좋고 나쁨, 낫고 못함 등을 판단하여 결정함
<보기>심판이 아웃이라고 판정했다.

298.**포격(砲擊)**-대포에 의한 공격
<보기>적에게 포격을 가하다.
- **폭격(爆擊)**-비행기에서 폭탄을 떨어뜨려 적의 전력(戰力)이나 국토를 파괴하는 일
<보기>적진을 폭격하다.

299.**폭발(爆發)**-자연적으로 또는 실수 따위로 불이 일어나며 갑작스럽게 터짐
<보기>주유소가 폭발하다.
- **폭파(爆破)**-의도적으로 어떠한 것을 폭발하게 하여 부수어 버림
<보기>적의 공격으로 학교가 폭파되었다.

300.**평안(平安)하다**-마음이 평화롭고 호수처럼 잔잔하다
<보기>신앙생활을 통해 마음의 평안을 얻다.
- **편안(便安)하다**-몸이 힘들거나 불편하거나 괴롭지 않아 좋다.
<보기>시험을 끝마치니 마음과 몸이 편안하다.

301.**폐해(弊害)**-폐단으로 생기는 손해
<보기>관료주의의 폐해
- **피해(被害)**-(재산 · 명예 · 신체 따위에) 손해를 입음
<보기>대풍의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302.**하얗다**-물체의 표면에 깨끗한 눈이나 밀가루의 빛깔과 같이 매우 맑고 선명하다.
<보기>눈이 밤새 하얗게 쌓였다.
- **희다**-눈이나 우유의 빛깔이 '하얗다'에 비해 빛깔의 선명도가 비교적 낮다.
<보기>그 여자는 얼굴이 희다.

303.**한계(限界)**-정해진, 어떤 범위 이상은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 쓰임
<보기>인간의 능력엔 한계가 있다.
- **한도(限度)**-정해진, 어떤 범위 이상은 넘어설 수 없다고 보는 경우에 쓰임
<보기>만 원 한도 내에서 써라.

304.**한번**-어떤 일을 시험 삼아 함을 나타내거나 미래 또는 과거의 어느 때를 나타내거나, 강조의 뜻을 나타냄
<보기>한번 먹어 봐.
- **한 번**-수 관형사 '한'과 차례나 횟수를 나타내는 '번(番)'의 결합으로 단순히 '1회'의 뜻을 나타냄
<보기>그녀는 운전면허를 한 번에 합격했다.

305.**한참**-시간이 상당히 지나는 동안. '두 역참(驛站)을 지나는 동안'
<보기>길을 따라 한참 걷다.
- **한창**-어떤 일이 가장 활기 있고 왕성하게 일어난 때

<보기>한창 봄빌 시간인데도 식당에는 손님이 별로 없다.

306.**혼동(混同)**-사물의 모양이나 성질이 비슷하여 이것과 저것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고 착각을 일으킴

<보기>이름이 비슷해 혼동하기 쉽다.

혼돈(混沌)-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능력을 가지지 못하여 어떻게 된 것인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지 갈피를 잡지 못함

<보기>가치관이 혼돈되어 있는 사회

혼돈(混沌)-갈피를 잡을 수 없게 뒤죽박죽이 되어 어지럽고 질서가 없음

<보기>정치적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307.**환자(患者)**-다치거나 병이 나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사람

병자(病者)-병을 비교적 오래 앓고 있는 사람

308.**홀몸**-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 단신

<보기>홀몸인 그는 명절이 쓸쓸할 뿐이었다.

홑몸-아이를 배지 않은 상태의 몸

<보기>홑몸도 아닌데 조심하렴.

309.**흐트러지다**-가지런하거나 일정하게 질서가 잡혀 있는 대상을 전제로 일정한 방향 없이 이리저리 무질서하게 되다.

<보기>술기운 탓인지 자세가 자꾸 흐트러진다.

흩어지다-본래 하나의 덩어리 또는 전체를 이루던 개개의 사람이나 물체가 따로 떨어져 낱낱의 상태가 되다.

<보기>모였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다.

2.고유어

▶**가년스럽다**-보기에 가난하고 어려운 데가 있다.

<보기>썰렁하게 드러난 두 귀가 여윈 당나귀 같이 가년스러웠다.

▶**가래다**-맞서서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기>그 사람 성정이 너무 우악스러워 우리도 잘 가래지 못하오.

▶**가무리다**-남몰래 혼자 차지하거나 흔적도 없이 먹어버리다.

<보기>붕어 한 마리가 물 위에 든 먹이를 납작 가무렸다.

▶**가뭇없다**-보이던 것이 전연 보이지 않아, 찾을 곳이 감감하다.

<보기>가뭇없는 집터에서 수난녀는 눈물을 잤다.

▶**가분가분**-말이나 행동 따위가 매우 가벼운 모양

<보기>마치 전설 속의 공주의 걸음걸이와도 같이 가분가분 걸어왔다.

▶**가쁘게**-숨이 몹시 차게. 힘에 겹게

<보기>숨이 가쁘게 뜀박질을 했다.

▶**가(이)없다**-끝이 없다.

<보기>가없는 부모님의 은혜

▶**가위에 눌리다**-무서운 꿈을 꾸어 옴쭉도 못 하고 답답함을 느끼다. 가위-꿈속에 나타는

무서운 것
<보기>그녀는 가위에 눌린 듯 괴로운 표정을 지었다.
▶**가탈**-억지로 이런저런 트집을 잡아 까다롭게 구는 일
<보기>가탈을 부려 집사람이 매우 힘들겠다.
▶**갈마들다**-서로 번갈아 들다.
<보기>기쁨과 슬픔이 갈마다는 인생
▶**갈무리**-물건 따위를 잘 정리하고 간수함. 일을 마무리함
<보기>일이란 시작도 중요하지만 갈무리를 잘해야 한다.
▶**갈음하다**-무엇을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다.
<보기>간단하나마 이것으로 인사말을 갈음할까 합니다.
▶**감돌다**-어떤 주위를 여러 번 빙빙 돌다. 생각 따위가 눈앞이나 마음속에 아른거리다.
<보기>옛 생각이 머릿속에 감돌았다.
▶**감때사납다**-매우 험상궂고 사납다.
<보기>그 사나이가 감때사납게 눈을 부라렸다.
▶**감질나다**-몹시 먹고 싶거나 가지고 싶거나 하고 싶어서 애타는 마음이 생기다.
<보기>수돗물이 찔끔찔끔 감질나게 나온다.
▶**감치다**-잊히지 않고 항상 마음에 감돌다.
<보기>누님처럼 감쳐 오는 그녀!
▶**감칠맛**-음식을 먹은 뒤까지도 혀에 감기듯이 남는 맛깔스러운 뒷맛
<보기>MR 집 냉면은 구수하고 감칠맛이 있다.
▶**개숫물**-설거지할 때 그릇을 씻는 물
<보기>개숫물도 허투루 버리지 말아야 한다.
▶**개차반**-개나 먹을 음식, 즉 똥. 행실이 형편없는 사람을 욕하여 이르는 말 차반-맛있게 차린 음식 개차반-개나 먹을 음식
<보기>평소 얌전한 주씨는 술만 들어갔다 하면 행실이 개차반이다.
▶**객쩍다**-행동이나 말이 쓸데없고 실없다.
<보기>객쩍은 소리 그만둡시다.
▶**갸웃하다**-무엇을 이상하게 여기며 머리나 몸을 한쪽으로 비스듬히 기울이다.
<보기>고개를 갸웃하고 묻자 얼른 두 손으로 입을 막았다.
▶**거나하다**-술이 어지간히 취한 상태에 있다.
<보기>술이 거나하게 취하다.
▶**거추없다**-하는 짓이 어울리지 않고 싱겁다.
<보기>동준이는 실없이 울타리 너머를 실없이 기웃거렸으나 매양 그러기도 거추없어 돌아서고 말았다.
▶**겉늙다**-나이보다 더 늙은 티가 나다.
<보기>살림에 무관심한 나태한 생활은 그를 겉늙게 했다.
▶**게걸스럽다**-남의 눈치를 보지 않고 마구 욕심껏 먹는 듯하다.
<보기>배가 고픈지 음식을 게걸스럽게 먹어치웠다.
▶**겸연쩍다**-쑥스럽거나 미안하여 부끄럽다.
<보기>그는 무의식중에 자신이 실언한 것을 깨닫고 겸연쩍게 웃었다.
▶**곁고틀다**-지지 않으려고 버티어 겨루다.

<보기>우승을 놓고 두 팀이 겯고트는 모습이 인상적이다.

▶**결기**-참지 못하고 성을 내거나 왈칵 행동하는 성미

<보기>그 말을 듣자 그는 왈칵 결기가 났다.

▶**결딴나다**-일 물건 등이 망가져서 도무지 쓸 수 없는 상태가 되다. 살림이 망하거나 거덜나다.

<보기>밭농사는 때 맞춰 비가 안 오면 결딴난다.

▶**고갱이**-초목의 줄기 한가운데의 연한 심. 사물의 핵심

<보기>한 민족의 문화와 정신을 이해하는 고갱이는 말(言)이다.

▶**고대**-이제 막, 바로 곧

<보기>고대 있어야 할 물건이 없어졌다.

▶**고명딸**-아들이 많은 집의 외동딸 고명-음식의 맛과 모양을 내기 위해 다 된 음식 위에 덧 얻는 양념, 고명딸이란 아들만 있는 집에 고명 역할을 하는 귀여운 외딸을 이름

<보기>그녀는 고명딸로 태어나 오빠들의 사랑을 독차지했다.

▶**고즈넉하다**-어느 곳이 잠잠하고 호젓하다. 사람의 태도가 말없이 다소곳하다.

<보기>고즈넉하게 앉아 깊은 사념에 잠겨 있는 여인

▶**곤죽**-밥이나 땅 따위가 물기가 많아 아주 질게 된 상태

<보기>비가 와서 길이 곤죽이 되었다.

▶**곧추**-굽히거나 구부리지 않고 곧게

<보기>허리를 곧추 펴야 건강에 좋다.

▶**골막하다**-담긴 것이 가득 차지 아니하고 조금 모자란 듯하다.

<보기>주인 여편네는 부엌으로 내려가서 골막하게 담긴 시아주비의 밥사발을 들었다.

▶**곰곰**-여러모로 깊이 생각하는 모습

<보기>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곰곰 생각해 보아라.

▶**곰살궂다**-성질이 부드럽고 다정하다.

<보기>저 곰살궂은 양반이 무슨 일로 화가 머리끝까지 났을까?

▶**곰비임비**-일을 자꾸 계속하는 모양

<보기>걸음을 재촉하여 곰비임비 쉬지 않고 달려갔다.

▶**곱살스럽다**-얼굴이나 성미 따위가 얌전하고 고와 보인다.=곱살하다.

<보기>그녀의 목소리는 곱살스러웠다.

▶**곱씹다**-거듭하여 씹거나 생각을 되풀이하다.

<보기>그가 한 말을 아무리 곱씹어 보아도 그 진의를 알 수 없다.

▶**괄괄하다**-성격이 드세고 급하다.

<보기>그는 성미가 괄괄하고 입심이 좋다.

▶**구레나룻**-양 귀밑에서 턱 부근까지 난 수염

<보기>구레나룻이 참 인상적이다.

▶**구순하다**-서로 사귀거나 지내는 데 사이가 좋아 화목하다.

<보기>새사람이 들어와서 구순해진 집안에 평지풍파를 일으키지 말게.

▶**굼뜨다**-동작이 몹시 느리다.

<보기>동작이 그리 굼떠서야 어찌 일을 같이 할꼬?

▶**궁싯거리다**-잠이 오지 않아 누워서 이리저리 몸을 뒤척이다. 어떻게 할 바를 몰라 이리저리 머뭇거리다.

<보기>낮잠 탓에 밤새 궁싯거리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길라잡이**-앞에서 길을 이끄는 사람이나 사물=길잡이 앞으로의 방향과 지침을 비유하는 말

<보기>험한 산을 등산할 때는 길라잡이의 역할이 중요하다.

▶**길래**-오래도록 길게

<보기>계양상게 가서 길래 계실 터인가요?

▶**깜냥**-일을 해 낼만한 능력

<보기>제 깜냥엔 했다고 하지만 어림없지.

▶**껄끄럽다**-꺼칠한 느낌이 있다. 원만치 못해 거북한 데가 있다.

<보기>왠지 그와는 껄끄러운 데가 있다.

▶**끄르다**-묶은 것이나 맨 것을 열다. 잠긴 것을 열다.

<보기>혁대를 끌러야 아랫도리를 벗을 수 있지.

▶**끌밋하다**-모양이나 차림새 따위가 매우 깨끗하고 훤칠하다.

<보기>열네 살의 털북숭이 소녀가 이제는 스물두 살의 끌밋한 처녀가 돼 있었다.

▶**끌탕**-속을 태우는 걱정

<보기>딸의 눈치만 보고 끌탕을 하다가 딸이 마음을 고쳐먹자 날듯이 기뻤다.

▶**나부대다**-가만히 있지 못하고 철없이 촐랑거리다.

<보기>나부대지 말고 가만히 좀 있어.

▶**나부끼다**-가벼운 바람을 받아 가볍게 흔들리다.

<보기>지금 우리 선수들이 태극기를 나부끼며 경기장에 입장하고 있습니다.

▶**나비잠**-갓난아이가 두 팔을 머리 위로 벌리고 편히 자는 잠

<보기>팔을 어깨 위로 쳐들고 나비잠을 자던 갓난아이는 울기 시작했다.

▶**낫잡다**-금액 · 나이 · 수효 따위를 계산할 때 조금 넉넉하게 세다.

<보기>상황이 어떨지 모르니 여비는 낫잡아 마련해라.

▶**남세스럽다**-남에게 조롱과 비웃음을 받을 만한 데가 있다. 남우세스럽다.

<보기>다 큰 처녀가 남세스럽게 배꼽은 왜 내놓고 다니느냐?

▶**내로라 하다**-'바로 나로다' 하고 자신하다.

<보기>내로라 하는 장사들이 모래판에서 힘을 겨루었다.

▶**내박치다**-힘껏 집어 던지다.

<보기>수저를 내박치듯 놓으면서 연유를 따져 물었다.

▶**내처**-내친 김에 잇달아 끝까지

<보기>일을 시작한 김에 내처 끝내 버려라.

▶**너나들이**-서로 너니 나니 하고 부르며 허물없이 말을 건넴.

<보기>익삼 씨는 지서장하고 너나들이로 지내는 처지임을 은근히 과시했다.

▶**너스레**-수다스럽게 떠벌려 늘어놓은 말이나 짓

<보기>그 여자는 앉았다 하면 너스레를 늘어놓곤 한다.

▶**넋두리**-무당이 죽은 사람의 넋을 대신하여 하는 말. 불평이나 불만을 길게 늘어놓아 하소연하는 말

<보기>그녀는 힘들었던 시절의 얘기를 꺼내어 넋두리를 늘어놓곤 한다.

▶**넌덜머리**-어떤 일이나 대상에 물리거나 질려 몹시 싫어하거나 지긋지긋하게 여기는 상태 =넌더리

<보기>이제 그 일에는 넌더리가 난다.

▶**널브러지다**-물건들이 여기저기 어지럽게 놓이다. 사람들이 지치거나 정신을 잃거나 죽거나 하여 여기저기 쓰러진 상태가 되다.

<보기>책 나부랭이가 방 안에 널브러져 있다.

▶**노상**-한 모양으로 늘

<보기>그건 그가 입버릇처럼 하는 이야기다.

▶**뇌까리다**-어떤 말을 혼잣말로 나직하게 말하다.

<보기>그는 속으로 뇌까리면서 울컥 화가 났다.

▶**눈썰미**-한두 번 정도만 보고 바로 따라하거나 기억해 내는 재주

<보기>우리 누나는 눈썰미가 좋아서 무슨 일이든 금방 배운다.

▶**눈엣가시**-꼴도 보기 싫을 정도로 몹시 미워 눈에 거슬리는 사람

<보기>사사건건 꼬투리를 잡는 직장 상사가 눈엣가시 같았다.

▶**눈꼴시다**-하는 짓이 비위에 거슬려 보기에 아니꼽다.

<보기>그 애 하는 짓이 눈꼴시어 못 봐주겠다.

▶**늑장**-느릿느릿 구물거니는 짓=늦장

<보기>빨리 나오지 않고 왜 이리 늑장을 부리느냐?

▶**는개**-안개보다는 조금 굵고 이슬비보다는 가는 비.

<보기>골짜기마다 는개가 수액처럼 피어올랐다.

▶**늘쩡거리다**-느른한 태도로 쉬엄쉬엄 느리게 행동하다.

<보기>누가 있다고 그렇게 늘쩡거려, 일찍 좀 올라오지 않고서.

▶**능갈치다**-사람을 대하거나 다루는 재주가 교활하거나 엉큼하면서 능란하다.

<보기>주인이 짐짓 놀라는 척하며 능갈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늦깎이**-나이 들어서 승려가 된 사람. 어떤 분야에 남보다 늦게 들어선 사람

<보기>이 선생은 이 분야에 늦깎이지만 지금은 권위자가 되었다.

▶**늦추**-때가 좀 늦게. 켕기지 않고 느슨하게

<보기>출발 시각을 늦추 잡다.

▶**니글거리다**-소화가 잘 안 되어 속이 메스껍고 토할 듯하다.

<보기>음식을 보니 속이 니글거린다.

▶**다잡다**-무엇을 단단히 잡다. 엄하게 단속하거나 통제하다. 들뜨거나 어지러운 마음을 가라앉혀 바로잡다.

<보기>감독은 일꾼들을 다잡아 일을 시켰다.

▶**단출하다**-식구가 적거나 옷차림이 간편하다.

<보기>내일은 야외 단합대회 가는 날이니, 단출하게 간편한 사복을 입고 오너라.

▶**달포**-한 달이 약간 넘는 기간

<보기>감기 걸린 지 달포가 넘었다.

▶**당달봉사**-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하나, 실상은 보지 못하는 눈(사람)=청맹과니

<보기>당달봉사인 그가 박사 학위를 받았다.

▶**당차다**-사람이 나이나 몸집에 비하여 마음가짐이나 하는 말이나 행동이 야무지다.

<보기>아직 어린 녀석이 당찬 구석이 있단 말이야.

▶**더부살이**-남에게 얹혀사는 것. 남의 집에 묵으며 일을 해 주고 삯을 받는 일

<보기>친구 집에서 더부살이를 하며 한 삼 년 지냈다.

▶**더위잡다**-높은 데 오르려고 무엇을 움켜잡다.
<보기>굵은 나무뿌리를 더위잡고 절벽을 오르다.
▶**더치다**-나아가던 병세가 다시 더해지다.
<보기>찬 바람을 쐬어 감기가 더쳤다.
▶**덤터기**-억울한 누명이나 터무니없는 곤경이나 공연한 걱정거리
<보기>약빠른 업자는 상대에게 덤터기를 씌우고 종적을 감추었다.
▶**덧물**-강이나 호수 따위의 얼음 위에 괸 물.
<보기>덧물이 흘렀다가 언층이 발 닿는 곳마다 부적부적 소릴 냈다.
▶**데데하다**-시시하여 보잘것없다.
<보기>그렇게 데데한 사람을 어디다 써먹어.
▶**데면데면하다**-대하는 태도가 친밀성이 없고 사무적이거나 무뚝뚝하다.
<보기>그는 나와 다툰 뒤로 데면데면하게 군다.
▶**데퉁스럽다**-말이나 행동이 매우 조심성이 없고 미련하고 거친 데가 있다.
<보기>한 마디 데퉁스럽게 쏘아붙이다.
▶**도가니**-쇠붙이를 녹이는 그릇. 강한 감격이나 흥분 등으로 열광적으로 들끓는 상태. 무릎도가니(소의 무릎의 종지뼈와 거기에 붙은 고깃덩어리)의 준말
<보기>관중석을 흥분의 도가니가 되었다.
▶**도두보다**-실제보다 좋게 보다=돋보다.
<보기>제 것이면 도두보고 남 것이면 깔보는 것이 인간의 숙명적인 성격인가 보다.
▶**되뇌다**-같은 말을 혼잣말로 여러 번 되풀이하여 말하다.
<보기>같은 말을 몇 번이고 되뇌어 보았다.
▶**도리머리**-머리를 좌우로 흔들어 싫다거나 아니라는 것을 표시하는 것
<보기>나는 그가 말하는 것을 도리머리를 흔들며 철저하게 부인했다.
▶**되바라지다**-하는 짓이 너그럽지 못하고 모가 나서 얄밉다.
<보기>그 되바라진 놈이 나를 공처가라고 놀렸데.
▶**되우**-아주 몹시
<보기>누나는 이 말에 되우 놀라며 눈을 말똥말똥 떴다.
▶**될성부르다**-잘될 가망이 있다.
<보기>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속담은 크게 될 사람은 어릴 적부터 다르다는 뜻이다.
▶**두름**-조기 따위의 물고기를 짚으로 한 줄에 열 머리씩 두 줄로 엮는 것.
<보기>웅보는 사재발쑥 두름을 겹겹이 매달아 놓은 은행나무 밑을 지났다.
▶**뒷심**-남이 뒤에서 도와주는 힘, 끝판에 가서 회복하는 힘
<보기>그 천하장사는 뒷심이 좋다.
▶**드팀전**-온갖 피륙(필로 된 베 · 무명 · 비단 따위)을 파는 가게
<보기>드팀전의 허 생원은 장돌뱅이다.
▶**득달같다**-잠시도 지체하지 않다. 득달(得達)-목적한 곳에 도달함
<보기>사또의 명을 받은 포졸들은 득달같이 달려가 춘향을 잡아왔다.
▶**든적스럽다**-행동이 치사하고 더러운 데가 있다.
<보기>두 어른께서 날 홀대하고 수치스럽고 든적스럽게 여기신다 한들 딴 도리가 없습니다.

▶**들레다**-야단스럽게 떠들다.
<보기>대포 터지는 소리와 군사들의 들레는 소리는 평양성이 개벽되는 듯했다.
▶**들쓰다**-이불 · 외투 따위를 위에서 아래까지 덮어쓰다. 물 · 먼지 따위를 온몸에 받다.
<보기>이불을 머리까지 들쓰고 누워 있었다.
▶**등걸잠**-옷을 입은 채 아무것도 덮지 아니하고 아무 데나 쓰러져 자는 잠
<보기>등걸잠에 익숙한 그들은 천연스럽게 나란히 누워 밤비 오는 소리를 듣고 있었다.
▶**뜨악하다**-꺼림칙하거나 싫거나 언짢거나 하여 마음이 선뜻 내키지 않다.
<보기>옳지 못한 행동이라 생각하니 마음에 뜨악하다.
▶**뜬금없다**-갑작스럽고 엉뚱하다.
<보기>뜬금없이 여행을 가자는 말에 적이 당황했다.
▶**띠앗**-형제나 자매 사이의 우애심
<보기>다음의 일천 년간은 일문끼리 띠앗이 사납다가는 배기지 못할 터이니,
▶**마뜩하다**-제법 마음에 들다.
<보기>마뜩하지 않게 생각하다.
▶**마름질하다**-옷감이나 재목 등을 치수에 맞추어 베거나 자르다.
<보기>이번에는 저고리를 마름질해 봐.
▶**마무르다**-일의 끝을 맺거나 물건의 가장자리를 꾸며서 일을 끝맺다.
<보기>겨울이 오기 전에 마물러야 할 일이 많이 있다.
▶**마파람**-남풍(南風)을 일컫는, 뱃사람들의 은어
<보기>마파람에 게눈 감추듯이란 언제 먹었는지 모를 만큼 음식을 빨리 먹어 버리는 것을 의미한다.
▶**말곁(을) 달다**-남이 말하는 옆에서 덩달아 참견하다.
<보기>어른들 말씀 나누시는데 버릇없이 말곁을 달지 마라.
▶**말미**-일에 매인 사람이 다른 일로 말미암아 얻는 겨를이나 여유
<보기>계획했던 이사를 하기 위해 이틀의 말미를 얻었다.
▶**매몰차다**-인정 없이 몹시 차갑고 쌀쌀맞게 대하다.
<보기>매몰찬 목소리로 일언지하에 퇴짜를 놓았다.
▶**맵시**-어떤 대상의 멋스러운 모양
<보기>그녀는 맵시 있게 옷을 입는다.
▶**맹랑하다**-하는 짓이 깜찍하고 당돌하다.
<보기>나이도 어린 녀석이 아주 맹랑하구나.
▶**머쓱하다**-어울리지 않게 키가 크다. 무안을 당하거나 흥이 꺾여 어색하고 부끄럽다.
<보기>그는 머쓱하여 머리를 긁적였다.
▶**먹거지**-여러 사람이 모여서 벌이는 잔치
<보기>금성의 사랑에는 거의 밤마다 먹거지가 벌어졌다.
▶**멋쩍다**-하는 짓이나 모양이 어울리지 않거나 어색하고 쑥스럽다.
<보기>잘한 일도 없이 칭찬을 들어 멋쩍었다.
▶**몽니**-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할 때 권리를 주장하기 위하여 심술을 부리는 성질
<보기>더 이상 몽니를 부렸다가는 양쪽에 서 주먹이 날아와 면상이 날아갈 것 같았다.
▶**무녀리**-한 태의 새끼 중맨 먼저 나온 새끼 ◀비로소 문을 열고 나왔다는 뜻의 '문(門)+ 열 + 이'가 변한 말로, 말이나 행동이 좀 모자란 듯이 보이는 사람을 비유적으로 이름

<보기>그런 행동을 스스럼없이 하니 무녀리 축에 속하지!

▶**무람없다**-예의를 지키지 않아 버릇없다.

<보기>어른에게 무람없이 굴다.

▶**무릇**-대체로 헤아려 생각건대

<보기>무릇 노력 없이 성공한 사람 없다.

▶**무서리**-늦가을에 처음 내리는 묽은 서리

<보기>예년보다 일찍 무서리가 내렸다.

▶**무지르다**-길이가 있는 물건을 한 부분을 잘라 버리다.

<보기>바깥주인이 안주인의 말 나오는 것을 무질러 핀잔을 주었다.

▶**물색없다**-말이나 하는 짓이 형편에 어울리지 않다.

<보기>주위 사람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물색없이 제 자랑을 늘어놓고 있다.

▶**미덥다**-믿음성이 있다.

<보기>내 말이 미덥지 않거든 직접 확인해 보세요.

▶**미욱하다**-됨됨이가 어리석고 미련하다.

<보기>선생님, 미욱한 제 아들놈을 잘 부탁합니다.

▶**미주알고주알**-아주 소소한 일까지 속속들이 캐어묻는 모양 ㄴ미주알-똥구멍에 이르는 창자의 끝부분

<보기>그녀는 나의 일상사를 미주알고주알 캐어물었다.

▶**미투리**-삼이나 노 따위로 짚ㄹ신처럼 삼은 신으로 흔히 날을 여섯 개로 한다.

<보기>얼마를 돌아다녔는지 미투리 앞 부리가 수세미가 되었다.

▶**민값**-물건을 받기 전에 먼저 주는 물건 값

<보기>왜 민값부터 지르라고 으르딱딱거리냐?

▶**밉살스럽다**-언행이 남에게 미움을 살 만한 데가 있다.

<보기>놈은 언제나 제 욕심만 차려서 밉살스럽다.

▶**바루다**-비뚤어지지 않도록 바르게 하다.

<보기>잘못된 것을 바루었다.

▶**바야흐로**-이제 한창, 이제 막. 어떤 현상이 말하는 시점을 시작으로 하여 미래에 걸쳐 이루어져 감을 나타내는 말

<보기>바야흐로 녹음이 우거지고 있다.

▶**바지랑대**-빨랫줄을 받치는 장대

<보기>아낙은 마당 가운데 빨랫줄을 받치고 서 있는 바지랑대를 잡고 목청을 돋운다.

▶**바투**-두 물체 사이가 석 가깝게. 길이가 아주 짧게

<보기>좀 더 바투 앉아라.

▶**바특하다**-음식의 국물이 적어 묽지 아니하다.

<보기>국이 바특이 끓었다.

▶**발자하다**-성미가 급하여 참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보기>발자하게 날뛰면 될 일도 안 된다.

▶**버겁다**-어떤 일이나 대상이 어떤 사람에게 해내거나 다루기에 능력이 모자라거나 힘이 부치는 상태에 있다.

<보기>워낙 큰 사업이라 제 능력으로는 버겁습니다.

▶**버금가다**-서열이나 차례에서 첫째의 다음이 되다.

<보기>이 작품은 독창성이 뛰어나다는 점에서 당선작에 버금갑니다.

▶**버르집다**-물체를 헤집거나 흐트러뜨려 벌리거나 어수선하게 하다. 감추어진 일을 들추어 문제가 되게 하다.

<보기>친구의 허물을 공연히 버르집었다.

▶**벋나다**-끝이 바깥쪽으로 벋게 나다. 못된 길로 나아가다.

<보기>기성세대는 청소년들이 벋나지 않도록 이끌어야 할 책무가 있다.

▶**벼르다**-어떤 일을 이루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회를 기다리거나 마음을 굳게 하다.

<보기>그 사람이 널 만나면 혼내 주겠다고 잔득 벼르고 있다.

▶**벼리다**-연장의 무딘 날을 불에 달궈 두드려 날카롭게 하다.

<보기>부엌의 칼을 벼려야겠어요.

▶**벽창호**-고집이 세며 완고하고 우둔하여 말이 도무지 통하지 아니하는 사람

<보기>낸들 벽창호가 아닌 담에야 그만 생각이 없겠나?

▶**본데없다**-가정이나 주변에서 보고 배운 것이 없어 예절이 없다.

<보기>그는 본데없이 자라서 예의범절이 없다.

▶**볼모**-어떤 일을 자기에게 유리하게 흥정하기 위하여 상대방 쪽의 사람을 자기 쪽에서 감금하는 일=인질(人質)

<보기>두 사내가 볼모로 붙잡혔다.

▶**볼멘소리**-불만스럽거나 성이 나서 퉁명스럽게 말하는 소리

<보기>그는 항상 볼멘소리로 투덜거린다.

▶**볼썽사납다**-어떤 태도나 행동이 보기에 역겹거나 언짢다.

<보기>길거리에서 추태를 부리며 볼썽사납게 굴다.

▶**부루퉁하다**-못마땅하여 성난 빛이 얼굴에 나타나 있다.

<보기>담임교사에게 야단을 맞았는지 부루퉁해 있다.

▶**부질없다**-대수롭지 않거나 공연하여 쓸모가 없다.

<보기>닭이 먼저냐, 달rif이 먼저 하는 논쟁은 부질없는 일일 뿐이다.

▶**불거지다**-두드러지게 커지거나 갑자기 생기다.

<보기>이마에 혹이 불거지더니 고열이 나기 시작했다.

▶**불티나다**-물건 팔리는 것이 매우 빠르고 활달하게 이루어지다.

<보기>날씨가 추워지자 난방용품이 불티나게 잘 팔린다.

▶**비아냥거리다**-얄밉게 빈정거리다.

<보기>그는 나만 보면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한다.

▶**사근사근하다**-성격이 붙임성이 있고 상냥하며 친절하다.

<보기>그녀는 사근사근하여 누구에게나 좋은 인상을 준다.

▶**사금파리**-사기그릇의 깨어진 작은 조각

<보기>아이들은 땅바닥에 주저앉아 사금파리로 동그라미를 그렸다.

▶**사무치다**-감정이나 생각이 속까지 깊이 느껴지다.

<보기>뼈에 사무치는 원한

▶**사뭇**-심하게 끝까지, 줄곧 한결같이, 마음에 사무치도록

<보기>두려움에 사로잡혀 그의 온몸이 사뭇 떨리고 있다.

▶**사분사분하다**-마음씨가 좋다. 상냥하다.

<보기>사분사분한 성격은 어디서나 환영받는다.

▶**사위다**-불이 사그라져서 재가 되다.
<보기>마당에는 모닥불이 아직 사위지 않아 불기운이 흰 연기를 뿜고 있었다.
▶**사재기**-물건값이 오르기 전에 사서 재놓는 행동=매점(買占)
<보기>유사시에 라면, 밀가루, 설탕 따위가 주된 사재기 품목이다.
▶**살갑다**-집이나 세간 등이 보기보다는 속이 너르거나 마음이 상냥하고 부드럽다.
<보기>그는 살갑고 다정한 성격을 지녔다.
▶**살포시**-아주 가볍고 포근하게. 살며시
<보기>나비가 살포시 날개를 접었다.
▶**살풍경**-아무 볼품이 없이 삭막하고 쓸쓸한 풍경
<보기>으레 살풍경해야 할 무덤이 꽃으로 해서 유난히 따스해 보였다.
▶**살핏하다**-짜거나 엮은 것이 다소 거칠고 성기다.
<보기>모시는 면보다 살핏하다.
▶**삼삼하다**-잊히지 않고 눈에 어리다.
<보기>고향에 계신 부모님 얼굴이 눈에 삼삼하다.
▶**상큼하다**-맛이나 냄새가 향기롭고 시원하다. 보기에 시원하다.
<보기>모시옷을 잘 다려 입으면 상큼해서 좋다.
▶**새삼스럽다**-이미 겪은 일인데도 새로운 데가 있다.
<보기>부모님의 사랑을 새삼 느끼다.
▶**새큼하다**-맛깔스러우면서도 조금 신맛이 있다.
<보기>아직 채 익지 않은 새큼한 사과 맛이 입 안에 감돌았다.
▶**샌님**-얌전하고 소심하며 융통성이 없는 남자 샌님-'생원(生員)님'의 준말로 양반 집안의 남자 어른을 높여 이르는 말
<보기>그녀는 선본 남자가 나약하고 앞뒤 꽉 막힌 샌님이라서 싫다고 했다.
▶**샐빛**-날이 샐 무렵의 빛
<보기>기차 바퀴의 구르는 대로 퍼져 나가는 샐빛.
▶**생때같다**-통 병이 없을 정도로 몸이 튼튼하고 건강하다.
<보기>생때같던 사람이 하룻밤 사이에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 버렸다.
▶**생뚱맞다**-말이나 행동이 상황에 맞지 않고 엉뚱한 데가 있다.
<보기>맞선 보는 자리에서 일부러 생뚱맞은 얘기를 해서 분위기를 깼다.
▶**서릿발**-겨울철에 땅 속의 수분이 얼어 성에처럼 되어서 기둥 모양으로 뻗어 있는 것
<보기>매우 매섭고 준엄한 것을 서릿발 같다고 한다.
▶**서슴없다**-말이나 행동에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다.
<보기>아버지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그는 육사에 입학하겠다고 서슴없이 말했다.
▶**선머슴**-차분하지 못하고 몹시 덜렁거리는 사내아이
<보기>계집애가 마치 선머슴처럼 군다.
▶**선선하다**-태도가 시원하고 쾌활하다. 약간 서늘한 느낌이 있다.
<보기>그는 내 제안을 선선하게 받아들였다.
▶**선웃음**-우습지도 않으면서 꾸며서 웃는 웃음
<보기>이제는 선웃음까지 지어가며 상대의 장단을 맞추었다.
▶**선잠**-깊이 들지 못하고 살짝 드는 잠
<보기>아이가 선잠을 깨서 울고 있다.

▶**섣달**-한 해의 마지막 달을 음력으로 이르는 말
<보기>섣달그믐이 지나면 음력으로 새해가 시작된다.
▶**섣부르다**-솜씨가 설고 어설프다.
<보기>섣부르게 행동하지 말고 명령을 기다려라.
▶**설레발**-몹시 서두르며 부산하게 구는 행동
<보기>과천댁은 본래 수다스러운 성격인 듯 친구 손을 잡고 설레발이 요란했다.
▶**섬돌**-오르내릴 수 있도록 만든 돌층계
<보기>섬돌에 놓인 흰 고무신이 정겹게 보인다.
▶**섬뜩하다**-소름이 끼칠 만큼 무섭고 끔찍하다.
<보기>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 가슴이 섬뜩하다.
▶**소나기밥**-보통 때에는 얼마 먹지 아나하다가 갑자기 많이 먹는 밥
<보기>소나기밥을 자주 먹으면 위장은 엉망이 된다.
▶**소담스럽다**-생김새가 탐스럽거나 음식이 넉넉하여 보기에도 먹음직하다.
<보기>올해도 울밑에는 국화가 소담스럽게 피었다.
▶**성엣장**-물 위에 떠내려가는 얼음덩이
<보기>성엣장이 둥둥 떠 내리는 바다 같은 강을 나룻배로 건넜다.
▶**속절없다**-아무리 하여도 마땅한 방법이 없다.
<보기>속절없이 마음만 썩이고 있다.
▶**손방**-어떤 일에 솜씨나 경험이 없어 서투른 상태
<보기>광산 일이라고는 손방이었던 그가 이젠 능숙하게 탄을 캔다.
▶**솔깃하다**-그럴듯하게 들려 마음이 끌리는 상태에 있다.
<보기>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친구의 말에 귀가 솔깃하다.
▶**수더분하다**-성질이 까다롭지 않고 순하고 무던하다.
<보기>친구들은 듬직하고 수더분한 그를 회장으로 뽑았다.
▶**수발**-거동이 불편하거나 병이 들거나 한 사람을 곁에서 행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보기>저 아주머니가 할머니의 수발을 드는 분이다.
▶**숫기**-남들을 대하거나 남과 어울릴 때 수줍어하거나 주눅이 들거나 하지 않고 활달하고 씩씩하게 행동하는 기질이나 태도
<보기>저 아이는 숫기가 없어 남 앞에서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다.
▶**스산하다**-마음이 뒤숭숭하고 어수선하다. 날이 흐리고 으스스하다.
<보기>가랑비가 뿌리고 산바람도 불어와 스산하였다.
▶**시나브로**-모른 사이에 조금씩조금씩
<보기>가지고 있는 돈을 시나브로 다 썼다.
▶**시난고난**-병이 심하지 않으면서 오래 앓는 모습
<보기>학질에 시난고난 하면서도 그녀는 기어이 서방을 끌고왔다.
▶**시답잖다**-보잘것없어 마음에 차지 않다.
<보기>그는 애가 쓴 원고를 읽어 보더니 시답잖은 표정을 지었다.
▶**시망스럽다**-몹시 짓궂은 데가 있다.
<보기>아이들이야 놀아도 여간 시망스럽게 놀지 않았다.
▶**시부렁거리다**-쓸데없는 말로 자꾸 지껄이다.
<보기>그는 연신 욕설을 시부렁거렸다.

▶**신소리**-상대편의 말을 슬쩍 받아 엉뚱한 말로 재치 있게 넘기는 말
<보기>구경꾼들은 신소리를 해 대며 웃었다.
▶**심드렁하다**-마음에 탐탁하지 않으며 관심이 거의 없다.
<보기>저 녀석이 심드렁하게 대답하는 품이 뭔가 불만이 있긴 있나 보네.
▶**아랑곳**-어떤 일을 마음에 두거나 상관하는 것
<보기>내가 무슨 일을 하건 네가 아랑곳할 바 아니다.
▶**아름드리**-한 아름이 넘는 나무나 물건
<보기>동네 어귀에는 아름드리 느티나무가 마을을 지키고 있었다.
▶**안다니**-무엇이든지 잘 아는 체하는 사람
<보기>종혁은 시장에서 안다니로 통했다.
▶**안쓰럽다**-아랫사람이나 약자의 딱한 사정이 마음에 언짢고 가엾다.
<보기>애들이 배고파하는 것을 더는 안쓰러워 못 보겠다.
▶**안절부절못하다**-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
<보기>그는 아들이 수술을 받고 있는 동안 안절부절못하고 복도를 서성거렸다.
▶**알겨먹다**-남의 자잘한 재물 따위를 간사한 꾀로 가로채다.
<보기>어린이의 코 묻은 돈을 알겨먹는 야바위꾼
▶**알싸하다**-매운 맛이나 냄새 등으로 혀나 코의 속이 알알하다.
<보기>초가집 추녀 끝마다 마른 솔가지 태우는 알싸한 냄새가 풍겨왔다.
▶**암팡지다**-몸집이 작거나 어린 나이에도 행동이나 태도가 힘차고 다부지다.
<보기>김 씨는 작지만 암팡진 구석이 있다.
▶**앙살**-엄살을 부리며 반항하는 것
<보기>앙살을 피우며 죽는 소리를 한다.
▶**애달프다**-마음이 스리거나 몹시 안타깝다. 애처롭고 쓸쓸하다.
<보기>남편을 지척에 두고 만나지 못하는 애달픈 마음이야 오죽하겠는가?
▶**애물단지**-몹시 애를 태우고 속을 썩이는 사람이나 물건　애물-애를 태우는 물건이나 사람, 나이 어려서 부모보다 먼저 죽은 자식. '애물단지'는 '애물'을 속되게 이르는 말
<보기>나는 공부도 못하고 말썽만 부리니 부모님의 애물단지이다.
▶**애오라지**-달리 어쩌지 못하고 다만, 부족한 대로 겨우
<보기>그는 한평생 애오라지 땅을 일구며 살아왔다.
▶**애잔하다**-어떤 대상이 그 모습이나 상태가 여리거나 나약하거나 하여 슬픔을 느끼게 하거나 가슴 아프게 하는 상태에 있다.
<보기>눈물이 그렁그렁한 애잔한 눈빛
▶**애면글면**-힘에 겨운 일을 이루려고 애를 쓰는 모양
<보기>식구들 뒷바라지하느라 애면글면 애를 썼다.
▶**애틋하다**-안타까워 애가 타는 듯하다.
<보기>세월이 흐를수록 애틋하게 그리워지는 어머니의 정
▶**앵돌아지다**-마음이 토라지다. 틀려서 홱 돌아가다.
<보기>그녀는 앵돌라져 이불을 뒤집어쓰고 누웠다.
▶**얍삽하다**-얕은꾀를 쓰면서 제 이익만을 취하려는 태도가 있다.
<보기>남을 이용하려고만 하는 얍삽한 사람
▶**어기대다**-순순히 따르지 않고 못마땅한 말이나 행동으로 뻗대다.

<보기>아이들은 성가셔서 어기대지만 할머니는 기를 쓰고 아이들을 뒷바라지하셨다.

▶**어림**-대강 어림짐작으로 헤아림

<보기>어림으로 계산해 보아도 수십 명은 넘어 보인다.

▶**엇셈**-서로 주고받을 것을 비겨서 없애는 셈

<보기>외상값 대신에 고구마 엇셈을 했다.

▶**어깃장**-일부러 다른 사람의 일이 어긋나도록 하는 말이나 행동

<보기>협조하는 듯하더니 어깃장을 놓기 시작하는군.

▶**어이없다**-일이 너무 뜻밖이어서 기가 막힐 지경이다=어처구니없다

<보기>그 말을 듣자 그는 어이없는 표정을 지었다.

▶**어쭙잖다**-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여 비웃을 만하다.

<보기>제 앞도 못 가리면서 어쭙잖게 남의 일에 기어들다니.

▶**엄살**-고통이나 어려움을 거짓 꾸미거나 실지보다 보태어 나타내는 태도

<보기>별로 아프지도 않으면서 공연히 엄살이다.

▶**엉겁결에**-자기고 모르는 사이에 갑작스럽게

<보기>놀라서 엉겁결에 비명을 질렀다.

▶**여북**-얼마나, 오죽의 뜻으로 언짢거나 안타까움을 나타냄

<보기>여북 답답했으면 이런 이야기를 하겠나?

▶**열없이**-어떤 일이나 사실에 대해 마음이 겸연쩍고 부끄럽게, 겁 많게

<보기>창수는 선생님의 칭찬에 열없이 얼굴이 붉어졌다.

▶**언저리**-둘레의 근방, 주위의 부근

<보기>싸움으로 눈언저리에 멍이 들었다.

▶**얼추**-어지간한 정도로 대충

<보기>기초공사를 얼추 해 놓았다.

▶**얼버무리다**-말꼬리를 흐리다. 분명하지 않게 말하다.

<보기>얼버무리지 말고 바른대로 말해!

▶**엄두**-감히 무엇을 하려는 마음

<보기>너무 추워 밖에 나갈 엄두가 안 난다.

▶**영절스럽다**-아주 그럴듯하다.

<보기>그 화가는 도시의 전경을 영절스럽게 묘사하였다.

▶**오롯이**-고요하고 쓸쓸하게, 모자람이 없이 온전하게

<보기>그 시절 나는 할머니와 함께 이 넓은 집에서 오롯이 살았다.

▶**오롯하다**-모자람이 없이 온전하다.

<보기>부모님의 오롯한 사랑

▶**오금**-무릎이 구부러지는 안쪽의 오목한 부분

<보기>잘못 앉아서 오금이 저려 죽겠다.

▶**올곧다**-마음이 바르고 곧다. 줄이 바르다.

<보기>그는 한평생 한눈팔지 않고 올곧게 살아온 사람이다.

▶**옹골지다**-속이 꽉 차 있어 실속이 있다.

<보기>옥수수가 옹골지게 여물었다.

▶**옹골차다**-옹골지고 기운차다.

<보기>옹골찬 머슴들이 타작마당을 거들었다.

▶**우람하다**-체구 또는 높이와 부피에 있어서 보통의 경우보다 큰 상태에 있다.
<보기>체구가 우람한 씨름 선수
▶**욱대기다**-무력으로 윽박질러 위협하거나 억지로 부려 제 맘대로 하다.
<보기>남을 욱대겨 재물을 빼앗는 것이 바로 강도입니다.
▶**으름장**-상대방에게 자기 뜻에 다르지 않으면 혼을 내거나 해치거나 하겠다고 말하는 일
<보기>말 안 듣는 녀석들은 혼을 내 주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음전하다**-사람 또는 그의 언행이 정숙하고 단정하다.
<보기>규수가 어지나 참하고 음전하지 맏며느리감이라니까요.
▶**을씨년스럽다**-날씨나 분위기가 쓸쓸한 듯하다. 살림이 궁핍해 보이다.
<보기>날씨가 을씨년스러운 게 곧 눈이라도 쏟아질 것 같다.
▶**의뭉스럽다**-겉으로는 어리석은 것 같으나 속은 엉큼한 데가 있다.
<보기>그는 의뭉스럽게 정작 할 말은 입을 다물고 있다.
▶**왜장치다**-누구라고 꼭 집어 말하지 않고 헛되이 큰 소리로 마구 떠들다.
▶**이골**-아주 길이 들어 몸에 밴 짓이나 버릇
<보기>어떤 방면에 길이 들어서 아주 익숙해지는 것을 이골이 나다고 한다.
▶**이내**-그대에 바로. 어느 때부터 내처
<보기>헤어지고 이내 감감소식이다.
▶**이울다**-꽃이나 잎이 시들다. 점점 쇠약해지다. 달이 둥그런 모양에서 이지러진 상태가 되다.
<보기>홀로 피었다가 이우는 진달래 잎새
▶**일쑤**-흔히, 곧잘
<보기>그는 차만 탔다 하면 졸기가 일쑤이다.
▶**자린고비**-아니꼽게 느껴질 정도로 인색한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
<보기>그는 온 마을에 자린고비라고 소문이 날 정도로 인색하다.
▶**자못**-생각보가 훨씬
<보기>내가 비밀을 털어놓자 그는 자못 놀라는 눈치였다.
▶**잘록하다**-긴 물건의 한 부분이 패어 오목하다.
<보기>그녀는 잘록한 허리를 드러내려는 듯 짧은 저고리를 입었다.
▶**저어하다**-마음속으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다.
<보기>상대에게 혹시 폐가 되지 않을까 저어했다.
▶**재우치다**-빨리 몰아치거나 재촉하다.
<보기>학교에 늦을까 봐 걸음을 재우쳤다.
▶**잼처**-어떤 일에 바로 뒤이어 몰아치듯 거듭
<보기>묻는 말에 대답하기도 전에 잼처 묻다.
▶**적이**-꽤 어지간히=얼마간, 다소
<보기>상대방의 뜻밖의 질문에 적이 당황해했다.
▶**조아리다**-머리를 상대에게 용서를 빌거나 복종심을 나타내거나 고마움을 효하거나 하기 위하여 크게 숙이다.
<보기>머리를 조아리고 용서를 빌다.
▶**조촐하다**-본래 아담하고 깨끗하다.
<보기>본인을 위해 이렇게 조촐한 자리를 마련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좀체**-여간해서, 쉽사리=좀처럼

<보기>그는 좀체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주눅**-기운을 펴지 못하고 움츠려드는 일

<보기>사람들 앞에 나서자 그는 주눅이 들어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주먹구구**-정밀하지 못하고 대가하는 계산 주먹구구-주먹으로 구구단을 계산하듯이 정확하지 못한 계산이나 어림짐작

<보기>주먹구구로 물건을 만들어 해외시장에 수출하던 때는 지났습니다.

▶**주접(이) 들다**-생물체가 잘 자라지 못하거나 생기를 잃다. ◀주접-생물체가 잘 자라지 못하고 생기를 잃은 상태

<보기>돈이 없으니까 사람이 주접 든다.

▶**주책없다**-일관성 없이 이랬다저랬다 하여 몹시 실없다.

<보기>며느리 앞에서 그렇게 주책없이 구시면 시아버지의 위신이 떨어집니다.

▶**진배없다**-그만 못할 것이 없다.

<보기>내 컴퓨터는 3년을 사용했지만 새것이나 진배없다.

▶**짐짓**-마음에는 그렇지 않으나 일부러 그렇게

<보기>짐짓 술 취한 체하다.

▶**짜장**-과연, 정말로

<보기>그는 짜장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한다.

▶**책상물림**-글만 읽어서 세상 물정에 어두운 사람

<보기>방안에 틀어박혀 글만 읽으면 책상물림이 되기 쉬우니 여행을 다녀오도록 해라.

▶**추레하다**-옷차림이나 겉모습 등이 보잘것없고 가난한 티가 나다.

<보기>좌절만을 안고 가는 추레한 뒷모습

▶**치사랑**-아랫사람이 손윗사람을 사랑하는 일 ↔내리사랑

<보기>치사랑이 크다 해도 내리사랑을 당하랴?

▶**칼바람**-몹시 매섭고 독한 바람

<보기>강을 훑고 올라온 칼바람이 살을 도려내는 듯싶었다.

▶**켕기다**-마음에 찔리거나 떳떳하지 못한 데가 있어 거리기거나 겁이 나다. 물체가 팽팽하여 손이나 몸에 당기거나 조이는 힘이 느껴지다.

<보기>거짓말한 것이 마음에 켕긴다.

▶**쾨쾨하다**-고린 냄새가 나다. 행동이 자잘하고 좀스럽다.

<보기>습기 찬 방에서 쾨쾨한 냄새가 난다.

▶**터무니없다**-이치나 조리에 맞지 않다. ↔터무니-정당한 근거나 이유

<보기>터무니없는 중상 모략을 즉시 중단하라!

▶**터울**-한 어머니의 자식으로 먼저 낳은 아이와 다음에 낳은 아이와의 나이 차이

<보기>큰애와 둘째 애는 세 살 터울이에요.

▶**토색**질-돈이나 물건 따위를 억지로 달라고 하는 짓

<보기>위로는 사또 영감부터 아래 육방관속에 이르기까지 토색질을 일삼았다.

▶**투박하다**-생김새가 볼품없고 세련되지 못하다. 언행이 거칠다.

<보기>여인은 투박한 사투리를 거침없이 썼다.

▶**튼실하다**-튼튼하고 실하다.

<보기>그의 신앙심은 날로 튼실해져 술 담배마저 끊었다.

▶**하늬바람**-주로 농촌이나 어촌에서 서족에서 부는 바람을 이름.
<보기>그리 세지 않은 하늬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에서 눈가루가 날렸다.
▶**하릴없다**-달리 어쩔 도리가 없다. 조금도 틀림이 없다.
<보기>그는 초조함을 견디지 못해 하릴없이 애꿎은 담배만 피워 댔다.
▶**하염없다**-어떤 행동이나 심리 현상이 제 의지대로는 어찌할 수 없게 계속되는 상태에 있다.
<보기>떨어져 내리는 가랑잎을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다.
▶**하잘것없다**-시시하여 할 만한 것이 없다.
<보기>하잘것없는 일에 시간을 빼앗기다.
▶**함초롬히**-촉촉이 젖어 차분하거나 곱고 생기 있게
<보기>바위 밑에 함초롬히 핀 들국화
▶**함치르르**-깨끗하고도 윤이 나 반들반들한 모양
<보기>그녀의 함치르르한 머릿결
▶**해거름**-해가 서쪽으로 넘어가는 일
<보기>이제 곧 떠나야 할 나그네만이 저무는 해거름을 아쉬워하는 건 아니다.
▶**해동갑하다**-어떤 일을 해 질 무렵까지 계속하다.
<보기>일백삼십 리 길을 사흘에도 해동갑하여 왔다.
▶**해사하다**-얼굴이 희고 곱살하다.
<보기>부잣집 도령같이 해사하다.
▶**허투루**-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보기>지금부터 내가 하는 얘기를 허투루 들어서는 안 된다.
▶**헤살**-짓궂게 남의 일을 방해하는 짓
<보기>소녀는 소년이 하는 일마다 짓궂게 헤살을 부렸다.
▶**호젓하다**-어떤 길이나 장소가 사람의 왕래가 적어 조용하거나 쓸쓸하다. 남과 떨어져 있어 방해되는 것이 없이 여유롭거나 홀가분하다.
<보기>오랜만에 단둘만의 호젓한 시간을 가지다.
▶**화들짝**-갑자기 호들갑스럽게 펄쩍 뛸 듯이 놀라는 모양
<보기>그는 내가 부르자 도둑질하자 들킨 사람처럼 화들짝 놀랐다.
▶**화수분**-재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는 보물단지
<보기>이 사람이 화수분을 얻었나? 왜 이리 돈을 물 쓰듯 하지?
▶**휘뚜루마뚜루**-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마구 해치우는 모양 ◀휘뚜루-아무렇게나 되는대로
<보기>잘 살기는 틀린 바에야 휘뚜루마뚜루 제 맘대로 살다 죽게 둬!
▶**흔전만전**-돈이나 물건 따위를 조금도 아기지 않고 함부로 쓰는 모양
<보기>그는 돈을 흔전만전 쓴다.
▶**흰소리**-실속 없이 거드럭거리며 허풍을 떠는, 믿음성이 없는 소리 . '희떠운 소리'의 준말.
▶**희떱다**-실속 없이 거드럭거리며 큰소리치는 태도가 있다.
<보기>그는 실속은 없으면서 늘 흰소리를 치고 다닌다.

3.속담(俗談)

▸**가게 기둥에 입춘** - 격에 맞지 아니함
=개발에 주석 편자, 돼지 목에 진주 목걸이
▸**가난 구제는 나라(님)도 못한다** - 가난한 사람을 다 구하기는 힘들다.
▸**가난이 병보다 무섭다** - 가난한 삶은 몹시 괴롭다.
▸**가난한 집 제사 돌아오듯 한다** - 힘든 일이 자꾸 닥쳐온다.
▸**가는 날이 장날이다** - 뜻하지 않은 일을 공교롭게 당하다.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 말은 누구에게나 곱고 점잖게 하여야 한다.
▸**가는 방망이 오는 홍두깨** - 남에게 해를 끼치면 그보다 더 큰 화를 당함
▸**가다가 중지하면 아니 감만 못하다** - 도중에 그만두면 차라리 아니함만 못하다.
▸**가던 날이 장날이다** - 뜻하지 않는 일을 공교롭게 당하게 되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 - 작은 일을 소홀히 하다 낭패를 당하거나 큰 손해를 보니 유의해야 한다.
▸**가랑잎에 불붙듯** - 성질이 급한 사람
=우물에 가서 숭늉 달라한다. 밀밭에서 술 찾는다.
▸**가랑잎으로 눈 가린다** - 얕은꾀로 남을 속이려 한다.
=낫으로 눈 가리기, 손샅으로 밑 가리기
▸**가랑잎이 솔잎더러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 자기 허물은 더 큰데 남 허물만 탓하다.
▸**가루는 칠수록 고와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 말이란 신중히 해야 한다.
▸**가마 타고 시집가기는 다 틀렸다** - 일이 잘못되어 제대로의 격식을 차릴 수 없게 되었다.
▸**가물에 콩 나듯** - 발생 빈도가 매우 낮음
▸**가을 중 싸대듯 한다** - 바쁘게 돌아다닌다.
▸**가을에는 부지깽이도 덤빈다** - 추수하는 가을에는 매우 바쁘다.
=발바닥에 불이 난다. 궁둥이에 비파 소리 난다.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 - 자식 많은 부모는 늘 근심이 많다.
=새끼 많이 둔 소 길마 벗을 날 없다.
▸**간에 붙었다 쓸개에 붙었다 한다** - 이익에 따라 간사하게 행동한다.
▸**갈수록 태산이라** - 갈수록 더욱 어려운 지경에 처하게 되다.
▸**감기 고뿔도 남 안 준다** - 몹시 인색하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 값이 같거나 같은 노력을 한다면 품질이 좋은 것을 택함
▸**같이 우물 파고 혼자 먹는다** - 같이 노력하고 이득은 혼자 취한다.
▸**같은 말이라도 '아' 다르고 '어' 다르다** - 비록 사소한 차이라도 그 말씨 여하로 상대편에 주는 느낌이 다르다.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쓴다** - 궂은 일 가리지 않고 벌어서 떳떳하고 보람 있게 쓴다.

▶**개 꼬리 삼년 두어도 황모 안 된다** - 본바탕이 좋지 않은 것은 어떻게 하여도 좋아지지 않는다.
▶**개구리 올챙이 적 생각 못한다** - 잘 되고 난 뒤, 어려웠던 옛일은 생각하지 않고 처음부터 잘 난 듯이 행동하다.
▶**개구리도 옴쳐야 뛴다** - 일을 이루려면 마땅히 준비하고 주선할 시간이 있어야 한다.
▶**개 못된 것은 들어가서 짖는다** - 쓸데없는 짓만 하고 다니는 사람
▶**개발에 (주석)편자** - 가진 물건이나 입은 옷 등이 제 격에 맞지 않음
ㄷ편자-말굽에 붙이는 'u'자 모양의 쇳조각
▶**개 보름 쇠듯** - 명절이나, 잘 먹고 지내야 할 날에 아무 좋은 음식도 먹지 못하고 지냄
▶**개밥에 도토리** - 따돌림을 받아 여럿에 어울리지 못함
▶**겨울이 다 되어야 솔이 푸른 줄을 안다** - 사람이 위급하거나 어려운 때를 당해 보아야 비로소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계란에도 뼈가 있다** - 운수가 나쁜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만나 일을 하여도 잘 안 된다. =재수 없는 놈은 곰을 잡아도 웅담이 없다.
▶**고기도 먹어 본 사람이 잘 먹는다** - 경험이 있으면 더 잘한다.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함함하다고 한다** - 어버이 눈에는 제 자식이 예뻐 보인다.
ㄱ함함하다-털이 윤기 나고 부드럽다.
▶**고욤 일흔이 감 하나만 못하다** - 자질구레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큰 것 하나만 못하다.
▶**고양이 보고 반찬 가게 지켜 달란다** - 믿을 수 없는 사람에게 소중한 것을 맡긴다.
▶**고양이 쥐 생각한다** - 당치도 않게 남을 위하는 척하다.
▶**과부 사정은 홀아비가 안다** - 같은 처지의 사람끼리 서로 이해한다.
▶**광에서 인심 난다** - 먹고 살 만큼 넉넉해야 남을 동정하게 된다.
▶**공든 탑이 무너지랴** - 정성을 들여 이룩해 놓은 일은 그리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
▶**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 - 다소 방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할 일은 하여야 한다.
▶**구렁이 담 넘어가듯** - 슬그머니 얼버무려 버림
▶**구멍은 깎을수록 더 커진다** - 허물은 얼버무릴수록 더 드러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 아무리 좋은 것도 다듬고 쓸모 있게 만들어 놓아야 가치가 있다.
▶**굴러 온 돌이 박힌 돌 뺀다** - 타지에서 온 사람이 본래 있던 사람을 내쫓거나 신흥세력이 기존세력을 밀어내다.
▶**굽은 나무가 선산을 지킨다** - 별 볼일 없는 것이 도리어 소용되다.
▶**귀신 씻나락 까먹는 소리** - 분명하지 않고 우물우물 말하거나 이치에 닿지 않는

엉뚱하고 쓸데없는 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 사물을 보는 관점에 따라, 이렇게도 인식될 수 있고 저렇게도 인식될 수 있음

▶**귀장사 하지 말고 눈장사 하라** - 귀로 듣는 것보다 눈으로 보는 것이 확실하니 보지 않고는 소문을 내지 말라.

▶**그물에 든 고기** - 벗어날 수 없는 처지 =그물에 든 새다. 우물 안에 든 고기

▶**금강산도 식후경(食後景)** - 배가 불러야 뭐든 할 수 있음

▶**글 잘 쓰는 사람은 필묵을 탓하지 않는다** - 능숙한 사람은 용구가 좋지 않아도 잘 한다.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 매어 쓸까** - 급해도 순서에 따라 사리에 맞게 해야 한다.

▶**급하다고 우물에 가서 숭늉 찾는다** - 성미가 매우 급하다.

▶**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 - 잘하는 사람 위에 더 잘하는 사람이 있다.

▶**기지도 못 하고 뛰려 한다** - 제 실력 이상의 일을 하려 한다.

▶**기와 한 장 아끼다가 대들보 썩는다** - 조그마한 것을 아끼다가 큰 손해를 보게 된다.

▶**기둥을 치면 들보가 운다** - 간접적으로 둘러말해도 알아듣는다.
=변죽을 치면 복판이 운다.

▶**기름 먹인 가죽이 부드럽다** - 사례나 뇌물을 주면 일이 잘 풀린다.

▶**긴 병에 효자 없다** - 아무리 효자라도 오랜 병간호에는 견디기 어렵다.
=삼년 구병(救病)에 불효 난다.

▶**길은 갈 탓, 말은 할 탓** - 같은 말이라도 하기에 따라서 상대방에게 주는 영향이 다르다.

▶**길러 준 개 주인 문다** - 은혜를 저버리다.

▶**김 안 나는 숭늉이 더 뜨겁다** - 공연히 떠벌리는 사람보다 침묵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더 무섭다.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괜한 일로 의심을 받는다. =오비이락(烏飛梨落)

▶**까마귀 검기로 속도 검겠냐** - 외모만 보고 판단할 수 없음

▶**꼬리가 길면 밟힌다** - 나쁜 짓을 오래 계속하면 결국 들키게 된다.

▶**꿀 먹은 벙어리다** - 속에 있는 생각을 제대로 못 나타내다.

▶**꿔다 놓은 보릿자루** - 어울리지 못하고 우두커니 있음

▶**꿩 먹고 알 먹는다** - 한 번에 여러 이득을 얻는다.

▶**꿩 잡는 것이 매다** - 꿩을 잡아야 매라고 할 수 있듯이. 이름에 걸맞는 역할을 해야 한다.

▶**끝 부러진 송곳** - 아무짝에도 쓸모없음

▶**나간 놈의 집구석 같다** - 어수선하고 어지럽다.

▶**나는 바담 풍 해도 너는 바람 풍 해라** - 자기는 잘못하면서 남에게는 잘하라고 권한다.

▸**나무는 큰 나무 덕을 못 보아도 사람은 큰 사람 덕을 본다** - 뛰어난 인물로부터 알게 모르게 가르침이나 영향을 받게 된다.
▸**나무에 오르라 하고 흔든다** - 남을 꾀어 어려운 처지에 빠뜨리다.
=어르고 뺨친다.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 - 후배가 선배보다 났다.
▸**남의 눈에 눈물 빼면 제 눈에는 피가 난다** - 남을 괴롭히면 더 큰 화가 돌아온다.
▸**남의 다리 긁는다** - 자기 할 일은 않고 엉뚱한 짓을 하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 다른 사람의 것이 더 좋아 보인다.
▸**남의 잔치(제사)에 감 놔라 배 놔라 한다** - 자기와는 상관도 없는 일에 쓸데없이 간섭함
▸**낫 놓고 기역자고 모른다** - 기역자 모양으로 생긴 낫을 보면서도 기역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이름
▸**낮말은 새가 듣고 밤말은 쥐가 듣는다** - 비밀이란 없으므로 말조심을 해야 함
▸**내 돈 서푼은 알고, 남의 돈 칠푼은 모른다** - 남 생각은 않고 자기 자신만 생각함
=남의 염병이 내 고뿔만 못하다.
▸**내를 건너간 놈은 지팡이를 팽개친다** - 필요할 때는 부리다가 쓸모가 없어지면 버림
=토사구팽(兎死狗烹) =토끼를 다 잡으면 사냥개를 잡는다.
▸**내 밥 먹은 개가 발뒤축 문다** - 은혜를 갚기는커녕 도리어 배반하다.
▸**내 배 부르니 평안감사가 조카 같다** - 배가 부르니 부러울 것이 없다.
▸**내 코가 석자다** - 자기 상황도 추스르기 힘들다. =오비삼척(吾鼻三尺)
▸**냉수 먹고 이 쑤시기** - 실속 없이 겉으로만 일하는 체하다.
▸**누워서 침 뱉기** - 자기에게 해가 되는 일을 하다. =하늘 보고 침 뱉기
▸**누울 자리 봐 가면서 발을 뻗어라** - 일을 하려면 상황을 살펴보고 난 다음에 행동해야 한다.
▸**누이 좋고 매부 좋다** - 양쪽에게 다 이롭다 .
=일거양득(一擧兩得), 일석이조(一石二鳥)
▸**눈 가리고 아웅한다** - 얕은 수단으로 남을 속이려고 한다.
▸**눈 먼 말 방울소리 따라간다** - 무식한 사람이 남이 일러주는 대로 따라간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 해를 입은 것만큼 앙갚음 함
▸**눈치가 빠르면 절에 가도 젓갈을 얻어 먹는다** - 눈치가 빠르면 어디를 가도 궁색하지 않게 지낼 수 있다.
▸**느릿느릿 걸어도 황소걸음** - 더뎌도 꾸준히 해 나가 믿음직함
▸**늦게 배운 도둑이 날 새는 줄 모른다** - 뒤늦게 시작한 일에 재미를 붙여 더욱 열중하게 되다.
▸**다 된 밥에 재 뿌리다** - 애써 완성된 일을 망쳐 버리다.
▸**단단한 땅에 물이 고인다** - 아껴 쓰는 사람이 재물을 모은다.

▸**달도 차면 기운다** - 좋은 일은 계속되지 않는다.
=봄꽃도 한 때 =열흘 붉은 꽃이 없다.
▸**닭의 대가리가 소꼬리보다 낫다** - 하찮아도 남의 우두머리 노릇 하는 것이 낫다.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꼴이다** – 애쓰던 일이 실패로 돌아가 어이없게 되다.
▸**도갓집 강아지다** - 눈치가 빠르다.ㅋ도갓집-동업하는 장사꾼들이 모여 의논하는 집
▸**도둑을 맞으려면 개도 안 짖는다** - 운수가 나빠 일이 안 되려면 모든 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
▸**도둑이 제 발 저리다** - 지은 죄가 있으면 마음이 불안하다
▸**도둑질을 해도 손이 맞아야 한다** - 무슨 일이거나 뜻이 맞아 협조를 해야 잘 된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넌다** -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조심하고 조심하다.
▸**돌쩌귀에 녹이 슬지 않는다** - 부지런하면 탈이 생기지 않는다.
▸**독 깨고 장 쏟았다** - 이중의 손해를 보다. =국 쏟고 뚝배기 깨었다.
▸**돈 떨어지자 입맛 난다** - 없어지고 나면 더 아쉬워지다.
▸**돈 잃고 친구 잃는다** - 친구 사이의 돈거래는 위험하다.
▸**돌다리도 두드려 보고 건너라** - 잘 아는 일이라도 세심한 주의를 하여 하라.
▸**돌절구도 밑 빠질 날이 있다** - 아무리 튼튼한 것이라도 결판이 날 때가 있다.
▸**동냥은 아니 주고 쪽박만 깬다** - 달라는 것은 안 주고 피해만 준다.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장래성이 있는 사람은 어릴 때부터 남다른 데가 있다.
▸**두 손뼉이 울어야 소리가 난다** -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어려움
=고장난명(孤掌難鳴)
▸**뒤로 오는 호랑이는 속여도 앞으로 오는 팔자는 못 속인다** - 사람은 숙명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든 버릇 난 버릇** - 후천적 습성이 선천적 성격처럼 되어 버림
▸**등겨 먹던 개가 말경에는 쌀을 먹는다** - 버릇은 점점 나빠지기 쉽다.
▸**등잔 밑이 어둡다** - 가까운 곳일수록 소홀히 한다. =눈이 눈썹을 못 본다.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 -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면 더 미움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 - 제 허물 큰 줄 모르고 남의 작은 허물을 흉본다.
▸**마른 말이 짐 탐한다** - 능력이나 실력이 부족한 자가 분수에 넘치는 행동을 하려 한다.
▸**마파람에 게 눈 감추듯** - 음식을 급하게 먹어 치움. =두꺼비 파리 잡아먹듯
▸**말은 보태고 떡은 뗀다** - 말은 보태서 전해지고 음식은 줄어서 전해진다.
▸**말은 해야 맛이요, 고기는 씹어야 맛이다** - 하고 싶은 말은 해 버려야 좋음
▸**말 많은 집은 장맛도 쓰다** - 말이 많고 수다스러운 집은 화평하지 못하다.
▸**말 타면 경마 잡히고 싶다** -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 ㅋ경마(牽馬) : 남이 탄 말

을 몰기 위하여 잡는 고삐. 경마를 잡다-남이 탄 말의 고삐를 잡고 몰고 가다.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채운다.
▶**말로 온 동네 다 겪는다** - 음식으로 대접하는 대신에 말만으로 인사치레하다.
▶**말 한 마디에 천 냥 빚 갚는다** - 말을 잘하면 어려운 일도 해결이 가능하다.
=말로 온 공을 갚는다. 말 잘하고 징역 가랴.
▶**망건 쓰자 파장** - 적절한 때를 놓쳐 목표를 이루지 못함
▶**매를 아끼면 아이를 버린다** - 자식은 엄하게 키울 필요가 있다.
▶**맥도 모르고 침통 흔든다** - 능력도 없으면서 주제넘게 나선다.
▶**며느리 늙어 시어미 된다** - 시어미에게 학대받던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되면 저는 더 심하게 한다.
▶**못된 송아지 엉덩이에 뿔 난다** - 사람답지 못한 사람이 교만한 짓을 하다.
▶**물이 깊어야 고기가 모인다** - 덕망이 높고 인성이 갖추어야 사람이 따른다.
▶**물에 바진 놈 건져 놓으니까 봇짐 내놓으라 한다** - 은혜를 갚기는커녕 배신하다.
▶**며느리 미우면 발뒤축이 달걀 같다고 나무란다** - 탈 잡을 것이 없는데 공연히 트집을 잡아서 억지로 허물을 지어낸다.
▶**먼 사촌보다 가까운 이웃이 낫다** - 가까운 이웃이 정이 들고 도움도 많이 되다.
▶**모기 보고 칼 빼기**-사소한 일에 과한 대책을 세움 =견문발검(見蚊拔劍)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 목적을 이룰 수가 있다면 뭐든 상관없다.
▶**목마른 놈이 우물 판다** - 자기가 급해야 시작을 한다.
=갈이천정(渴而穿井), 갑갑한 놈이 송사한다.
▶**무당이 제 굿 못하고 소경이 저 묵을 날 모른다**-자기 일은 스스로 처리하기 어렵다.
▶**무른 땅에 말뚝 박기**-아주 쉬운 일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으니 봇짐 내라 한다** - 은혜를 받고서도 오히려 원망하다.
▶**물은 건너 봐야 알고 사람은 지내 보아야 안다**-시간이 지나고 겪어 봐야 사람의 마음을 알게 된다.
▶**물은 깊을수록 소리가 없다**-훌륭한 사람일수록 잘난 체하거나 떠벌리지 않는다.
▶**물은 깊을수록 고기가 모인다**-마음이 넉넉히 가져야 주변에 사람이 모이게 된다.
▶**물은 흘러도 여울은 여울대로 있다** - 무슨 일이 있더라도 제 본심이야 변할 리 없다.
▶**미꾸라지가 모래 쑤신다** - 무슨 일을 했거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전혀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린다** - 한 사람의 잘못이 전체에 큰 폐를 끼친다. =일어탁수(一魚濁水)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 - 미울수록 정답게 하여야 미워하는 마음이 가신다.
▶**물은 트는 대로 흐른다** - 사람은 가르치는 대로 된다.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 믿고 있던 사람에게서 뜻하지 않았던 큰 피해를 입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애를 써서 노력해도 아무런 소용이 없음
▸**바다는 메워도 사람의 욕심은 못 메운다** - 사람의 욕심은 한이 없다.
▸**바늘 가는 데 실 간다** - 서로 떨어지지 않고 늘 붙어 다닌다.
▸**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 좋지 못한 버릇일수록 점점 더 나빠진다.
▸**발 없는 말이 천 리 간다** - 말은 순식간에 퍼지므로 늘 조심해서 해야 한다.
▸**백년을 다 살아야 삼만육천 일**-인생은 덧없이 짧음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쉬운 일도 여럿이 힘을 합치면 더 잘할 수 있다.
▸**뱁새가 황새걸음을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주제 넘는 일을 하다간 낭패를 본다.
▸**벙어리 냉가슴 앓듯** -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속으로만 애를 태움
▸**벙어리 속은 제 어미도 모른다** - 설명을 듣지 않고는 그 사정을 정확히 알 수 없다.
▸**병신 자식이 효도한다**-흔히 못난 자식이 부모 곁에서 효자 노릇한다.
=굽은 나무가 선산(先山)을 지킨다.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외관상 보기가 좋으면 내용도 알차다.
▸**봉사 문고리 잡기** - 실력이 안 되는 사람이 우연히 어떤 일을 해냄
▸**부뚜막의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 아무리 손쉽게 할 수 있는 일이라도 실행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부조(扶助)는 않더라도 제상은 치지 말라** - 돕지는 못할망정 방해는 하지 말라.
▸**불난 집에 부채질한다** - 어려운 상황에 놓인 사람을 더욱 곤란하게 만든다.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 - 풍파를 겪은 뒤에 일이 더 든든해진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 작은 것을 잡으려다 큰 손해를 보게 되다.
▸**빈대가 밉다고 집에 불을 놓는다** - 조그마한 감정 끝에 큰 손해 보는 짓을 한다.
▸**빛 좋은 개살구** - 겉만 그럴듯하고 실속이 없음
▸**사공이 많으면 배가 산으로 간다** - 여럿이 자기 주장만 내세우면 일이 잘 안 된다.
▸**사람의 새끼는 서울로 보내고 마소의 새끼는 시골로 보내라** - 사람은 넓고 큰 곳에서 자라야 견문이 넓어지고 출세도 할 수 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 남이 잘 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다.
▸**사흘 굶어 담 안 넘을 놈 없다** - 굶주리게 되면 불가피하게 나쁜 짓을 하게 된다.
▸**사흘 굶어 도둑질 아니 할 놈 없다** -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몹시 궁하게 되면 옳지 못한 짓을 하게 된다.
▸**산 개가 죽은 정승보다 낫다** - 아무리 사는 것이 괴로워도 죽는 것보다 낫다.
▸**산보다 골이 더 크다** - 정작 중요한 것보다 거기에 딸린 것이 오히려 더 크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산토끼 잡으려다 집토끼 놓친다** - 지나치게 욕심을 부리다 오히려 손해를 본다.
▸**삶은 무에 이 안 들 소리** - 사리(事理)에 어긋나는 말

▶**상가(喪家) 술로 벗 사귄다** - 남의 것을 가지고 생색낸다.
▶**새도 가지를 가려서 앉는다** - 친구를 사귀거나 사업을 함에 있어 잘 가리고 골라야 한다.
▶**새벽달 보려고 초저녁부터 나앉으랴** - 성미가 몹시 급해서 미리부터 서둘러 대다.
▶**서 발 막대 거칠 것이 없다** - 몹시 가난하다.
▶**서울이 무섭다니까 새재서부터 긴다** - 어떤 일을 미리부터 겁을 내며 염려하다.
▶**서투른 무당이 장구만 나무란다** - 기술이 모자라 일을 잘 못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도구가 나쁘다고 탓하다.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능력이 안 되는 사람이 서투르게 일을 하려다가 사고를 치다.
▶**섶을 지고 불구덩이에 뛰어든다**-몹시 위험한 짓을 하여 화를 스스로 초래하다.
▶**세 살 버릇이 여든까지 간다**-어릴 적 몸에 밴 습관은 늙도록 고치기 힘들다.
▶**소도 언덕이 있어야 비빈다**-기본이나 의지할 곳이 있어야 일을 잘 이룰 수 있다.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좋다고 난 소문과는 달리 그 실상은 보잘것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이미 일이 터진 이후에, 뒤늦게 대비책을 마련하다.
=망양보뢰(亡羊補牢)
▶**속 빈 강정**-실속은 없이 겉만 그럴듯함
▶**손도 안 대고 코 푼다** - 일을 힘 안 들이고 쉽게 해결하다.
▶**송충이가 갈잎을 먹으면 죽는다**-자기의 분수에 넘치는 짓을 하다가는 낭패를 보다.
▶**쇠귀에 경 읽기** - 어리석어서 아무리 가르치고 일러 줘도 알아듣지 못함
=우이독경(牛耳讀經)
▶**쇠뿔도 단김에 빼라**-무슨 일이든 기회가 있을 때 바로 해치워야 한다.
▶**술 익자 체 장수 간다**-일이 공교롭게 잘 맞아 돌아가다.
▶**쏘아 놓은 화살이요, 엎지른 물이다** - 한번 저지른 일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수제비 잘 하는 사람이 국수도 잘한다**-어떤 일에 능한 사람은 그와 비슷한 다른 일도 잘한다.
▶**시작이 반** - 일은 시작만 하여도 반은 성공한 것이나 같다.
▶**아는 것이 병이다** - 알기는 알아도 똑바로 잘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 지식이 오히려 걱정거리가 되다.
▶**아는 길도 물어 가라** - 쉬운 일도 신중하게 최선을 다해야 한다.
▶**얌전한 강아지 부뚜막에 오른다** - 겉은 얌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딴 짓을 하거나 자기 실속을 챙기다.
▶**양지가 음지가 되고 음지가 된다** - 세상일이란 돌고 돈다.
▶**아는 것이 병** -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도리어 걱정이 많음 =식자우환(識字憂患)
▶**양반은 얼어 죽어도 겻불은 안 쬔다** - 위급한 상황에서도 실속보다 체통을 중히 여김 ⇦겻불 : 겨를 태우는 불

=양반은 물에 빠져도 개헤엄은 안 한다.
▶**염불에는 마음이 없고 잿밥에만 마음이 있다** - 해야 할 일은 등한시하고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다른 데만 관심을 쏟다.
▶**어느 집 개가 짖느냐 한다** - 남이 하는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다.
▶**언 발에 오줌 누기**-당장 닥친 어려움만을 피하기 위한 임시방책
=동족방뇨(凍足放尿)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 =하석상대(下石上臺)
▶**업은 아이 삼 년 찾는다** - 가까이에 있는 것도 모르고 여기저기 한참을 찾는다.
▶**엎드려 절 받기다** - 상대는 마음에 없는데 자기 스스로 요구하여 대접을 받음
▶**엎친 데 덮친다**-불행이 거듭 닥쳐오다 =설상가상(雪上加霜)
▶**여름불도 쬐다 나면 섭섭하다** - 쓸데없는 것이라도 있던 것이 없어지면 섭섭하다.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 없다** - 부모에게는 모든 자식이 하나같이 소중하다.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 - 불가능한 일은 일찌감치 단념하라.
▶**옷이 날개다** - 갖춰 입은 복장이 좋으면 인물이 더 좋아 보이다.
▶**외(처)삼촌 산소에 벌초하듯** - 진심으로 일을 하지 않고 성의 없이 대충대충 함
▶**외손뼉이 못 울고, 한 다리로 못 간다** - 상대가 응해 줘야 일을 이룰 수가 있음
=고장난명(孤掌難鳴)
▶**우물가에 가 숭늉 찾는다** - 성미가 너무 급하여 참고 기다리지 못하다.
▶**우물가에 애 보낸 것 같다** - 불안하고 걱정이 돼서 마음이 놓이지 않는다.
▶**우선 먹기는 곶감이 달다** - 나중에는 어찌 되든 당장 좋은 편을 취하게 된다.
▶**우물을 파도 한 우물을 파라** - 어떤 일이든 한 가지 일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
▶**울며 겨자 먹기다** - 하기 싫은 일을 어쩔 수 없이 억지로 하다.
▶**원님 덕에 나발 분다** - 다른 사람 덕에 이득을 얻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 윗사람이 모범을 보여야 아랫사람도 본을 받는다.
▶**음식은 갈수록 줄고, 말은 갈수록 는다** - 말은 옮겨질수록 과장되기 쉽다.
▶**의뭉하기는 구렁이다** - 속으로는 다 알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모르는 척하다.
ㅁ의뭉하다 : 겉으로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면서 속으로는 엄큼하다.
▶**익은 밥 먹고 선소리한다** - 사리에 맞지 않는 말을 싱겁게 하는 사람을 핀잔하여 이르다.
▶**입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못 얻어먹는다** - 옷차림이 깨끗해야 대우를 받는다.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해라** - 언제든지 말을 정직하게 해야 한다.
▶**입이 여럿이면 금(金)도 녹인다** - 여러 사람이 힘을 합하면 안 될 일이 없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 - 한 번 놀라면 비슷한 것만 봐도 놀라다.
▶**자는 범에 코침 준다** - 가만히 있는 사람을 괜히 건드려 화를 자초하다.
▶**자다가 봉창(封窓) 두드린다** - 아무런 관련이 없는(얼토당토않은) 말이나 행동을

불쑥하다.
▶**작은 고추가 더 맵다** - 몸집이 작은 사람이 도리어 힘이 더 세고 재주도 좋다.
▶**잘 되면 제 탓, 못되면 조상 탓이다** - 잘되면 자기 덕이라 여기고 못되면 남 탓을 하다.
▶**장님 코끼리 말하는 듯하다** - 사물의 일부분만 알면서 전체를 아는 듯 말하다.
▶**재는 넘을수록 험하고 내는 건널수록 깊다** - 어떤 일이 갈수록 더 어려워진다.
▶**재주는 곰이 넘고 돈은 되놈(호인(胡人, 주인)이 받는다** - 엉뚱한 사람이 이득이나 보수를 챙기다.
▶**저승길이 대문 밖이다** - 죽음이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있다.
▶**절에 가서 젖국 달라 한다** - 어떤 물건을 당치도 않은 곳에 가서 찾다.
▶**제 낯에 침 뱉기** - 자기가 자기에게 해되는, 또 욕되는 짓을 함
▶**제 꾀에 제가 넘어간다** - 꾀를 너무 부리다가 오히려 자기 꾀 때문에 손해를 본다.
▶**제 논에 물 대기** - 자기 이익을 먼저 챙김. 자기에게 유리하게만 해석함
=아전인수(我田引水)
▶**제 버릇 개 줄까** - 한번 든 버릇은 고치기가 매우 힘듦
▶**재 코가 석자** - 자기 사정이 급하여 남을 도와 줄 겨를이 없음
=오비삼척(吾鼻三尺)
▶**주인 많은 나그네 밥 굶는다** - 해 주겠다는 사람이 많으면 사로 믿다가 결국은 못 해 준다.
▶**제 버릇 개 줄까** - 한번 든 나쁜 버릇은 여간해서 고치기 어렵다.
▶**줄수록 양양** - 주면 줄수록 더 바란다.
ㅁ양양(揚揚)(하다) : 득의의 빛을 외모와 행동에 나타내는 태도가 있다.
▶**죽은 자식 나이 세기** - 기왕 잘못된 일은 생각해 봐야 아무 소용이 없음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기는 참 어렵다.
▶**쥐구멍에도 볕 들 날이 있다** - 몹시 어렵게 살아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수 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 -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도 너무 무시하면 대든다.
▶**지키는 사람 열이 도둑 하나를 못 당한다** - 아무리 힘써 감시해도 남몰래 벌어지는 일은 막기 어렵다.
▶**집안이 망하면 조상 탓이다** - 자기 잘못은 반성할 생각은 않고 다른 사람을 탓하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는 들에 가서도 샌다** - 타고난 천성은 어디 가서든 고치기 힘든다.
▶**천둥 번개할 때는 천하 사람이 한마음 한뜻**-다 같이 겪는 천변이나 위험 속에서는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됨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 -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처음부터 차분히 해 나가야 함
▶**초록은 동색, 가제는 게 편** - 서로 같은 처지나 같은 부류의 사람들끼리 함께 어울림
▶**초저녁 구들 따뜻해야 새벽 구들이 따뜻하다** - 처음이 좋아야 나중이 좋다.
▶**초하룻날 먹어 보면 열하룻날 또 간다** - 한번 재미를 보면 끊지 못한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 - 자기는 하고 싶지 않은데 남에게 끌려서 덩달아 같이 행동하다.
▶**침 먹은 지네** - 할 말을 못하거나 겁이 나서 기를 펴지 못하고 꼼짝 못함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 뿌린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돌아온다.
=종두득두(種豆得豆)
▶**팔십 노인도 세 살 먹은 아이한테 배울 것이 있다** - 손아랫사람의 말도 바른 말은 들어야 한다.
▶**핑계 없는 무덤 없다** - 어떤 일이라도 핑계거리는 있게 마련임
▶**평안 감사도 제 싫으면 그만이다** - 아무리 좋은 일도 자신이 싫으면 어쩔 수 없다.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 사람 본성을 알아내기는 어렵다.
▶**콩과 보리를 구별하지 못한다** - 어리석어 사물이나 상황을 제대로 분간 못하다.
=숙맥불변(菽麥不辨)
▶**큰 방축도 개미구멍으로 무너진다** - 사소하다고 해서 잘못 따위를 그냥 넘겨서는 안 된다.
▶**하나를 배우면 열을 안다** - 매우 영특함
=문일지십(聞一知十)
▶**하늘을 쓰고 도리질한다** -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권세를 마구 휘두르다.
ㄱ도리질하다 : 말귀를 겨우 알아듣는 아린아이가 어른이 시키는 대로 머리를 좌우로 흔드는 재롱을 부리다.
▶**혀 아래 도기 들었다** - 말을 잘못하면 화(禍)를 입을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한다.
▶**형제는 잘 두면 보배, 못 두면 원수** - 형제를 잘 두면 서로 협조하여 잘 지낼 수 있지만, 못된 형제가 있으면 서로 이해 다툼을 하고 폐를 끼쳐 원수같이 생각함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다** - 뜻하지 않았던 좋음 물건을 얻거나 행운을 만나다.
▶**하룻(릅)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 자기 분수를 모르고 강자에게 겁 없이 덤벼든다.
ㄷ하릅 : 한 살이 된 소 · 말 · 개 등을 이르는 말
▶**호랑이 굴에 가야 호랑이를 잡는다** - 일을 이루려면 선행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호랑이 없는 곳에서 여우가 왕 노릇하다**-잘난 사람이 없는 곳에서 못난 사람이 잘난 체하다.
▶**혹 떼러 갔다가 혹 붙인다** - 이득을 얻으러 갔다가 오히려 손해만 보고 오다.

▶**홀아비는 이가 서 말 , 과부는 은이 서 말** - 과부는 혼자 살아갈 수 있어도 홀아비는 혼자 살아갈 수 없음을 이름

4.비표준어

개인→갠 '개이다'는 '개다'의 비표준어임
<보기>맑게 갠 오후

거에요→거예요. 거여요.
<보기>곧 꽃이 필 거예(여)요.

거북치→거북하지(거북지)
<보기>거북(하)지 않게 대하다.

거짓말시키다→거짓말하다.
<보기>내가 왜 너한테 거짓말하겠니?

거칠은→거친
<보기>대패질을 하지 않은 거친 널조각

걸맞는→걸맞은 형용사는 어미 '-는'이 아닌 '-은'과 어울려 활용함
<보기>수입에 걸맞은 지출

날으는→나는
<보기> 나는 원더우먼

낯설은→낯선
<보기>낯선 사람

너무→무척, 아주
<보기>아기가 매우(아주) 예쁘다. '너무'는 부정적인 어감이 들어 있는 말임

놀랠→놀랄
<보기>사람들이 깜짝 놀랄 사건

놈→놓음
<보기>세(貰) 놓음

덩쿨→덩굴=넝쿨
<보기>칡덩굴

말아(라)→마라 '말다'가 명령형 어미 '-아(라)'와 결합하는 경우에는 받침 'ㄹ'이 줄어 '마/마라'가 됨
<보기>가지 마라.

머물었다→머물렀다 '머물다'는 '머무르다'의 준말로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에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치 않음
<보기>나는 그곳에서 사흘간 머물렀다.

바램→바람 동사 '바라다'에 명사를 만드는 접사 '-ㅁ'이 붙은 꼴
<보기>조국 통일 위한 우리의 바람

사루어→살라 불에 태워 없애다는 뜻의 '사르다'에 어미 '아'를 붙이면 '살라'가 된다.
<보기>향을 살라라.

✒**삼가하십시오**→삼가십시오 기본형이 '삼가다'이므로 '하'를 사용하면 틀림

<보기>말씀 삼가십시오.

✒**서둘어서**→서둘러서 '서둘다'는 '서두르다'의 준말이므로 어미 '어서'가 붙으면 '서둘러서'가 됨

<보기>일을 서둘러서 하다가 그르치는 경우가 많다.

✒**서슴치**→서슴지 기본형이 '서슴다'이므로 어간 '서슴'에 어미 '-지'가 붙은 형태는 '서슴지'

<보기>서슴지 말고 말씀하세요.

✒**서툴었다**→서툴렀다 '서툴다'는 '서투르다'의 준말이므로 모음 어미가 연결될 때는 준말의 활용형을 인정치 않음

<보기>그의 영어 회화는 매우 서툴렀다.

✒**설레이는**→설레는 기본형이 '설레다'이므로 활용형은 '설레는'이 옳다.

<보기>그녀는 설레는 마음을 억제할 수 없었다.

✒**않느(으)냐**→않으(느)냐 '않다'가 동사일 때는 '않느냐', 형용사일 때는 '않으냐'가 옳음

<보기>그것이 맞지 않느냐? 그것이 더 좋지 않으냐?

✒**어떻해**→어떡해(어떻게 해)

<보기>아유, 이걸 어떡해.

✒**자문(諮問)을 구하다. 자문을 받다**→자문을 하다. 의견을 묻다.

<보기>전문가에게 자문을 하다.

☞'자문(諮問)'은 어떤 사람이나 기업체나 정부 등이 어려운 일이나 문제를 잘 처리하거나 해결하고자 할 때, 그 방면의 전문가에게, 또는 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관이나 기구에 어떻게 해야 할지 의견을 묻는 것이므로 '자문을 하다'가 옳다.

✒수험생이 학교에 원서를 **접수하다**→제출하다 ☞원서를 접수하는 주체는 '학교'임

✒나 물 한 잔 **주라**→다오 '주다'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하되, 해라체의 명령형으로 쓰일 때에는 '다오'의 꼴로 바뀜

5.맞춤법

갸날픈ㅣ **가냘픈** ❖ 기본형이 '가냘프다'임

<보기>저 가냘픈 몸매로 무엇을 할꼬?

가랑이ㄴ **가랑이** ❖ 'ㅣ'모음 역행동화에 의한 발음은 인정하지 않음

<보기>뱁새가 황새걸음을 걸으면 가랑이가 찢어진다.

가리마ㄴ **가르마** ❖ '가르다'에서 파생

<보기>우리 할아버지의 가르마는 항상 반듯하셔.

가위표ㅣ 가새표 ❖ 틀린 것을 나타내거나 글자의 빠진 곳을 메우는 데 쓰는 기호는 가새표입=×

<보기>틀린 부분에 가새표 하세요.

가즌ㅣ **갖은** ❖ '갖+은'의 형태로 어간과 어미를 구별해서 적음

<보기>그는 갖은 고생을 하면서 돈을 모았다.

간ㄴ **칸** ❖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

<보기>방 두 칸에 부엌 한 칸

간질렀다 ㅣ **간질였다** ❖ 기본형이 '간질이다'이므로 'ㄹㄹ'로 적을 이유가 없음
<보기>친구의 옆구리를 간질였다.
강남콩 ㄴ **강낭콩** ❖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진 것을 인정함
<보기>강낭콩은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이다.
개구장이 ㅣ **개구쟁이** ❖ 기술자인 경우'-장이', 속성이나 사물을 착용하는 경우에는 '-쟁이'를 씀
<보기>지나치게 짓궂은 장난을 하는 아이를 개구쟁이라 한다.
개나리봇짐 ㅣ **괴나리봇짐** ❖ 끈늘이 봇짐>끈느리봇짐>끠느리봇짐>긔느리봇짐>괴나리봇짐
<보기>괴나리봇짐은 길을 떠날 때 보자기에 싸서 어깨에 메는 작은 짐을 말한다.
개발새발 ㄴ **괴발개발** ❖ 고양이(옛말-괴)의 발과 개의 발
<보기>괴발개발 쓴 글씨도 알아보네요.
개피 ㄴ **개비** ❖ 가늘게 쪼갠, 기름한 토막의 낱개
<보기>한 개비 담배로 나눠 피는 것이 전우애지.
계시판 ㄴ **게시판** ❖ 'ㅖ'발음에 따라 본음대로 표기함
<보기>게시판에는 유익한 정보가 참 많아.
고시레 ㅣ **고수레** ❖ '고시레'는 방언이므로 표준어인 '고수레'가 맞음
<보기>고수레는 야외에서 음식을 먹거나 무당이 굿을 할 때, 귀신에게 먼저 바친다는 뜻으로 음식을 조금 떼어 허공에 던지며 하는 소리이다.
곯병 ㅣ **골병** ❖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어원을 밝히지 않음
<보기>이렇게 매일 격무에 시달리다가 골병들겠다.
곱배기 ㄴ **곱빼기** ❖ '-빼기'는 된소리대로 적어야 함
공념불 ㅣ **공염불(空念佛)** ❖ '-염-'이 단어의 첫머리는 아니지만, 접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붙었으므로 'ㅇ'으로 적음
<보기>실천이나 내용이 따르지 않는 주장이나 선전이 공염불이다.
괴퍅(乖愎)하다 ㅣ **괴팍하다** ❖ 'ㅑ'가 단모음 'ㅏ'로 통일된 현상 '미류나무-미루나무/여늬-여느/으레-으레/케케묵다-케케묵다'도 같은 사례임
<보기>성격이 까다롭고 별난 것을 괴팍하다고 한다.
구데기 ㅣ **구더기** ❖ 파리의 애벌레는 구더기임
<보기>구더기 무서워 장 못 담글까의 뜻은 다소 방해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할 일은 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구렛나루 ㄴ **구레나룻** ❖ 귀밑에서 턱까지 연달아 난 수염
<보기>그의 귀밑에서 턱까지 난 구레나룻이 일품이야.
구비구비 ㄴ **굽이굽이** ❖ 어간에 '-이'가 붙어서 부사로 된 경우
<보기>굽이굽이 흐르는 강물을 보아라.
구태어 ㅣ **구태여** ❖ 어원상 '굳+희+어'의 형태이며, '어'가 '희'의 영향으로 '여'로 바뀜
<보기>네가 좋다면 구태여 말리지 않겠다.
굼뱅이 ㄴ **굼벵이** ❖ 매미의 애벌레
<보기>굼벵이도 떨어지는 재주가 있다.
귀띰(틤) ㅣ 귀띔 ❖ 귀띔은 어떤 일이나 사실을 눈치로 알아차릴 수 있도록 미리 슬쩍 말하여 일깨워준다는 의미임
<보기>선뵈는 자리라고 귀띔이라도 해 줬어야지, 내 꼴이 이게 뭔가?

귀먹어리 ㄴ **귀머거리** ❖ '귀먹다'에 '-어리'(명사화 접미사)가 붙은 형태
<보기>귀머거리 삼 년이요 벙어리 삼 년이라.
귀멀다 ㅣ **귀먹다** ❖ '귀먹다'는 귀가 전혀 들리지 않거나 잘 들리지 않는다는 뜻임
<보기>할머니는 귀먹어서 잘 듣지 못한다.
귀대기 ㄴ **귀때기** ❖ '-때기'는 된소리대로 적어야 하는 접미사
<보기>귀때기는 귀를 비속하게 이르는 말이다.
귀절 ㅣ **구절** ❖ '문구(文句)'와 같이 '귀'를 '구'로 통일함
<보기>책을 읽다가 좋은 구절이 있으면 밑줄을 쳐 놓아라.
기여히 ㄴ **기어이** ❖ '기어(期於)+ 이'의 형태
<보기>그는 힘든 상황에서도 기어이 자기의 꿈을 이룬다.
김치찌게 ㅣ **김치찌개** ❖ '찌다'에 명사화접사 '-개'가 붙은 형태임
<보기>김치찌개의 얼큰한 맛이 그립다.
꺼꾸로 ㄴ **거꾸로** ❖ '거'는 '꺼'가 아니라 '거'로 발음되고 있음
<보기>입장을 바꾸어 거꾸로 생각해 봐라.
꺼림직하다 ㅣ **꺼림칙하다** ❖ 꺼림칙하다는 어떤 일이 내키지 않거나 개운치 않은 데가 있다는 뜻임
<보기>애를 혼자 두고 나온 게 꺼림칙하다.
꼬갈 ㄴ **고깔** ❖ 잘못된 된소리 표기는 인정하지 않고 원래 형태대로 씀
<보기>고깔은 베 조각으로 만든, 중이 쓰는 건(巾)의 한 가지다.
끄나불 ㄴ **끄나풀** ❖ 거센소리가 표준어로 인정된 경우
<보기>끄나풀은 길지 않은 끈의 나부랭이나 남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사람을 욕으로 이르는 말이다.
끼여들기 ㅣ **끼어들기** ❖ '끼어들다'의 어간 '끼어들'에 명사형 어미 '-기'가 붙은 형태
<보기>운전 중 갑자기 끼어들기를 하면 아주 위험하다.]
나무랬다 ㅣ **나무랐다** ❖ 기본형이 '나무라다'이므로 'ㅏ'가 'ㅐ'로 바뀔 이유가 없음
<보기>학생들의 무례한 행동을 점잖게 나무랐다.
나흘날 ㅣ **나흗날** ❖ 끝소리 'ㄹ'이 'ㄷ'으로 소리나는 것을 반영함
<보기>열 나흗날 밤의 달빛도 교교하다.
낚씨 ㅣ 낚시 ❖ 발음은 '낙씨'로 나더라도 표기에는 반영하지 않음
<보기>이곳은 낚시 금지 구역입니다.
낚지 ㅣ 낙지 ❖ 발음이 '낙찌'로 나더라도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보기>낙지는 위험이 있을 때 먹물을 뿜고 도망친다.
날라가는 ㅣ **날아가는** ❖ 기본형이 '날아가다'이므로 'ㄹ'을 덧붙여 'ㄹㄹ'로 적을 이유가 없음
<보기>서쪽 하늘로 날아가는 기러기 떼를 보아라.
날자 ㄴ **날짜** ❖ 날짜의 '짜'는 글자의 '자(字)'와는 달리 순 우리말임
<보기>이사하려면 아직 날짜가 남아 있다.
남비 ㅣ **냄비** ❖ 'ㅣ'모음 역행동화 현상은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내기'(서울내기/시골내기/신출내기/풋내기' 등의 경우에는 인정함
<보기>양은 냄비에 찌개를 끓였다.
낭떨어지 ㄴ **낭떠러지** ❖ 사어(死語)인 '낭'에 떨어지다의 어간이 '떨어지'를 소리나는 대로

적음

<보기>낭떠러지는 깎아지른 언덕의 뜻으로 한자로는 현애(懸崖)라고도 한다.

내노라하는 ㅣ **내로라하는** ❖ '내로라하다'는 '바로 나이로라 하고 자신하다'의 의미임

<보기>내로라하는 재계의 인사들이 한곳에 모였다.

넉넉치 ㅣ **넉넉지** ❖ '넉넉하+지'에서 '하'가 줄었으므로 '넉넉지'가 되어야 함 '거북지/생각건대/생각다 못해/깨끗지 않다/못지않다/섭섭지/익숙지'와 같은 용례임

<보기>자금이 넉넉지 못해 야단이다.

넉두리 ㄴ **넋두리** ❖ '넋'에 '두리'가 붙었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음

<보기>넋두리란 무당이 죽은 사람의 넋을 대신하거나 불평불만을 길게 늘어놓아 하소연하는 말이다.

널판지 ㅣ 널빤지 ❖ 판판하고 넓게 켠 나뭇조각은 널빤지임=널판자(板子)

<보기>집을 건축할 때 꼭 필요한 것이 널빤지이다.

노란자위 ㅣ 노른자위 ❖ 노른자위는 알의 둥글고 노란 부분이나 어떤 사물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뜻함

<보기>그 부서는 우리 회사의 노른자위에 속한다.

눈쌀 ㄳ **눈살** ❖ '눈+살'의 구조로 '살'의 의미가 살아 있으므로 '눈살'로 적어야 함

<보기>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추태

늙으막 ㅣ **늘그막** ❖ '늙+으막'의 형태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보기>그는 늘그막에 자식을 얻었다.

닥달해 ㅣ **닦달해** ❖ 기본형이 '닦달하다'임

<보기>그를 닦달해 보아도 소용없다.

더우기 ㄴ **더욱이** ❖ '더욱'에 '-이'가 붙은 경우이므로 원형을 밝힘

<보기>영수는 공부도 잘하지만 더욱이 운동은 더 잘한다.

돐 ㄴ **돌** ❖ '돌' 하나만 표준어로 인정함

<보기>돌은 어린아이가 난 날로부터 한 해가 된 날을 말한다.

덩쿨 ㅣ 넝쿨 ❖ '넝쿨/덩굴'만 표준어로 인정함

<보기>건물을 뒤덮은 담쟁이 넝쿨이 고색창연하다.

두루말이 ㅣ **두루마리** ❖ '두루말다'란 말이 없으므로 소리대로 적음

<보기>이 제품은 두루마리 형태로 원통형 포장재에 넣어 판매됩니다.

뒤차닥거리 ㄴ **뒤치다꺼리** ❖ '뒤+치다꺼리'의 형태로, 원래 형태대로 적음

<보기>뒤치다꺼리란 뒤에서 일을 수습하여 보살펴 주는 일을 뜻한다.

등살 ㅣ **등쌀** ❖ '등살'은 등에 있는 살을 말한다.

<보기>등쌀은 몹시 귀찮게 구는 짓을 뜻한다.

딱딱우리 ㄸ **딱따구리** ❖ '댓+더구리'에서 온 말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보기>딱따구리는 나무를 쪼는 새란 뜻으로 탁목조(啄木鳥)라고도 한다.

떡볶기 ㄴ **떡볶이** ❖ '-이'가 붙어 명사가 됐으므로 원형을 밝힘

<보기>떡볶기는 떡을 볶는 행위나 동작을 말한다.

또아리 ㄸ **똬리** ❖ 준말만을 표준어로 인정함

<보기>똬리를 받치고 물동이를 이어야 한다.

꼭같다 ㅣ **똑같다** ❖ 조금도 틀림없이 같다는 의미를 가진 말은 똑같다임

<보기>내 생각도 너와 똑같다.

마추어 ㅣ **맞추어** ❖ 양복을 '마추다'와 적당한 상태로 '맞추다'를 '맞추다'로 통일해서 사용함
<보기>문짝을 문틀에 끼웠다.
맹숭맹숭 ㅣ **맨송맨송** ❖ 술을 마시고도 취하지 않아 정신이 말짱한 상태는 맨송맨송임
<보기>아무리 마셔도 맨송맨송하니 어쩌지?
머릿말 ㄴ **머리말** ❖ '머리말'로 발음되므로 'ㅅ'을 받쳐 적지 않음
<보기>머리말을 보면 글을 쓴 동기가 나타나 있다.
멀지않아 ㅣ **머지않아** ❖ 'ㄹ'을 탈락시켜 발음하며 그대로 적음
<보기>머지않아 남북통일의 그 날이 올 거야!
멋장이 ㄴ **멋쟁이** ❖ 기술자(-장이)와는 달리, 생긴 모습을 뜻할 때는 '-쟁이'를 씀
<보기>멋쟁이는 멋있거나 멋을 부리는 사람을 의미한다.
멋적은 ㅣ **멋쩍은** ❖ 기본형 '멋쩍다'의 어간 '멋쩍'에 어미 '-은'이 붙은 형태
<보기>멋쩍은 듯 어색한 웃음을 지었다.
메꾼 ㅣ **메운** ❖ 구멍이나 빈 곳을 채우는 것은 '메우다'이며, '메꾸다'는 잘못된 말임
<보기>운동장을 가득 메운 관중들을 보라!
몇일 ㄴ **며칠** ❖ 어원이 분명하지 않으므로 어원을 밝히지 않음
<보기>그녀는 며칠 전부터 병으로 누워 있다.
몫돈 ㅣ **목돈** ❖ 비교적 큰 액수의 뭉칫돈은 목돈임
<보기>푼돈을 차곡차곡 모으면 목돈이 된다.
무우 ㄴ 무 ❖ 준말이 널리 쓰여 준말만을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
<보기>장마로 인해 배추와 무값이 올랐다.
무릎쓰고 ㅣ **무릅쓰고** ❖ 기본형 '무릅쓰다'의 어간 '무릅쓰'에 어미 '-고'가 붙은 형태
<보기>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잘못을 고백하다.
미다지 ㅣ **미닫이** ❖ 'ㄷ'이 'ㅈ'으로 소리나더라도 'ㄷ'으로 적음
<보기>미닫이는 문이나 창을 옆으로 밀어서 여는 방식이다.
미류나무 ㄷ **미루나무** ❖ 모음이 단순화한 형태를 표준어로 삼음
<보기>미루나무는 가로수뿐 아니라 젓가락, 성냥개비 등의 재료로도 널리 쓰인다.
미싯가루 ㄴ **미숫가루** ❖ 모음의 발음 변화를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임
<보기>미숫가루를 물에 타서 마시다.
바램 ㅣ **바람** ❖ '바라다'는 어떤 일이나 상태를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었으면 하고 생각하다의 뜻임
<보기>우리의 바람은 하루바삐 남북통일을 이룩하는 것이다.
반딧불 ㅣ **반딧불이** ❖ '반딧불'은 개똥벌레의 꽁무니에서 반짝이는 인(燐)의 불빛이고, '반딧불이'는 그 벌레임=개똥벌레, 반디
<보기>반딧불은 반딧불이의 꽁무니에서 발하는 빛이다.
반짓고리 ㄴ **반짇고리** ❖ '바느질'의 'ㄹ'이 'ㄷ'으로 소리나는 경우임
<보기>반짇고리는 바늘・실・골무 등을 담는 그릇이다.
발자욱 ㄷ **발자국** ❖ '발+자국'의 구조임
<보기>'자욱'은 '자국'의 잘못된 표기이므로 발자국이 맞는 표기이다.
백분률 ㅣ **백분율(百分率)** ❖ 모음이나 'ㄴ' 받침 아래의 '렬'이나 '률'은 각각 '열'과 '율'로 표기함 '선율/나열/비열/비율/실패율/진열' 등이 같은 용례임

<보기>석차 백분율로 계산해 봐!

벌거지ㅣ **벌레** ❖ '벌레/버러지'가 표준어임

<보기>채소를 돌보지 않았더니 벌레가 극성이다.

법썩ㅣ **법석** ❖ 'ㅂ' 뒤에 나는 된소리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음

<보기>법석은 소리를 내어 시끌시끌하게 떠드는 일을 말한다.

베게ㄴ **베개** ❖ '베+개'의 구조로, '-개'는 '사람, 간단한 도구'를 뜻하는 접사임

<보기>베개는 너무 푹신하거나 딱딱한 것은 피해야 한다.

볼쌍사나운ㅣ 볼썽사나운 ❖ 볼썽사납다는 어떤 모습이나 행동이 보기에 역겹거나 언짢다는 뜻임

<보기>그는 길거리에서 추태를 부리며 볼썽사납게 굴었다.

비게ㅣ **비계** ❖ 'ㅖ'는 'ㅔ'로 소리나더라도 'ㅖ'로 적음

<보기>살가죽과 살코기 사이에 끼어 있는 기름부분이 비계다.

비로서ㄴ **비로소** ❖ '비롯+오(부사화 접사)'가 붙은 형태임

<보기>사람들은 그 음악가의 위대함을 그가 죽은 다음에야 비로소 깨닫기 시작했다.

빛갈ㄱ **빛깔** ❖ '빛+깔'의 형태로 '-깔'은 된소리로 적어야 하는 접미사임

<보기>식용 버섯과는 달리 독버섯은 빛깔이 매우 곱다.

삭월세ㄴ **사글세** ❖ 어원 '삭월세(朔月貰)'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진 것을 인정함

<보기>사글세는 집이나 방을 빌려 쓰는 값으로 다달이 내는 세를 말한다.

살림사리ㄱ **살림살이** ❖ '살림살+이'의 형태로 원형을 밝혀 적음

<보기>그녀의 살림살이에 쪼들린 얼굴

삵쾡이ㅣ **살쾡이** ❖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임

<보기>살쾡이는 주로 밤에 나와 닭 등을 잡아먹는다.

삼가해ㅣ **삼가** ❖ 기본형 '삼가다'의 어간은 '삼가'임

<보기>실내에서는 흡연을 삼가 주세요.

산수갑산ㅣ **삼수갑산(三水甲山)** ❖ 유명한 귀양지였던 삼수(三水)와 갑산(甲山)을 합친 말로 어떤 결심을 단단히 하는 문맥에서, 무릅쓰거나 각오해야 할 최악의 상황을 kd조하여 이르는 말

<보기>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내 권리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상치ㅣ **상추** ❖ 'ㅣ'가 'ㅜ'로 바뀐 것을 표준어로 인정함

<보기>한 번 잘못을 저지르면 늘 지탄을 받는 속담은 '상추 밭에 똥 싼 개는 늘 저 개 한다.'이다.

삿바ㅣ **샅바** ❖ '사타구니에 감는 줄'이란 뜻이므로 '샅+바'임

<보기>씨름에서는 샅바 싸움이 중요하다.

새벽넉ㅣ **새벽녘** ❖ 거센소리를 표준어로 인정한 경우임

<보기>새벽녘에 뜨는 별을 샛별이라고 한다.

생각컨대ㅣ **생각건대** ❖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엔 준 대로 적음

<보기>생각건대 후회되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새앙쥐ㅣ **생쥐** ❖ 본말을 버리고 준말을 표준어로 인정함

<보기>먹을 것이 없고 살림살이가 몹시 궁한 것을 생쥐 볼가심(입가심)할 것도 없다고 한다.

서슴치ㅣ **서슴지** ❖ 기본형 '서슴다'의 어간 '서슴'에 어미 '-지'가 붙은 형태

<보기>서슴지 말고 네 생각을 말해 보아라.

설겆이 ㅣ **설거지** ❖ '설겆다'는 말이 사라졌으므로 원형을 밝혀 적지 않음

<보기>이제 남자도 설거지는 기본이다.

설농탕 ㅣ **설렁탕** ❖ 어원에서 멀어진 형태로 굳어진 경우를 인정함

<보기>설렁탕은 소의 머리나 내장 등을 고아서 밥을 만 국이다.

설레이다ㅣ 설레다 ❖ '설레이다'는 시적 표현이나 기본형은 '설레다'임

성대묘사 ㅣ **성대모사(聲帶模寫)** ❖ 다른 사람의 목소리 따위를 흉내 내는 일

<보기>그는 성대모사의 달인이다.

소백이 ㅣ **소박이** ❖ 'ㅣ'모음 역행동화는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보기>여름에 먹는 오이소박이는 일품이다.

쇠조각 ㅣ **쇳조각** ❖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 표기가 아닌데도 된소리로 발음될 경우, 'ㅅ'을 받쳐 적음 '귓밥/부싯돌/콧병/텃세/혓바늘/뱃병/아랫방'과 같은 용례임

<보기>쇳조각은 조각난 쇠붙이를 일컫는다.

수근거리지 ㅣ **수군거리지** ❖ 남이 알아듣지 못하도록 낮은 목소리로 연하여 가만히 말하는 것을 '수군거리다'고 말함

<보기>무슨 일이 생겼는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다.

쌍둥이 ㅣ **쌍둥이** ❖ 모음조화를 깨고 '-둥이'가 표준어로 인정됨

<보기>우리가 모이는 곳은 쌍둥이 빌딩 뒤편이다.

씁슬해 ㅣ **씁쓸해** ❖ 기본형이 '씁쓸하다'임

<보기>그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아래집 ㅣ **아랫집** ❖ 뒷말의 '-집'이 '찝'으로 발음되므로 사이시옷을 받쳐 적음 '자릿세'도 같은 용례임

<보기>아랫집에 가서 삽 좀 빌려 오너라.

아뭏든 ㅣ **아무튼** ❖ 소리나는 대로 적는 부사에 해당됨

<보기>아무튼 이번 한 번만은 더 그를 믿어 봅시다.

안성마춤 ㅣ **안성맞춤** ❖ 뜻을 구별하여 쓰던 말을 한 가지로 통일함

<보기>날씨가 등산 가기엔 안성맞춤이군.

안절부절하며 ㅣ **안절부절못하며** ❖ '안절부절하다'라는 말은 없으며, '안절부절못하다'는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다는 뜻임

<보기>그는 아들이 수술을 받는 동안 안절부절못하고 복도를 서성거렸다.

애닯은 ㅣ **애달픈** ❖ '애닯다'는 사어(死語)이며, 어떤 일이 안타깝도록 마음이 쓰리고 아프다는 '애달프다'임

<보기>독자 소식란에는 각자 애달픈 사연이 있다.

야밤도주 ㅣ **야반도주(夜半逃走)** ❖ 사람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함

<보기>연놈이 눈이 맞아 야반도주를 했다.

얕으막한 ㅣ 야트막한 ❖ 원형이 '얕+으막'이지만 원형을 밝히지 않음

<보기>천장이 야트막하니 조심해라.

얼키게 ㅣ **얽히게** ❖ '얽다'의 피동사인 '얽히다'는 얽혀 들어가다, 관련되다의 뜻임

<보기>사건이 묘하게 얽혔다.

여지껏 ㅣ **여태껏** ❖ '여태껏/이제껏/입때껏'만 표준어로 인정함

<보기>여태껏 놀다가 이제야 숙제를 하니?

예사일 ㅣ **예삿일** ❖ 합성어 '예사+ 일'에서 'ㄴㄴ'소리가 덧남
<보기>강물이 시커멓게 석어 가고 있으니 이건 예삿일이 아니다.
옛부터 ㅣ **예부터** ❖ '옛'은 관형사이므로 뒤에 조사가 올 수 없다.
<보기>예부터 물 맑고 공기 좋은 고장이었지.
오지랍 ㅣ **오지랖** ❖ 오지랖은 웃옷이나 윗도리의 앞자락을 뜻하는 말임
<보기>그는 오지랖이 넓어 안 끼는 데가 없다.
오뚜기 ㅣ **오뚝이** ❖ '오뚝하다'에 '-이'가 붙어 명사된 경우임
<보기>오뚝이는 아무렇게나 굴려도 일어나는 어린이 장남감이다.
오랫만에 ㅣ **오랜만에** ❖ '오래간만'의 준말
<보기>참 오랜만에 만나는군!
오랜동안 ㅣ **오랫동안** ❖ '오래+ ㅅ+ 동안'의 형태로 사이시옷을 살려서 표기함
<보기>오랫동안은 시간적으로 썩 긴 동안을 뜻한다.
옴쭉달싹 ㅣ **옴짝달싹** ❖ 옴짝달싹은 몸을 조금 움직이는 모양을 말하나 주로 부정어와 호응함
<보기>밧줄에 몸이 묶여 옴짝달싹할 수가 없다.
요컨데 ㅣ **요컨대** ❖ '요+ 하건대'의 준말이 '요컨대'임
<보기>사랑이란 요컨대 아낌없이 주는 것이다.
육계장 ㅣ 육개장 ❖ '개장국'을 뜻하는 '개장' 앞에 육(肉)이 붙은 형태임
<보기>육개장은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음식 중의 하나다.
우뢰 ㅣ **우레** ❖ '우레/천둥'이 표준어임. 옛말 '울게'에서 'ㄱ'이 탈락되고 이어적기가 된 말
<보기>관객은 훌륭한 연기에 우레 같은 박수를 보내 주었다.
으례 ㅣ **으레** ❖ '으레'란 '두말할 것도 없이 당연히'란 뜻을 가진 순 우리말이다.
<보기>그 애는 나갔다 오면 으레 엄마를 찾는다.
있아오니 ㅣ **있사오니** ❖ '있소'와 같이 발음되는 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는 형태
<보기>잘 있사오니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재털이 ㅣ **재떨이** ❖ 달리거나 붙은 것을 흔들거나 충격을 가하여 떨어지게 하는 것은 떨다임
<보기>재떨이에 꽁초가 수죽이 쌓였다.
저으기 ㅣ **적이** ❖ 원형에 더 가까운 형태인 '적이'를 표준어로 봄
<보기>적이는 '꽤, 어지간히'란 뜻으로 '뜻밖의 질문에 적이 당황하다'와 같이 쓰인다.
전세집 ㅣ **전셋집** ❖ '전세+ 집'에서 뒷말이 된소리로 발음됨
<보기>최근 전셋집을 찾는 사람이 많이 늘었다.
절대절명 ㅣ **절체절명(絶體絶命)** ❖ 몸도 목숨도 다 된 것이란 뜻으로 몹시 위태롭거나 급박한 지경
<보기>부패의 척결과 사회 개혁은 절체절명의 사회적 요청이다.
집게 ㅣ **집개** ❖ '-게'가 붙는 말은 '집게'와 '지게'이며 나머지는 모두 '-개'임
<보기>환경정화 봉사활동을 위해서는 집개를 준비해야 합니다.
주십시요. ㅣ **주십시오.** ❖ 종결형 어미는 '-요'가 아니라 '-오'임
<보기>공사 중이니 돌아가 주십시오.
짜집기 ㅣ **짜깁기** ❖ '짜+ 깁+ 기'의 구조임

<보기>짜깁기는 모직물의 찢어진 데를 그 감의 올로 짜서 본디대로 깁는 것을 말한다.

천정 | **천장** ❖ 지붕의 안쪽을 일컫는 말은 천장(天障)임

<보기>고구려 고분에는 연꽃무늬가 천장 군데군데 그려져 있다.

촛점 | **초점** ❖ 한자어+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이 들어가는 말은 6개(곳간/셋방/숫자/찻간/툇간/횟수)뿐임

<보기>

칼치 | **갈치** ❖ '칼치'는 '갈치'의 표준어임

<보기>친한 사이 서로 모함하는 것을 갈치가 갈치 꼬리 문다고 한다.

꼬린내 | 코린내 ❖ '코리다'는 '고리다'(썩은 풀이나 썩은 달걀 냄새 같다)의 거센말임

<보기>발 코린내가 너무 심하다.

콧배기 | **코빼기** ❖ '-빼기'는 된소리로 적어야 하는 접미사 중의 하나임

<보기>도무지 나타나지 않아 전혀 볼 수 없을 때, 코빼기도 볼 수 없다고 말한다.

통채 | **통째** ❖ '통째'는 나누지 않은 덩어리 전부를 의미한다.

<보기>우리는 1910년에 국권을 통째로 빼앗기고 말았다.

평양감사 | **평안감사** ❖ 평양은 도가 아니므로 감사가 있을 수 없고, 평안은 '평안도'의 준말임

<보기>평안 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이다.

티격티격 | 티격태격 ❖ 티격태격은 서로 뜻이 맞지 않아 이러니저러니 시비를 따지는 모양을 이름

<보기>그 둘은 의견이 서로 달라 티격태격 싸웠다.

풍지박산 | **풍비박산(風飛雹散)** ❖ 바람을 타고 사방으로 날아 흩어지고 우박처럼 깨어져 조각조각 부서짐

<보기>게릴라가 국군에게 소탕을 당하여 풍비박산 흩어졌다.

핑게 | **핑계** ❖ 'ㅖ'는 'ㅔ'로 발음되는 경우가 있어도 'ㅖ'로 적음

<보기>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는 속담은 여러 가지 구실을 내세워 변명하려는 행동을 이르는 말이다.

하니바람 | **하늬바람** ❖ 'l'로 발음되더라도 '의'로 적어야 한다.

<보기>우리 선조들은 서풍을 하늬바람이라고 불렀다.

하마트면 | **하마터면** ❖ 소리나는 대로 적는 부사에 해당됨

<보기>하마타면 그는 차에 치일 뻔했다.

핥짝핥짝 | **할짝할짝** ❖ 겹받침의 끝소리인 'ㅌ'이 드러나지 않음

<보기>할짝할짝은 혀끝으로 잇달아 조금씩 가분가분 핥는 것을 말한다.

해꼬지 | 해(害)코지 ❖ 남을 해하고자 하는 짓

<보기>남을 해코지하려는 사람은 오히려 앙갚음을 당한다.

햇님 | **해님** ❖ '해님'이 표준말음이므로 사이시옷을 넣지 않음

<보기>해님은 해를 인격화하여 다정하게 이르는 말이다.

햇쌀 | **햅쌀** ❖ '해+쌀' 구조이며, '쌀'에서 'ㅂ'소리가 덧나고 있음

<보기>햅쌀은 그해에 수확한 쌀을 말한다.

호도 | **호두** ❖ '호도(胡桃)'가 '호두'로 발음이 굳어져 표준어로 인정함

<보기>천안 호두과자는 특산물로 유명하다.

홀홀단신 | **혈혈단신(孑孑單身)** ❖ 어디 한군데 의지할 곳 없는 외로운 홀몸

<보기>일점혈육도 없이 혈혈단신으로 살아가다.

후일ㅣ **훗일** ❖ 'ㄴㄴ' 소리가 덧나고 있으므로 'ㅅ'을 받쳐 적음

<보기>훗일은 뒷일을 의미한다.

휴계실ㅣ **휴게실** ❖ 본음이 휴게실(休憩室)이므로 본음대로 적어야 함

<보기>휴게실은 잠깐 동안 머물러 쉬도록 마련한 장소를 말한다.

험집ㅣ **흠집** ❖ 흠이 있는 자리나 흔적을 흠집이라 함

<보기>표면에 특수도장처리를 해서 웬만해선 흠집이 나지 않는다.

희노애락ㅣ **희로애락** ❖ 발음되는 대로 적음

<보기>인생은 희로애락의 연속이다.

6.관용어(慣用語)

▶가면을 벗다 - 본심이나 참모습을 드러내다.

가면(假面)-얼굴을 변장하거나 분장하거나 보호하기 위해 얼굴에 덮어쓰는 물건

<보기>이제 그만 가면을 벗고 솔직해져라.

▶가슴에 새기다 - 잊지 않도록 단단히 기억하다.

<보기>내 말을 꼭 가슴에 새겨 둬라.

▶가슴이 미어지다 - 슬픔, 고통 때문에 마음이 괴롭다.

<보기>엄마 생각에 가슴이 미어진다.

▶각광을 받다 - 사회적 관심이나 많은 사람들의 흥미, 주목을 받다.

각광(脚光)-연극에서 무대의 앞쪽 아래에 장치하여 배우를 비추는 조명

<보기>우리 상품이 세계시장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

▶각축을 벌이다 - 이기기 위해 맞서서 경쟁하다.

각축(角逐)-서로 이기려고 다투는 것

<보기>각축을 벌이는 선수들의 모습에 관중들이 열광한다.

▶간담이 서늘하다 - 몹시 놀라서 마음이 섬뜩해지다.

간담(肝膽)-간과 쓸개, 속마음을 비유적으로 이름

<보기>공포 영화를 보니 간담이 서늘해졌다.

▶간이 부었다 - 분수에 넘는 행동을 하거나 겁 없이 무모한 짓을 하다.

간-간의 비정상적인 상태를 빗대어 무모함이나 어리석음을 힐난조로 이름

<보기>이 친구 간이 부었군! 자네 월급이 얼만데 그런 고급 승용차를 산단 말인가?

▶간장을 태우다 - 조바심이나 걱정 때문에 안절부절못하다.

<보기>그녀가 나의 간장을 태운다.

▶갈피를 못 잡다 - 일이나 사물의 갈래를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다.

갈피-일의 갈래가 구별되는 어름

<보기>일이 많아 무엇부터 해야 할지 갈피를 못 잡겠다.

▶경을 치다 - 심한 형벌이나 문책을 내리다.

ㄴ경(黥)-죄인의 이마나 팔뚝 등에 먹물로 죄명을 찍어 놓던 형벌

<보기>상놈 주제에 감히 양반 아녀자를 넘보다니, 이런 경을 칠 놈

▶건몸이 달다 - 이유 없이 혼자서만 애쓰며 안달하다.

건몸-공연히 혼자서 애쓰며 몸이 다는 일

<보기>누나는 혼자 건몸이 달았다.

▶**걸신(이) 들리다** - 굶주려 음식에 대한 욕심이 몹시 나다.

걸신(乞神)-빌어먹는 귀신-염치없이 지나친 식탐을 부림

▶**경종을 울리다** - 잘못이나 위험을 경계할 수 있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다.

경종(警鐘)-위급한 일이나 비상사태를 알리는 종이나 사이렌

<보기>안전 불감증에 경종을 울리는 사건이었다.

▶**골탕을 먹다** - 한꺼번에 크게 손해를 입거나 낭패를 당하다.

골탕-되게 당하는 손해나 낭패

<보기>그는 개구쟁이 동생 때문에 늘 골탕을 먹는다.

▶**귀가 밝다** - 정보에 빠르다.

<보기>귀가 밝으면 정보 사회인 현대를 살아가는 데 유리할 것이다.

▶**귓등으로 듣다** - 들은 척 만 척하다.

<보기>귓등으로 듣지 말고 주의해서 들어라.

▶**귀가 여리다** - 남의 말을 그대로 믿어버리다.

<보기>그는 귀가 여려서 아무 말이나 믿는다.

▶**귀에 못이 박히다** - 같은 말을 여러 번 듣다.

못-살가죽이 무엇에 스치거나 압박으로 두껍게 된 자리

<보기>그 말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다.

▶**귀추가 주목된다** - 많은 사람들이 일이 되어가는 형편이나 결과를 궁금해 하다.

귀추(歸趨)-사람의 마음이나 사물의 돌아가는 형편

<보기>과연 미래의 운명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구색을 맞추다** - 여러 가지를 골고루 갖추어 놓다.

구색(具色)-벌여 놓은 여러 가지 물건이 골고루 또는 빠짐없이 갖추어진 상태

<보기>전집에서 그거 한 권이 빠져 버리면 구색이 안 맞아 팔 수가 없다.

▶**기(氣)가 막히다** - 몹시 어처구니없는 일을 당해 신체의 원동력인 '기(氣)'가 막혀서 잠시 움직일 수 없는 상태를 이르다.

<보기>너무 기가 막혀서 말도 안 나온다.

▶**김칫국을 마시다** - 남의 속도 모르고 제 짐작으로 지레 그렇게 될 것으로 믿고 행동하다.

<보기>관심도 없는 사람과 연애할 생각을 하다니 김칫국부터 마시는 격이군.

▶**꽁무니를 빼다** - 슬그머니 물러나다.

꽁무니-엉덩이를 중심으로 한 몸의 뒷부분

<보기>정세가 불리해지자 꽁무니를 빼기 시작했다.

▶**끕사리 끼다** - 다른 사람이 하는 일에 곁다리 끼다.

끕사리-남의 판에 거저 끼어드는 일

<보기>놀러 갈 때 나도 끕사리 끼자.

▶**난장을 맞다** - 마구 얻어맞을 만하다는 뜻으로, 몹시 못마땅하여 저주하다.

난장(亂杖)-신체의 부위를 가리지 않고 마구 치던 조선시대의 고문

<보기>이런 난장 맞을!

▶**날개가 돋치다** - 상품이 잘 팔려 나가다.

<보기>그 상품은 날개가 돋친 듯 팔려 나갔다.

▶**낯이 간지럽다** - 떳떳하지 못하여 말하거나, 듣거나, 보기에 거북하다.

낯-얼굴, 남을 대할 만한 체면
<보기>분수에 넘치는 칭찬을 들으니 낯이 간지럽군요.

▶**녹초가 되다** - 힘이나 기운이 떨어져 맥을 못 추다.
녹초-사람이 몹시 지치거나 기운을 잃거나 하여 몸을 가눌 수가 없을 정도가 된 상태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 - 몹시 예쁘다.
<보기>너무 귀여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

▶**눈에 밟히다** - 잊혀지지 않고 자꾸 생각나다.
<보기>그 어린 것이 눈에 밟혀서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다리품을 팔다** - 비교적 먼 거리를 걷는 수고를 하다.
다리품-사람이 비교적 먼 거리를 가거나 올 때 다리로 걷는 데 들이는 수고나 노력
<보기>싼 곳을 찾아 하루 종일 다리품을 팔았다.

▶**담을 쌓다** - 관계를 끊어 버리고 속마음을 터놓지 않다.
<보기>형제끼리 서로 담을 쌓고 지낸 지 벌써 수년째이다.

▶**덜미가 잡히다** - 못된 일을 꾸미다가 발각되다.
덜미-목의 뒷부분, 목덜미
<보기>흉계를 꾸미다가 덜미가 잡혔다.

▶**덤터기를 쓰다** - 큰 고민거리나 허물을 남에게 한꺼번에 떠맡게 되다.
덤터기-억울한 누명이나 터무니없는 곤경이나 공연한 걱정거리

▶**동티가 나다** - 공연히 건드려서 스스로 걱정이나 해를 입다.
동티-민속 신앙에서 신의 노여움이나 재앙
<보기>서낭당을 헐어 버린 뒤 마을에 동티나 났다.

▶**들통이 나다**-비밀이 드러나다.
들통-숨긴 일이 드러난 판국
<보기> 너 때문에 다 들통 났다.

▶**등골이 빠지다** - 견디기 어려운 정도로 힘들다.
<보기>등골이 바지게 일해 봐야 소용이 없다.

▶**등을 돌리다** - 뜻을 같이 하던 사람이 관계를 끊고 상대를 멀리하다.
<보기>동업자들이 모두 등을 돌려 혼자 남았다.

▶**딴전을 피우다(부리다)** - 하고자 하던 일을 제쳐두고 오히려 다른 일에 더 매달리다.
딴전(청)-앞에 놓인 일과는 전혀 관계없는 일이나 짓
<보기>일을 저질러 놓고 딴전을 부리다.

▶**딴죽 걸다** - 동의하였던 일을 딴전을 부려서 어기다.
딴죽-태껸, 씨름에서 발로 상대방의 다리를 옆으로 치거나 끌어당겨서 넘어뜨리는 기술
<보기>동생이 자꾸 딴죽을 걸어 놀러 갈 곳을 정하지 못했다.

▶**된서리를 맞다**-몹시 심한 꼴이나 타격을 받다.
된서리-늦가을에 아주 되게 내리는 서리
<보기>부동산 업계가 된서리를 맞았다.

▶**떼어 놓은 당상**-어떤 일이 확실하여 틀림없이 계획대로 진행될 것임을 믿다.
당상(堂上)-조선시대 정3품 이상의 벼슬을 통칭하여 이름
<보기>그 사람을 영입한다면 올해 우승은 떼어 놓은 당상이야.

▶**뚱딴지 같다** - 행동이나 사고방식 따위가 너무 엉뚱하다.

뚱딴지-우둔하고 무뚝뚝한 사람, 볼품없는 돼지감자
<보기>가끔가다 그 사람은 뚱딴지같은 소리를 한다.

▶**마가 들(끼)다** - 일에 훼방을 놓거나 장애가 생기다.
마(魔)-짓궂게 훼방하거나 재앙을 가져오는 것
<보기>마가 끼었는지 최근 그가 벌인 사업은 모두 실패하였다.

▶**막간을 이용하다** - 어떤 일을 하다가 잠시 짬을 내어 다른 일을 하다.
막간(幕間)-연극 상연 도중에 막과 막 사이에 잠시 쉬는 시간
<보기>막간을 이용하여 우리 선생님의 노래를 들어보겠습니다.

▶**머리가 굵다(크다)** - 성인이 되다. 성장하다.
<보기>머리가 굵은 자식을 맘대로 할 수 있어?

▶**맥을 못 추다** - 기운이나 힘을 전혀 못 쓰다.
<보기>그는 여자 앞에만 서면 맥을 못 춘다니까.

▶**멍에를 짊어지다** - 마음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얽어매다.
멍에-마소의 목에 얹어 수레나 쟁기를 끌게 하는 둥그렇게 구부러진 막대
<보기>그는 가장이라는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명암이 엇갈리다** -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교차하다.
<보기>승자와 패자 간에 명암이 엇갈렸다.

▶**모골이 송연하다** - 끔찍스러워 털이 곤두서고 온몸이 오싹해지다.
모골(毛骨)-털과 뼈. 송연(悚然)-두려워서 몸이 옹그림
<보기>귀신이 튀어나오는 장면에 모골이 송연했다.

▶**목구멍에 풀칠하다** - 굶지 않고 겨우 먹고 살아가다.
<보기>목구멍에 풀칠할 방도가 없다.

▶**몸이 달다** - 마음이 조급하여 안타까워하다.
<보기>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이 저 혼자 몸이 달아 있다.

▶**물꼬를 트다** - 막히거나 끊어진 관계를 열거나 잇는 실마리를 풀다.
물꼬-논에 물이 넘나들도록 만든 좁은 어귀
<보기>이 합의는 남북 관계의 물꼬를 트는 획기적인 조치이다.

▶**미역국을 먹다** - 시험에 떨어지거나 직위에서 밀려나다.
<보기>일류대에 지망했다가 미역국을 먹었다.

▶**바가지를 쓰다** - 요금이나 물건값을 치르는 데 억울한 손해를 보다.
<보기>올 여름에도 업주들은 바가지를 씌울 게다.

▶**바람이 들다** - 허황된 생각 때문에 마음이 들뜨다.
<보기>처녀 가슴에 바람이 잔뜩 들었다.

▶**박차를 가하다** - 일이 빨리 성사되도록 힘과 열의를 더하다.
박차(拍車)-승마용 구두의 뒤꿈치에 톱니바퀴 모양의, 쇠로 만든 물건
<보기>마지막으로 박차를 가해 봅시다.

▶**발이 넓다** - 사귀거나 아는 사람이 많고 활동 범위가 넓다.
<보기>발이 넓은 그에게 도움을 청해 봐야겠다.

▶**발을 끊다** - 왕래나 관계를 끊다.
<보기>그가 드디어 술집에 발을 끊고 가정에 충실했다.

▶**밤이슬을 맞다** - 밤늦게 돌아다니거나 도둑질을 하러 다니다.

<보기>밤이슬 맞는 놈

▶**배꼽을 잡다** - 폭소를 참지 못해 배를 움켜쥐고 웃다.

<보기>배꼽을 잡고 웃었다.

▶**배를 채우다** - 재물이나 이득을 많이 차지하여 욕심을 채우다.

<보기>주위 사람들의 어려움을 모른 체하고 자신의 배만 채우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배알(밸)이 꼬이다(뒤틀리다)** - 어떤 사람이 하는 행동이나 일이 비위에 맞지 않아 눈꼴이 사납게 느껴지거나 비위가 거슬려 아니꼽다.

배알-'창자'를 이르는 순우리말. 속마음

<보기>그 사람 거들먹대는 거, 정말 배알이 꼬여서 못 봐 주겠더라구.

▶**변죽을 울리다** -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에둘러서 말하다.

변(邊)죽-그릇, 세간 따위의 가장자리

<보기>이제 변죽을 그만 울리고 하고 싶은 말을 해 봐.

▶**복장이 터지다** - 몹시 답답하다.

복장(腹臟)-가슴 한복판

<보기>저렇게 잠만 자고 있는 꼴을 보자니 복장이 터져 죽겠다.

▶**붓을 꺾다** - 문필 생활을 그만두다. =절필하다. 붓을 놓다.

<보기>샘솟던 창작의 열정이 사그라지자 시인은 붓을 꺾어 버렸다.

▶**뼈를 깎다** - 갖은 고생을 다하거나 견디기 힘들 만큼 고통스럽다.

<보기>뼈를 깎는 노력 끝에 그는 마침내 세계 챔피언이 되었다.

▶**비위가 좋다** - 아니꼽거나 싫은 일을 잘 견디는 힘이 있다.

비위(脾胃)-지라와 위. 어떤 음식을 먹었을 때 입에 맞거나 맞지 않는 느낌의 상태. 어떤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 기분이 좋아지거나 언짢아지는 느낌의 상태

▶**비위를 맞추다** - 남의 마음에 맞도록 말이나 행동을 꾸미다.

<보기>부장님 비위를 맞추지 못하면 사무실 분위기가 엉망이 된다.

▶**뼈에 사무치다** - 원한이나 고통 따위가 뼛속까지 맺힐 정도로 깊고 강렬하다.

<보기>나에게는 뼈에 사무치는 한이 있다.

▶**산통을 깨다** - 다 잘 되어 가던 일을 이루지 못하게 뒤튼다.

산통(算筒)-소경이 점치는 데 쓰는 산가지를 넣는 통

<보기>갑자기 끼어들어서는 산통을 다 깨 놓는군.

▶**삼수갑산을 가다** - 일이 매우 힘들게 되었거나 죽을 지경에 이르다.

삼수갑산(三水甲山)-조선시대의 귀양지인 함경남도의 삼수와 갑산 지방

<보기>나중에 삼수갑산을 가더라도 내 권리를 포기하지 않겠다.

▶**서슬이 (시)퍼렇다** - 권세, 기세 따위가 아주 대단하다.

서슬-쇠붙이 연장이나 유리 조각 증의 날카로운 부분. 어떤 결과의 원인이 되는 행동의 날카로운 기세

<보기>엄마가 서슬이 시퍼래서 언니를 찾았다.

▶**손사래를 치다** - 거절이나 부인의 뜻으로 손을 펴서 마구 휘젓다.

손사래-조용히 하라거나 어떤 일을 부인하려 할 때 손을 펴서 휘젓는 일

▶**손을 끊다** - 교제나 관계 따위를 그만두다.

<보기>그쪽과는 손을 끊은 지 한참이다.

▶**손이 뜨다** - 일하는 동작이 몹시 굼뜨다.

<보기>그렇게 손이 떠서야 언제 일을 마치냐?

▶**손이 맵다** - 일처리가 야무지거나 살짝만 때려도 몹시 아프다.

<보기>그는 손이 매워 친구들이 다 무서워한다.

▶**손이 크다** - 씀씀이가 후하고 크거나 수단이 많다.

<보기>손이 큰 어머니는 친구가 오면 언제나 음식을 푸짐하게 차리곤 하셨다.

▶**생사람을 잡다** - 아무런 잘못이나 관련이 없는 사람을 범인으로 몰다.

<보기>내가 언제 그랬어? 공연히 생사람 잡지 마라.

▶**수포로 돌아가다** - 애써 공들인 일이 헛되게 되다.

수포(水泡)-거품이나 작은 물방울

<보기>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다.

▶**시치미를 떼다** -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거나 하고도 하지 않은 척하다.

시치미-매의 임자를 표시하여 매의 꽁지 털 속에 매어둔 네모난 뿔

<보기>시치미 떼지 말고 누가 그랬는지 어서 말해!

▶**신물이 나다** - 몹시 귀찮고 지긋지긋한 느낌이 들다.

신물-먹은 것이 체하여 트림을 할 때 넘어오는 시척지근한 물

<보기>이제 시험이라면 생각만 해도 신물이 난다.

▶**심금을 울리다** - 어떤 말 · 글 · 작품 · 행동 등이 마음의 감동을 일으키다.

심금(心琴)-마음속의 거문고란 뜻으로 감동을 일으키는 마음속의 부분

<보기> 온 세상 사람들의 심금을 울렸던 감동의 드라마

▶**싹수가 노랗다** - 애초부터 발전 가능성이나 희망이 전혀 안 보인다.

싹수-어떤 일이나 사람이 장차 잘 될 것 같은 낌새나 조짐

<보기>행동을 보니 싹수가 노란 녀석이다.

▶**쐐기를 박다** - 뒤탈이 없도록 미리 단단히 다짐을 두다.

쐐기-물건의 틈에 박아서 사개가 물러나지 못하게 하거나 물건 사이를 벌리는 데 쓰이는 물건

<보기>그는 기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하겠다고 쐐기를 박았다.

▶**씨가 마르다** - 어떤 물건이나 생물이 완전히 없어져버리다.

<보기>요즘에는 돈이 씨가 말랐다.

▶**씨알머리가 없다** - 별다른 실속이 없거나 뚜렷한 주관이나 생각이 없다.

씨알머리-사람의 종자를 욕으로 이르는 말

<보기>씨알머리 없는 이야기는 이제 그만두고 어서 일을 해라.

▶**아귀가 맞다** - 앞뒤가 빈틈없이 맞물리다.

<보기>네 말은 아귀가 맞지 않는다.

▶**아퀴를 짓다** - 일을 마무리하다.

아퀴-일을 마무르는 끝매듭

<보기>이번에 가면 지난 번 그 일에 대해서는 단단히 아퀴를 짓고 오너라.

▶**알랑방귀를 뀌다** - 남에게 알랑거리며 아첨을 떨다.

알랑방귀-알랑거리는 짓을 속되게 이르는 말

<보기>그는 나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연신 알랑방귀를 뀌어 댔다.

▶**어깃장을 놓다**-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에 일부러 그에 어긋나는 말이나 행동을 하다.

어깃장-널문을 짤 때 널쪽에 맞추어서 띳장을 대고 못을 박은 뒤, 그 문짝이 일그러지지

않게 대각선으로 붙인 띳장

<보기>그는 뭐가 못마땅해서인지 삐딱하게 어깃장을 놓았다.

▶**어안이 벙벙하다** - 뜻밖에 놀랍거나 기막힌 일을 당하여 어리둥절하다.

어안-어이없어 말을 못하고 있는 혀 안

<보기>낯선 사내가 다짜고짜로 멱살을 잡자 청년은 영문을 몰라 어안이 벙벙했다.

▶**억장이 무너지다**-극심한 슬픔이나 절망 따위로 몹시 가슴이 아프고 괴롭다.

억장(億丈)-썩 높은 것

<보기>비명에 간 자식들을 생각하면 지금도 억장이 무너진다.

▶**영문을 모르다** - 일의 형편이나 돌아가는 상황을 모르다.

영문-까닭이나 형편

<보기>영문도 모른 채 따라나섰다.

▶**엉덩이가 구리다**-부정이나 잘못을 저질러 떳떳하지 못하다.

<보기>좋은 말로 할 때 엉덩이 구린 녀석들은 나와라!

▶**옆구리를 찌르다** - 비밀스럽게 어떤 신호를 보내다.

<보기>그는 말없이 옆구리를 찔렀다.

▶**오금이 저리다** - 자기의 잘못이 금방 탄로 나거나 재앙이 닥칠 것 같아 마음을 졸이다.

ㄴ오금-무릎의 구부러지는 안쪽의 오목한 부분

<보기>면접을 기다리는 동안에 오금이 저렸다.

▶**오금을 박다** - 상대의 허점을 집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도록 닦아 세우다.

<보기>김 시가 따끔하게 오금을 박자, 그녀는 입을 다물었다.

▶**오지랖이 넓다** - 주제넘게 아무 일에나 참견하다.

오지랖-웃옷이나 윗도리에 입는 겉옷의 앞자락

<보기>옆집 아줌마는 웬 오지랖이 그렇게 넓은지 벌써 우리 집 속내를 훤히 꿰고 있더라니까요.

▶**옷을 벗다** - 어떤 일을 하다가 그만두거나 맡고 있던 직위에서 물러나다.

<보기>이번 뇌물 수수 사건으로 많은 공무원들이 옷을 벗었다.

▶**이골이 나다** - 어떤 방면에 길이 들어서 아주 익숙해지거나 진벌머리가 나도록 오랫동안 일을 많이 해 오다.

이골-아주 길이 들어 몸에 밴 짓이나 버릇

<보기>김 씨는 노동판에서 잔뼈가 굵어 막일이라면 이골이 나 있다.

▶**이를 갈다** - 몹시 분하고 원통하여 상대편에게 독한 마음을 먹고 벼르다

<보기>날 배신하고 떠난 그 사람을 생각하면 이가 갈려 견딜 수가 없다.

▶**인구(人口)에 회자되다** - 여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다.

ㄴ회자(膾炙)-날고기와 구운 고기라는 뜻으로 널리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림

<보기>인구에 회자되는 김소월의 진달래꽃

▶**일침을 놓다** - 따끔한 충고나 매서운 지적을 하다.

일침(一鍼)-한 대의 침

<보기>그는 신문 칼럼에서 정부의 안이한 태도에 일침을 놓았다.

▶**입이 가볍다** - 경솔하게 떠들거나 비밀 따위를 쉽게 누설하다.

<보기>입이 가벼워 큰일을 맡길 수가 없다.

▶**입에 달고 다닌다** - 입만 떼면 그 말을 하다.

<보기>사촌형은 욕을 입에 달고 다닌다.

▶**입이 짧다** - 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

<보기>입이 짧아 밥을 께적께적 먹고 있다.

▶**입추의 여지(餘地)가 없다** - 송곳조차 세울 틈이 없을 정도로 사람이 많이 모여 빈 공간이 없다.

ㄴ입추(立錐)-송곳을 세움

▶**장사진을 이루다(치다)** - 많은 사람이 줄을 지어 길게 늘어서 있다.

ㄴ장사진(長蛇陣)-한 줄로 길게 벌인 군대의 진

<보기>명절 때가 되면 서울역은 귀성객으로 장사진을 이룬다.

▶**전철을 밟다** - 이전 사람의 실패나 잘못을 되풀이하다.

ㄴ전철(前轍)-앞에 지나간 수레바퀴 자국이란 뜻으로 이전 사람의 그릇된 일이나 행동의 자취

<보기>너는 실패를 거듭했던 네 형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 된다.

▶**젖비린내가 나다** - 말이나 행동이 아직 유치하고, 성숙하지 못한 태도나 기색을 보이다.

<보기>너처럼 젖비린내 나는 녀석 말고 제대로 된 놈을 데리고 나와.

▶**좀이 쑤시다** - 마음이 들뜨거나 초조하여 가만히 있지 못하다.

ㄴ좀-의류나 종이에 해를 입히는 해충

<보기>비보이인 그는 하루라도 춤을 추지 않으면 좀이 쑤신다고 한다.

▶**주눅이 들다** - 기가 꺾여서 기운을 펴지 못하고 위축되어 있다.

주눅-기를 펴지 못하고 움츠러드는 일

<보기>덩치 큰 사람들 앞이라 주눅이 들지 않을 수 없었다.

▶**죽 끓듯 하다** - 변덕이 몹시 심하다.

<보기>우리 누나는 변덕이 죽 끓듯 한다니까.

▶**죽을 쑤다** - 어떤 일을 망치거나 실패하다.

<보기>이번 시험에도 죽을 쒀 버렸다.

▶**줄행랑을 치다** - 낌새를 치고 피하여 달아나다.

줄행랑-대문 좌우로 죽 벌여 있는 행랑, 도망을 속되게 이르는 말

▶**직성이 풀리다** - 제 성미대로 하여 마음이 풀리다.

ㄴ직성(直星)-타고난 성질이나 성미

<보기>할 말을 다하고 나니 이제 좀 직성이 풀리는가?

▶**진을 치다** - 자리를 차지하고 들어앉다.

진(陣)-군사들의 대오를 배치함

<보기>기자들이 새벽부터 진을 치고 있다.

▶**찬물을 끼얹다** - 잘되어 가고 있는 일에 분위기를 흐리거나 공연히 트집을 잡아 훼방을 놓다.

<보기>일이 겨우 마무리되어 가려고 할 때 그가 나타나 찬물을 끼얹었다.

▶**철퇴를 가하다** - 엄한 벌을 내리거나 크나큰 타격을 주다.

철퇴(鐵槌)-끝이 둥글고 울퉁불퉁하여 적을 죽이는 게 쓰이는 쇠몽둥이

<보기>유흥업소 주변의 폭력범들에게 철퇴를 가하다.

▶**초(를) 치다** - 엉뚱하거나 공연한 말이나 행동을 하여 분위기를 망치다.

초-식초(食醋)

<보기>제발 초 치는 소리 그만해!

▶**추파를 던지다** - 이성의 관심을 글기 위해 은근히 눈길이나 신호를 보내다.

추파(秋波)-사모의 정을 나타내거나 남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 은근히 보내는 여자의 눈짓

<보기>그 여자는 농염한 웃음을 지으면서 사내에게 추파를 던졌다.

▶**치가 떨린다** - 몹시 분하거나 지긋지긋하여 이가 떨린다.

<보기>부당한 대우에 치가 떨린다.

▶**침을 뱉다** - 치사스럽게 생각하거나 더럽게 여겨서 경멸하다.

<보기>사람들은 그가 변절했다며 침을 뱉었다.

▶**칼자루를 쥐다** - 상대를 좌우할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다.

<보기>칼자루를 쥔 쪽은 바로 나다.

▶**코가 높다** - 잘난 체하며 뽐내는 태도를 보이다.

<보기>우리 이모는 코가 높아서 탈이다.

▶**코가 꿰이다** - 약점이 잡히다.

<보기>그는 옆 사람에게 무슨 코가 꿰었는지 꼼짝도 못한다.

▶**콧방귀를 뀌다** - 남의 말을 같잖게 여겨 들은 척도 안 하다.

<보기>그녀는 나의 말에 콧방귀만 뀔 뿐이었다.

▶**터무니없다** - 허황하여 전혀 근거가 없다.

ㄴ터무니-터의 무늬에서 파생된 말로 정당한 근거나 이유

<보기>야당은 터무니없는 중상 모략을 그만두어야 한다.

▶**퇴자를 놓다** - 바치는 물건을 물리치거나 제안 따위를 거절하다.

퇴자(退字)-상납한 포목의 품질이 낮은 경우에 물리치는 뜻으로 그 귀퉁이에 '퇴(退)자'를 찍던 일

▶**파문이 일다** - 영향이 커서 여론이 동요되다.

파문(波紋)-수면에 이는 잔물결

<보기>대통령의 돌출 발언으로 파문이 일었다.

▶**파김치가 되다** - (간에 전 파가 뻣뻣한 기운을 잃고 축 처지듯) (몸이) 지쳐서 몹시 느른하게 되다.

<보기>종일 잔치를 치르느라고 파김치가 되었다.

▶**피도 눈물도 없다** - 몹시 야박하고 혹독하다.

<보기>이 피도 눈물도 없는 놈아!

▶**학을 떼다** - 괴로운 일에서 간신히 벗어나다.

ㄴ학-학질(말라리아)

<보기>끈질긴 친구에게 붙들려 한사코 놓아주지 않는 바람에 학을 뗐다.

▶**한풀 꺾이다** - 한창이던 기세나 투지가 어느 정도 수그러지다.

<보기>처음과는 달리 요즘은 완전히 한풀 꺾였더구먼.

▶**허울좋다** - 실속이 없이 겉으로 보기에만 반지르르하다.

ㄴ허울-실속이 없는 겉모양

<보기>그는 허울좋은 양반이라고 자랑이 대단하다.

▶**허풍을 떨다** - 실제보다 과장하여 말하다.

허풍-어떤 사실을 실제와는 달리 동떨어지게 과장하여 말하는 상태나 태도

<보기>뭐? 시골에 수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다고? 괜히 허풍 떨지 마.

▶**혀를 내두르다** - 몹시 놀라워하다.

<보기>다들 그 남자의 언변에 혀를 내둘렀다.

▶**혀를 차다** - 마음이 언짢거나 뭔가 불만스럽다.

<보기>노인은 젊은이의 무례한 행동이 못마땅해서 혀를 끌끌 찼다.

▶**홍역을 치르다** - 몹시 애를 먹거나 어려움을 겪다.

<보기>교통 체증이 심해 출근 때마다 한바탕 홍역을 치른다.

▶**화촉을 밝히다** - 결혼식을 올리다.

화촉(華燭)-빛깔을 들인 밀초

<보기>하루빨리 마음에 드는 좋은 짝을 만나 화촉을 밝히길 빈다.

▶**활개를 치다** - 당당하고 활기 있게 행동하거나 부정적인 현상이 마구 횡행하다.

<보기>신종 마약이 활개를 치고 있다.

▶**회가 동하다** - 무엇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다.

ㄴ회(蛔)-회충

<보기>얘기를 들어 보니까 회가 동하는 일이군!

▶**획을 긋다** - 범위나 시기를 구분 지을 정도로 큰 영향을 끼치다.

<보기>아폴로 11호의 달 착륙은 한 시대의 획을 긋는 엄청난 사건이었다.

7.고사성어(故事成語)

가담항설(街談巷說) ㄴ사람들 사이나 길거리에 떠도는 소문

가렴주구(苛斂誅求) - 독하게 거두고, 베고, 논박함

ㄴ탐관오리를 비롯한 관리들이 세금 따위를 가혹하게 거두어 백성을 괴롭힘

가인박명(佳人薄命) ㄷ아름다운 여자는 수명이 짧음

각고면려(刻苦勉勵) ㄷ모든 고생을 이겨내며 부지런히 노력함

각골난망(刻骨難忘) - 뼈에 새겨 잊지 아니함

ㄴ뼈에 사무칠 정도로 고마움이 깊어 결코 잊을 수가 없음

각골지통(刻骨之痛) - 뼈를 깎는 아픔

ㄴ견디기 힘든 고통. 가슴 깊이 맺힌 원통한 한(恨)

각주구검(刻舟求劍) - 검이 물 속에 떨어진 자리를 배에 새겨 그 검을 찾으려 함

ㄴ시세의 변천도 모르고 , 낡은 것만 고집하는 어리석음

간담상조(肝膽相照) - 간과 쓸개를 서로 비추어 보임

ㄴ서로 마음을 터놓고 지냄

감언이설(甘言利說) - 달콤한 말과 이로운 이야기

ㄴ남을 꾀기 위해 꾸민 그럴 듯한 말

감탄고토(甘呑苦吐) -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음

ㄷ자기의 손익에 따라 태도를 바꿈

갑남을녀(甲男乙女) - 갑이라는 이름의 남자와 을이라는 이름이 여자

ㄴ평범한 일반사람

갑론을박(甲論乙駁) - 여럿이 토론하고 논박함

ㄴ각자의 주장을 내세우고 상대의 의견을 논박함

강구연월(康衢煙月) - 큰 길에서 달빛이 은은하게 연기에 비침

ㄴ태평한 시대의 번화한 거리의 평화스러운 모습
강호연파(江湖煙波) - 강이나 호수 수면 위에 안개처럼 생겨나는 것
ㄴ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개세지재(蓋世之才) ㄴ온 세상을 다스릴 만큼의 재주 또는 그런 인물
거안제미(擧案齊眉) - 부인이 밥상을 눈썹 높이에 맞춰 남편에게 바침
ㄴ남편에 대한 공경
▶**견문발검(見蚊拔劍)** - 모기 보고 칼 빼기
ㄴ대수롭지 않은 일에 지나치게 화를 내며 덤비거나 큰 대책을 세움
▶**견위치명(見危致命)** ㄴ나라가 위태로움에 바진 것을 보고 목숨을 나라에 바침
▶**견토지쟁(犬兎之爭)** - 개와 토끼의 싸움
ㄷ제3자가 이익을 봄
▶**경국지색(傾國之色)** - 한 나라를 위기에 빠뜨리게 할 만한 미인
ㄴ매우 아름다운 여자
▶**고복격양(鼓腹擊壤)** - 배를 두드리며 흙덩이를 침
ㄷ태평성대를 즐김
▶**고식지계(姑息之計)** - 잠시만 쉴 수 있는 꾀
ㄴ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닌, 당장의 어려움만 피하기 위한 임시방편
▶**고립무원(孤立無援)** ㄴ홀로 있어서 도움을 받을 데가 없음
▶**고성낙일(孤城落日)** - 고립무원의 성과 서쪽으로 기운 태양
ㄴ남의 도움이 없이 없어 고립되고 외로운 처지
▶**고장난명(孤掌難鳴)** -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난다.
ㄴ혼자서는 일을 이루기 힘듦
▶**곡학아세(曲學阿世)** ㄴ학문을 왜곡시켜 세상에 아첨함으로써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하다.
▶**과유불급(過猶不及)** ㄴ너무 지나치면 오히려 도달하지 않은 것보다 못함
▶**교각살우(矯角殺牛)** - 소의 뿔을 바로잡으려다 소를 죽임
ㄷ방법이 지나쳐 일을 그르침
▶**교왕과직(矯枉過直)** ㄷ구부러진 것을 바로잡으려다 정도가 지나쳐 오히려 휘어버리다.
▶**교외별전(敎外別傳)** ㄴ불교의 경전이나 설법 등 문자나 언어에 의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함
▶**교언영색(巧言令色)** - 교묘한 말과 꾸미는 몸짓
ㄴ남의 환심을 사기 위해 말을 교묘히 꾸미고 표정을 좋게 함
▶**교학상장(敎學相長)** ㄴ가르치는 일과 배우는 일은 서로에게 도움이 됨
▶**결자해지(結者解之)** ㄴ애초에 일을 저지른 사람이 그 일을 해결함
▶**결초보은(結草報恩)** - 풀을 묶어 은혜를 갚음
ㄴ아비의 혼령이 풀을 묶어 딸의 은인을 궁지에서 구하고 은혜를 갚음
▶**계란유골(鷄卵有骨)** - 계란에도 뼈가 있음
ㄴ일이 늘 안 되는 사람은 좋은 기회를 만나도 역시 그르침
▶**개과천선(改過遷善)** - 허물을 고치고 착해짐
ㄷ예전의 잘못된 행동이나 습관을 고치고 착한 사람으로 거듭남
▶**격세지감(隔世之感)** ㄴ매우 많이 변해서 마치 딴 세상이 온 것처럼 느껴짐
▶**견물생심(見物生心)** - 실물을 보면 욕심이 생김

ㄴ좋은 것을 보면 그것을 갖고 싶은 마음이 생겨남
▶**과대망상(誇大妄想)** - 헛된 망상을 많이 함
ㄴ터무니없는 헛된 생각을 과장되게 함
▶**고립무원(孤立無援)** - 홀로 있어 도움이 없음
ㄴ외톨이 처지인지라 도움을 받거나 의존할 데가 전혀 없음
▶**고육지책(苦肉之策)** ㄴ어려운 상황을 피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Tm는 계책
▶**고진감래(苦盡甘來)** - 쓴 것이 다하면 단 것이 옴
ㄴ오랜 고생 끝에 행복이 찾아옴
▶**공평무사(公平無私)** - 공평하게 처리하고 벌함
ㄴ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바르게 사사로움이 없음
▶**관포지교(管鮑之交)** - 관중과 포숙아의 사귐
ㄴ아주 친한 친구 사이의 사귐
▶**괄목상대(刮目相對)** - 눈을 비비고 상대를 봄
ㄴ남의 학식이나 재주가 놀랄 만큼 늚
▶**구밀복검(口蜜腹劍)** - 입에는 꿀, 뱃속에는 칼
ㄴ입으로는 달콤함 말을 하나 속으로는 해칠 생각이 있음
▶**구상유취(口尙乳臭)** - 입에서 젖비린내가 남
ㄴ말이나 행동이 유치함
▶**구우일모(九牛一毛)** - 소 아홉 마리 중 털 한 가락
ㄴ몹시 많은 것들 중에 끼어 있는 매우 적은 것.
▶**군계일학(群鷄一鶴)** - 닭 무리 중의 한 마리 학
ㄴ여럿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람
▶**권불십년(權不十年)** =화무십일홍(花無十日紅)
ㄴ권력을 오래 가지 못함
▶**권선징악(勸善懲惡)** - 선을 권하고 악을 벌함
ㄷ착한 행실을 널리 권장하고 악한 행실을 벌줌
▶**권토중래(捲土重來)** ㄷ한 번 실패한 자가 힘을 길러 흙먼지를 일으키며 다시 찾아옴
견강부회(牽强附會) - 억지로 끌어다 붙임
ㄴ합당하지 않은 근거를 억지로 끌어다 자기의 주장을 합리화시킴
▶**근묵자흑(近墨者黑)** - 묵을 가까이 하면 검어짐
ㄴ나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악에 물들게 됨
▶**금상첨화(錦上添花)** - 비단 위에 꽃을 더함
ㄴ좋은 일이나 상황이 연달아 이어짐
▶**금슬지락(琴瑟之樂)** =금실지락 =금슬상화(琴瑟相和)
ㄴ부부 사이의 즐거움
▶**금의야행(錦衣夜行)** - 비단 옷을 입고 밤에 거님
ㄴ아무도 알아주지 않아 별 보람이 없는 행동을 함
▶**금의환향(錦衣還鄕)** - 비단옷을 입고 고향에 돌아옴
ㄷ출세나 성공을 해서 고향에 돌아옴
▶**기고만장(氣高萬丈)** - 기운이 뻗쳐 만장에 이름
ㄴ일이 마음먹은 대로 잘 풀려서 기세가 대단함

▶**난공불락(難攻不落)** ㄴ공격하기 어려워 좀처럼 무너뜨리기 힘듦
▶**난형난제(難兄難弟)** - 형이라고 부르기도 어렵고 동생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움
ㄴ우열이나 정도의 차이를 판단하기 어려움
▶**남가일몽(南柯一夢-)** - 남쪽으로 뻗은 가지 밑에서 꾼 꿈
ㄴ꿈과 같이 헛된 한때의 부귀영화
▶**남귤북지(南橘北枳)** - 남쪽의 귤나무를 북쪽에 옮겨 심으면 탱자나무가 됨
ㄷ환경에 따라 사물의 성질이 달라짐
▶**남부여대(男負女戴)** - 남자는 지고 여자는 임
ㄴ가난한 사람들이 정착할 곳을 찾아 이리저리 떠돌아다님
▶**남아수독오거서(男兒須讀五車書)** ㄴ남자는 모름지기 다섯 수레 분량의 책을 읽어야 함
▶**낭중지추(囊中之錐)** - 주머니 속의 송곳
ㄴ재능이 뛰어난 사람은 재능이 드러남
▶**낭중취물(囊中取物)** - 주머니 속의 물건을 취함
ㄴ아주 쉬운 일
▶**노심초사(勞心焦思)** ㄷ몹시 마음을 쓰며 속을 태움
▶**녹의홍상(綠衣紅裳)** - 연두색 저고리와 붉은 색 치마
ㄴ아름다운 여자
▶**논공행상(論功行賞)** ㄴ공을 따져 상을 줌
▶**누란지위(累卵之危)** ㄷ알을 쌓아 놓은 것과 같은 위태로움
▶**능소능대(能小能大)** - 두루두루 능함
ㄴ모든 일을 막힘없이 잘함. 수완이 좋아서 어떠한 일에도 잘 대처함
▶**다다익선(多多益善)** - 많으면 많을수록 좋음
ㄴ병력을 몇 명이나 지휘할 능력이 있느냐는 한나라 유방의 질문에 장수인 한신이 답한 말
▶**단기지교(斷機之敎)** - 맹자의 모친이 짜던 베의 날을 끊어 훈계함
ㄴ학문을 중도에서 그만두면 아무 쓸모없이 됨을 경계함
▶**단기천리(單騎千里)** ㄷ말 하나를 타고 천 리를 달림
▶**단금지교(斷金之交)** - 쇠도 자를 수 있을 사귐
ㄴ두텁고 단단한 사귐
▶**단사표음(簞食瓢飮)** - 대그릇 밥과 표주박의 물
ㄴ청빈하고 소박한 생활
▶**단순호치(丹脣皓齒)** - 붉은 입술과 하얀 치아
ㄴ아름다운 여자
▶**단표누항(簞瓢陋巷)** - 대그릇의 밥과 표주박의 물로 누추한 거리에서 생활함
ㄷ청빈하고 소박한 생활
▶**당구풍월(堂狗風月)** - 서당 개 삼 년이면 풍월을 읊는다.
ㄴ무식한 사람이라도 유식한 사람과 같이 오래 지내면 자연히 견문이 생긴다.
▶**당랑거철(螳螂拒轍)** - 사마귀가 수레를 막는다.
ㄷ자기의 힘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모하게 강자에게 덤빔
▶**도청도설(道聽塗說)** ㄷ길거리에 퍼져 떠돌아다니는 뜬소문
▶**도탄지고(塗炭之苦)** - 진흙 구렁에 빠지고 숯불에 타는 괴로움
ㄴ가혹한 정치로 인해 살림이 몹시 곤궁한 처지에 이름

▶**동가홍상(同價紅裳)** -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
ㄴ같은 조건이면 좋은 물건을 고름
▶**동문서답(東問西答)** - 동을 물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함
▶**동상이몽(同床異夢)** - 같은 침상에 다른 꿈
ㄴ겉으로는 같이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각기 다른 생각을 함
▶**동분서주(東奔西走)** - 동쪽으로 뛰고 서쪽으로 달림
ㄷ여기저기 바쁘게 돌아다님
▶**동병상련(同病相憐)** - 같은 병자끼리 불쌍히 여김
▶**동정서벌(東征西伐)** - 동쪽을 치고 서쪽을 벰
ㄴ여기저기 많은 나라를 무력으로 정복하고 다님
ㄷ어려운 처지에 놓인 사람들끼리 서로 도움
▶**동족방뇨(凍足放尿)** - 언 발에 오줌 누기
ㄴ잠시 효력이 있을 뿐 곧 없어짐
▶**두문불출(杜門不出)** - 문을 막고 나가지 않음
ㄷ집안에만 틀어박혀 있어 세상 밖에 나가지 않음
▶**등고자비(登高自卑)** ㄴ지위가 높아질수록 스스로 낮춤. 차례를 밟아 일을 함
▶**등하불명(燈下不明)** - 등잔 밑이 어둡다.
ㄴ가까이 있는 것을 찾기가 오히려 힘듦
▶**마부위침(磨斧爲針)** - 도끼를 갈아 바늘을 만듦
ㄴ끊임없이 노력함
▶**마이동풍(馬耳東風)** - 말귀에 부는 동풍
ㄴ남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음
▶**마중지봉(麻中之蓬)** - 삼밭에서 자라는 쑥
ㄴ좋은 환경에서 자라면 그 감화를 받아 자연히 선하게 됨
▶**막상막하(莫上莫下)** - 위라고 하기도 어렵고 아래라고 하기도 어려움
ㄷ더 낫고 더 못함의 차이가 없음
▶**막역지간(莫逆之間)** - 거스름이 없는 사이
ㄴ어떤 언행을 해도 상대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을 정도로 친함
▶**막무가내(莫無可奈)** - 어찌할 수가 없음
ㄴ전혀 융통성이 없이 무조건적으로 고집을 부림
▶**만경창파(萬頃蒼波)** - 만 이랑의 푸른 물결
ㄴ매우 넓고 푸른 파도
▶**만시지탄(晩時之歎)** ㄴ때가 늦어 좋은 기회를 놓친 것을 탄식함
▶**망양보뢰(亡羊補牢)** -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ㄴ이미 실패한 뒤에 뉘우쳐도 소용이 없음
▶**망양지탄(望洋之嘆)** ㄴ어떤 일에 자신의 힘이 미치지 못함을 느껴서 하는 탄식
▶**망양지탄(亡羊之歎)** - 갈림길이 많아서 잃어버린 양을 찾을 길이 없음을 한탄함
ㄷ학문의 길이 여러 갈래여서 한 갈래의 길도 얻기 어려움을 이름
▶**망연자실(茫然自失)** - 정신이 없고 멍함
ㄴ놀라운 사건이나 충격 때문에 정신이 혼미해지고 넋이 나감
▶**망운지정(望雲之情)** ㄴ구름을 바라보며 타향에서 어버이를 그리워하는 정

▶**면종복배(面從腹背)** - 겉은 따르고 속으론 배신함
ㄴ겉으로는 복종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배신을 꾀함
▶**명경지수(明鏡止水)** - 맑은 거울과 고요한 물
ㄴ깨끗하고 평온한 마음의 상태
▶**명약관화(明若觀火)** - 불을 보는 것처럼 밝음
ㄴ더 말할 것도 없이 분명함
▶**명재경각(命在頃刻)** ㄷ목숨이 끊어질 정도의 급박한 처지에 놓임
▶**멸사봉공(滅私奉公)** ㄴ사사로운 욕심을 버리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봉사함
▶**목불식정(目不識丁)** - 한자 '고무래 정(丁)' 자를 못 알아봄
ㄴ낫 놓고 ㄱ 자도 모를 정도로 무식함
▶**목불인견(目不忍見)** ㄷ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끔찍하고 비참함
▶**묘두현령(猫頭縣鈴)** -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
ㄴ실현성이 없는 헛된 논의
▶**무릉도원(武陵桃源)** - 무릉 사람이 발견한 복숭아꽃이 만발한 곳
ㄷ현실에는 존재하지 않는 별천지
▶**무불통지(無不通知)** ㄴ무엇이든 다 알아서 막히는 것이 없음
▶**무위도식(無爲徒食)** ㄴ특별히 하는 일이 없이 놀고먹기만 함
▶**문경지교(刎頸之交)** - 목을 자르라고 내놓을 수 있는 사귐
ㄷ벗을 위해서라면 목이 잘려도 한이 없을 만큼 친한 사이
▶**문일지십(聞一知十)** - 하나는 듣고 열을 앎
ㄴ매우 총명함
▶**문전성시(門前成市)** ㄴ대문 앞이 시장을 이룰 정도로 찾아오는 손님이 많음
▶**박학다식(博學多識)** ㄴ넓게 배워 많이 앎
▶**반신반의(半信半疑)** - 반은 믿고 반은 의심함
ㄴ얼마쯤은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심함
▶**반포지효(反哺之孝)** - 새끼 까마귀가 자라서 늙은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는 효
ㄷ자식이 커서 어버이의 은혜에 보답하는 효성
▶**발분망식(發憤忘食)** - 분발하여 끼니조차 잊음
ㄴ밥 먹는 것조차 잊고 열심히 노력함
▶**발본색원(拔本塞源)** - 뿌리를 뽑아버리고 원인을 막아버림
ㄴ잘못된 것의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뿌리째 아주 없애 버림
▶**방약무인(傍若無人)** ㄴ곁에 사람이 없는 것처럼 아무 거리낌 없이 함부로 행동함
▶**방휼지쟁(蚌鷸之爭)** - 조개와 도요새의 다툼
ㄷ제3자만 이롭게 하는 싸움
▶**발묘조장(拔苗助長)** - 묘의 성장을 도우려고 무리하게 잡아당겨 뿌리를 뽑아 버림
ㄴ급하게 서두르다 일을 망침
▶**배수지진(背水之陣)** - 강을 등지고 진을 쳐서 필승의 각오로 싸움
ㄷ어떤 일을 성취하기 위해 무릅써야 하는 위험
▶**백년하청(百年河淸)** - 탁하기로 유명한 중국 황하의 물이 맑을 때가 없음
ㄴ아무리 오래 되어도 어떤 일이 이루어지기 어려움
▶**백면서생(白面書生)** - 얼굴이 흰 서생

ㄴ글만 읽고 세상 경험은 없는 사람
▶**백아절현(伯牙絶絃)** - 종자기의 죽음을 슬퍼하여 친구인 백아가 거문고 줄을 끊음
ㄴ친구 사이의 참다운 우정
▶**백중지간(伯仲之間)** - 첫째와 둘째의 관계
ㄴ누가 나은지 분간하기 어려운 사이
▶**백척간두(百尺竿頭)** ㄴ백 척이나 되는 높은 장대 위에 올라선 것처럼 위태로움
▶**부지불식(不知不識)** - 알지도 못하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함
▶**부창부수(夫唱婦隨)** - 지아비가 부르면 아내가 따름
ㄴ부부간의 화합
▶**불치하문(不恥下問)** - 손아랫사람에게 묻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함
ㄷ확신이 없어 완전히 믿지는 못함. 한편으로는 믿으면서 한편으로는 의심함
▶**비몽사몽(非夢似夢)** - 꿈인 것 같기도 하고 꿈이 아닌 것 같기도 함
ㄴ꿈인지 생시인지 어렴풋한 상태
▶**비육지탄(髀肉之嘆)** - 오랫동안 말을 타지 못하여 넓적다리에 살이 쪘다.
ㄷ재능을 발휘할 기회를 가지지 못하여 헛되이 날만 보냄
▶**백년가약(百年佳約)** - 한 평생의 아름다운 약속
ㄴ젊은 남녀가 부부가 되어 평생을 같이 지낼 것을 굳게 다짐하는 아름다운 언약
▶**백년대계(百年大計)** - 백 년에 걸치는 큰 계획
ㄷ먼 장래를 내다보고 긴 안목에서 세우는 중요한 계획
▶**백년하청(百年河淸)** - 실현불가능한 일
ㄴ탁하기로 유명한 중국 황하의 물은 백 년을 기다려도 맑아지지 않음
▶**백년해로(百年偕老)** - 한평생 함께 늙음
ㄴ부부가 한평생을 사이좋게 지내고 함께 늙음
▶**부화뇌동(附和雷同)** - 천둥이 치면 함께 움직임
ㄴ뚜렷한 소신이나 주관 없이 남의 의견이나 행동을 따름
▶**불문가지(不問可知)** ㄷ묻지 않아도 뻔히 알 수 있음
▶**불문곡직(不問曲直)** - 굽음과 곧음을 묻지 않음
ㄴ옳고 그름을 따지지 않음
▶**불립문자(不立文字)** ㄴ언어나 문자에 의하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불도의 깨달음은
▶**불철주야(不撤晝夜)** - 낮에도 밤에도 멈추지 않음
ㄴ어떤 일에 골몰하느라고 밤낮을 가리지 않음
▶**비분강개(悲憤慷慨)** - 슬픔, 분함, 의기가 북받쳐 원통하고 슬픔
ㄷ의롭지 못한 일 때문에 슬픔과 분노가 마음에 북받침
▶**빈이무원(貧而無怨)** ㄴ가난하지만 다른 사람을 원망하지 않음
▶**사고무친(四顧無親)** - 사방을 둘러봐도 친척이 없음
ㄴ의지할 만한 사람이 전혀 없음
▶**사모관대(紗帽冠帶)** - 사모와 관대
ㄷ비단으로 만든 모자, 갓, 띠-옛날 벼슬아치가 했던 공식 석상의 옷차림
▶**사상누각(沙上樓閣)** - 모래 위에 쌓은 누각
ㄴ기초가 튼튼하지 못하여 오래 견디지 못할 일이나 물건

▶**사통오달(四通五達)** ㄴ여러 방향으로 길이 막힘없이 뚫림=사통팔달
▶**사필귀정(事必歸正)** - 모든 일은 바르게 돌아감
ㄴ무릇 모든 일은 결국에 가서는 바르게 시비가 가려지게 됨
▶**산자수명(山紫水明)** - 산이 자줏빛으로 아름답고 물이 맑음
ㄴ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살신성인(殺身成仁)** - 몸을 죽여 인을 이룸
ㄷ바른 일을 위해 자기를 희생함
▶**삼순구식(三旬九食)** ㄴ삼순, 즉 한 달에 겨우 아홉 번 밥을 먹을 정도로 가난함
▶**삼천지교(三遷之敎)** - 맹자의 어머니가 아들의 교육을 위해 세 번 이사함
ㄴ교육에는 환경적인 요소가 중요함
▶**상전벽해(桑田碧海)** - 뽕나무 밭이 바다로 변함
ㄴ몰라볼 정도로 세상이 변함. 그로 인해 느끼는 무상함
▶**새옹지마(塞翁之馬)** - 변방에 사는 늙은이의 말
ㄴ인생의 길흉은 그 변화가 무쌍하니 크게 기뻐하거나 슬퍼할 것이 아님
▶**선공후사(先公後私)** ㄷ공공의 일과 이익을 앞세우고 개인의 일과 이익은 나중으로 돌림
▶**선즉제인(先則制人)** - 앞서서 하면 남을 제압함
ㄴ남보다 앞서서 일을 꾸미면 능히 타인을 제압할 수 있음
▶**설빈화안(雪鬢花顔)** - 눈처럼 흰 귀밑머리와 꽃다운 얼굴
ㄷ아름다운 여자
▶**섬섬옥수(纖纖玉手)** - 가늘고 여려서 옥처럼 고운 손
ㄴ아름다운 여자
▶**소탐대실(小貪大失)** ㄴ작은 이익을 노리다가 오히려 큰 손해를 봄
▶**속수무책(束手無策)** - 손을 묶어 방책이 없음
ㄴ손이 묶인 것처럼 뾰족한 방법이나 대책이 없어서 꼼짝 못함
▶**수구초심(首丘初心)** - 여우가 죽을 때에 머리를 저 살던 굴 쪽으로 향함
ㄷ고향을 그리워 함
▶**수불석권(手不釋卷)** - 책을 손에서 떼지 않음
ㄴ책을 늘 가까이함
▶**수수방관(袖手傍觀)** - 팔짱을 끼고 바라봄
ㄴ아무런 관여도 하지 않고 바라보기만 함
▶**수어지교(水魚之交)** - 물과 물고기의 관계
ㄴ아주 친밀하여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
▶**수적천석(水滴穿石)** - 물방울이 돌을 뚫음
ㄷ아주 작은 물방울이라도 끊임없이 떨어지면 언젠가는 돌을 뚫음=낙숫물이 댓돌을 뚫는다.
▶**수주대토(守株待兎)** - 그루터기를 지켜 토끼를 기다림
ㄴ융통성 없이 옛 관습에 따름
▶**숙맥불변(菽麥不辨)** ㄷ콩과 보리를 구별 못할 만큼 어리석음
▶**순망치한(脣亡齒寒)** - 입술을 잃으면 이가 시림
ㄴ이해가 얽힌 두 쪽 중 한쪽이 망하면 나머지 한쪽도 피해를 봄
▶**설상가상(雪上加霜)** - 눈 위에 서리가 더해짐

ㄴ어려운 일이나 상황이 거듭해서 발생함
▶**시종일관(始終一貫)** ㄴ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아서 변함이 없음
▶**신상필벌(信賞必罰)** - 상을 주고 벌을 내림
ㄴ상벌을 규정대로 공정하고 엄중하게 하는 일
▶**신언서판(身言書判)** ㄴ옛날 인물을 고르던, 신수 · 말씨 · 문필 · 판단력 등의 네 가지 조건
▶**식자우환(識字憂患)** - 아는 게 병
ㄴ학식이 있는 게 도리어 근심을 사게 됨
▶**심기일전(心機一轉)** - 마음의 틀을 아주 바꿈
ㄴ어떤 계기에 의해 지금껏 가졌던 마음을 완전히 바꿈
▶**심심상인(心心相印)** ㄷ마음에서 마음으로 불도가 전해짐
▶**십벌지목(十伐之木)** -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ㄴ아무리 뜻이 굳은 사람이라도 여러 번 유혹하면 결국은 마음이 변함
▶**십시일반(十匙一飯)** - 열 숟가락으로 밥 한 그릇을 만듦
ㄷ여러 사람이 합하여 한 사람을 도움
▶**아전인수(我田引水)** - 제 논에 물 대기
ㄴ자기에게 이롭도록 억지로 갖다 붙임
▶**안빈낙도(安貧樂道)** - 가난을 편히 여겨 도를 즐김
ㄷ가난한 생활을 불편하게 여기지 않고 즐기는 마음으로 살아감
▶**안하무인(眼下無人)** - 눈 아래에 사람이 없음
ㄴ성격이나 태도가 거만하고 방자하여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고 깔봄
▶**역지사지(易地思之)** ㄴ일방을 바꾸어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생각해 봄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 고기를 구함
ㄴ불가능한 일을 하려 함. 잘못된 방법으로 일을 꾀함
▶**염화미소(華微笑)** - 부처가 연꽃을 들어 무리에게 보임
ㄷ마음에서 마음으로 진리를 전함
▶**양자택일(兩者擇一)** - 둘 중에 하나를 택함
ㄴ제시된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함
▶**암중모색(暗中摸索)** - 어둠 속에서 찾으려 함
ㄴ불확실하고 애매한 상황 속에서도 무엇을 찾기 위해 이리저리 노력함
▶**양두구육(羊頭狗肉)** - 양머리를 걸어놓고 실제로는 개고기를 팖
ㄴ겉은 그럴 듯하나 속은 다름
▶**애이불비(哀而不悲)** ㄴ속으로는 슬프지만 겉으로 슬픔을 드러내지 않음
▶**어부지리(漁父之利)** - 도요새와 무명조개의 다투는 틈을 타 어부가 둘 다 잡았다
ㄴ제3자가 이익을 봄
▶**어불성설(語不成說)** - 말이 말을 이루지 못함
ㄴ말이 사리에 맞지 않음
▶**언감생심(焉敢生心)** ㄷ감히 그런 마음을 품을 수가 없음
▶**언어도단(言語道斷)** - 말문이 끊겼다
ㄴ어이가 없어서 말하려 해도 말할 수 없음
▶**언중유골(言中有骨)** ㄴ평범한 말 속에 쉽게 넘길 수 없는 비범한 뜻이 담겨 있음

▶**여리박빙(如履薄氷)** ㄴ얇은 얼음을 밟는 것과 같이 위태로움
▶**연목구어(緣木求魚)** - 나무에 올라가 물고기를 찾으려 함
ㄴ불가능한 일을 무리하게 하려 함
▶**연하고질(煙霞痼疾)** ㄴ자연의 아름다운 경치를 몹시 사랑하고 즐김
▶**연하일휘(煙霞日輝)** - 안개와 노을과 빛나는 햇빛
ㄴ자연의 아름다운 풍경
▶**염량세태(炎凉世態)** - 뜨겁다가 금방 차가워지는 세태
ㄴ자신의 이익에 따라 돌변하는 세상 인심
▶**영고성쇠(榮枯盛衰)** - 영화롭다가 마르고, 성하다가 쇠하게 됨
ㄴ인생의 변화
▶**오리무중(五里霧中)** - 오리 안이 안개 속에 묻힘
ㄴ행방을 찾은 방법이 없거나 어떤 일의 상황을 전혀 모름
▶**오만불손(傲慢不遜)** ㄴ거만하게 잘난 체하며 예의를 갖추지 않음=오만무례(傲慢無禮)
▶**오매불망(寤寐不忘)** - 자나 깨나 잊지 못함
ㄷ항상 그리워하여 잊지 못함
▶**오비삼척(吾鼻三尺)** - 내 코가 석 자
ㄴ내 일도 힘들어 타인을 돌볼 여유가 없음
▶**오비이락(烏飛梨落)** -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ㄷ공교롭게 어떤 일이 같은 때에 일어나 괜한 의심을 사게 됨
▶**오월동주(吳越同舟)** - 오나라와 월나라 군사가 한 배에 탐
ㄴ서로 적이지만 공동의 이해관계를 위해 일시적으로 협력함
▶**온고지신(溫故知新)** - 옛것을 익혀 새로운 것을 앎
ㄴ옛 지식을 통해 현재에도 적용할 수 있는 새 지혜를 얻음
▶**요산요수(樂山樂水)** - 어진 이는 산을 좋아하고 지혜로운 이는 물을 좋아함
ㄴ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김
▶**용의주도(用意周到)** ㄷ마음의 준비가 두루두루 철저하여 빈틈이 없음
▶**욕속부달(欲速不達)** - 빨리 하고자 하면 오히려 도달하지 못함
▶**와신상담(臥薪嘗膽)** - 섶에 누워서 쓸개를 맛봄
ㄴ어떤 목적을 이루거나 원수를 갚기 위해 괴로움을 참고 견딤
▶**왕후장상(王侯將相)** - 제왕, 제후, 장수, 제상
ㄴ높은 관직에 있는 귀족을 통칭하는 말
▶**우공이산(愚公移山)** - 우공이 산을 옮김
ㄴ노력하면 어떤 어려운 일도 이룰 수 있음
▶**우부우부(愚夫愚婦)** - 어리석은 지아비와 어리석은 지어미
ㄴ평범한 보통사람
▶**우왕좌왕(右往左往)** -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함
ㄴ나아갈 바를 정하지 못하거나 어떻게 할지 몰라 오락가락함
▶**우유부단(優柔不斷)** ㄷ어물어물하기만 하고 딱 잘라 결정을 내리지 못함
▶**우이독경(牛耳讀經)** - 쇠귀에 경 읽기
ㄴ아무리 일러 줘도 알아 듣지 못함
▶**우화등선(羽化登仙)** ㄴ몸에 날개가 돋아 신선이 되어 하늘에 올라감

▶**우후죽순(雨後竹筍)** - 비 온 뒤에 여기저기 솟는 죽순
ㄴ갑자기 어떤 일이 매우 많이 일어남
▶**원화소복(遠禍召福)** ㄴ재앙을 멀리하고 복을 불러들임
▶**위편삼절(韋編三絶)** - 책을 묶은 줄이 세 번이나 끊어짐
ㄴ같은 책을 수십 회 읽음
▶유구무언(有口無言) - 입은 있으나 말이 없음
ㄷ변명이나 항변할 말이 없음
▶**유명무실(有名無實)** -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ㄴ이름만 있고 실제의 내용이나 참다운 의미가 없음
▶**유언비어(流言蜚語)** ㄴ많은 사람들 사이에 퍼진 근거 없는 뜬소문
▶**유유상종(類類相從)** - 비슷한 것끼리 서로 좇음
ㄴ성격이나 성향이 비슷한 무리끼리 함께 어울림
▶**유유자적(悠悠自適)** ㄴ속세를 떠나 어느 것에도 얽매이지 않고 조용하고 편안하게 삶
▶**음풍농월(吟風弄月)** - 맑은 바람과 밝은 달을 읊으면서 즐김
ㄷ시 따위로 자연을 노래하며 즐김
▶**읍참마속(泣斬馬謖)** - 제갈량이 군령을 어겨 가정 싸움에 패한 마속을 울면서 참형하였다.
ㄴ큰 목적을 위하여 자기가 아끼는 사람을 버림
▶**이구동성(異口同聲)** - 입은 다르지만 소리는 같음
ㄷ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서로 같아서 한 목소리를 냄
▶**이심전심(以心傳心)** ㄴ마음에서 마음으로 서로 뜻이 통함
▶**이열치열(以熱治熱)** - 열로써 열을 다스림
ㄴ같은 종류의 것을 방법으로 하여 일을 처리함
▶**이율배반(二律背反)** ㄴ두 가지의 서로 모순되는 명제가 합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맞서는 일
▶**인과응보(因果應報)** ㄴ원인과 결과가 서로 맞물림
▶**인자무적(仁者無敵)** ㄴ어진 사람은 모두를 사랑하므로 적이 없음
▶**인지상정(人之常情)** ㄷ사람이라면 으레 누구나 가지는 보통의 생각이나 마음
▶**일거양득(一擧兩得)** - 하나를 노려서 둘을 얻음
ㄴ한 가지 일로 두 가지 이득을 봄
▶**일구이언(一口二言)** - 한 입으로 두 말을 함
ㄴ이랬다 저랬다 말을 바꿈
▶**일사불란(一絲不亂)** - 한 오라기의 실도 흐트러지지 않음
ㄴ질서나 체계가 잘 잡힘
▶**일어탁수(一魚濁水)** -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물을 흐린다.
ㄷ한 사람의 잘못으로 여러 사람이 피해를 봄
▶**일장춘몽(一場春夢)** - 한바탕의 봄꿈
ㄴ부귀영화의 무상함이나 인생의 허무함
▶**일취지몽(一炊之夢)** - 밥 짓는 동안에 꾼 꿈
ㄷ인생의 덧없고 영화의 허망함
▶**입신양명(立身揚名)** - 몸을 세워 이름을 날림
ㄴ출세를 해서 좋은 평가를 받고 널리 이름을 떨침
▶**일심동체(一心同體)** - 한 마음, 한 몸

ㄴ여러 사람이 굳게 단결함
▶**일진일퇴(一進一退)** - 한 번 나아가고 한 번 물러섬
ㄴ상대와 경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전진과 후퇴를 반복함
▶**일촉즉발(一觸卽發)** ㄴ약간만 닿아도 폭발할 정도로 위태함
▶**일취월장(日就月將)** ㄴ날로 달로 자라거나 실력이 발전함
▶**일편단심(一片丹心)** - 한 조각의 붉은 마음
ㄷ변치 않는 참된 마음
▶**임시변통(臨時變通)** =임시방편(臨時方便) ㄴ갑자기 생긴 일을 우선 임시로 둘러맞춰서 처리함
▶**자가당착(自家撞着)** ㄴ같은 사람이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맞지 않는 일
▶**자강불식(自强不息)** ㄷ스스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노력함
▶**자격지심(自激之心)** - 스스로 부끄러워하는 마음
ㄴ자기가 한 일에 따위에 대해 스스로 미흡해 하고 부끄러워함
▶**자괴지심(自愧之心)** ㄴ자기 스스로 부끄럽게 생각하는 마음
▶**자문자답(自問自答)** - 스스로 묻고 스스로 답함
ㄴ자기 혼자서 자신에게 묻고 자기가 그 답을 함
▶**자중지란(自中之亂)** - 자기들끼리 싸움
ㄴ같은 편, 같은 무리 내에서 일어나는 싸움
▶**자승자박(自繩自縛)** - 자기 줄로 자기를 묶음
ㄴ스스로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자신이 얽매이게 됨
▶**자포자기(自暴自棄)** - 스스로에게 모질게 굴고 돌보지 않음
ㄴ낙담하여 자신을 버림
▶**장삼이사(張三李四)** - 장 씨의 셋째 아들과 이 씨의 넷째 아들
ㄴ평범한 보통사람
▶**좌고우면(左顧右眄)**-왼쪽도 보고 오른쪽도 살핌
ㄷ일을 쉽게 결정하지 못하고 이것저것 재면서 망설임
▶**조강지처(糟糠之妻)** ㄷ술 찌꺼기와 쌀겨로 끼니를 때우며 가난하게 살던 시절의 본처
▶**주마가편(走馬加鞭)** -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함
ㄴ더 잘하라고 격려하거나 몰아침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오히려 매를 든다.
ㄴ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아무 잘못이 없는 사람을 나무람
▶**전광석화(電光石火)** - 번개가 치거나 부싯돌이 부딪칠 때의 번쩍거리는 빛
ㄴ매우 짧은 시간이나 매우 빠른 동작
▶**전대미문(前代未聞)** - 이전 시대에는 들어본 적이 없음
ㄴ이제까지 없었던 새롭고 놀라운 일
▶**전부지공(田夫之功)** - 밭가는 농부가 얻은 복
ㄴ타인의 싸움 덕에 힘들이지 않고 이익을 봄
▶**전인미답(前人未踏)** - 이전 사람이 밟지 않았음=전무후무(前無後無)
ㄷ아무도 하지 않았거나 가지 않았음
▶**전전긍긍(戰戰兢兢)** ㄴ두려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벌벌 떪
▶**전전반측(輾轉反側)** ㄴ걱정거리 때문에 쉽게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이리저리 뒤척임

▶**전화위복(轉禍爲福)** - 재앙이 바뀌어 복이 됨
ㄴ불행이라고 생각했던 일이 나중에는 오히려 좋은 일로 바뀜
▶**절차탁마(切磋琢磨)** - 옥・돌・뼈・뿔 등을 자르고 쪼고 갈아서 빛을 냄
ㄴ학문이나 인격을 갈고 닦음
▶**절치부심(切齒腐心)** - 이를 갈고 속을 썩임
ㄴ이를 갈고 마음을 썩일 정도로 괴롭고 분함
▶**정족지세(鼎足之勢)** ㄷ발이 세 개 달린 솥처럼 대등하게 맞서 있는 형세
▶**정저지와(井底之蛙)** - 우물 안 개구리
ㄴ생각이 좁고, 보고 들은 것이 별로 없음
▶**조삼모사(朝三暮四)** - 아침에 세 개 저녁에 네 개
ㄷ간사한 꾀로 남을 속임. 눈앞의 이익만 챙기는 어리석음
▶**조변석개(朝變夕改)** - 아침에 바꾼 걸 저녁에 고침
ㄴ결정이나 계획을 자주 바꿈
▶**조족지혈(鳥足之血)** - 새 발의 피
ㄱ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적은 분량
▶**적반하장(賊反荷杖)** -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듦
ㄴ잘못한 사람이 오히려 큰소리를 치며 잘한 사람을 탓함
▶**적수공권(赤手空拳)** - 벌거벗은 손과 빈주먹
ㄷ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
▶**전전긍긍(戰戰兢兢)** - 두려워하며 걱정함
ㄴ위기에 닥쳐 어쩔 줄 몰라서 몹시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모습
▶**진퇴양난(進退兩難)** - 나아가지도, 물러서지도 못함
ㄴ이러기도 어렵고 저러기도 어려운 상황을 일컫는 말
▶**좌불안석(坐不安席)** - 앉았으나 자리가 편치 못함
ㄴ불안하거나 초조하거나 걱정이 되거나 하여서 가만히 앉아 있지 못함
▶**좌지우지(左之右之)** - 이리 보냈다 저리 보냈다 함
ㄷ어떤 일이나 대상을 자기 마음대로 처리하고 다룸
▶**점입가경(漸入佳境)** - 갈수록 멋진 경치가 나옴
ㄴ일이 진척될수록 풍경이나 글, 상황 따위가 점점 재미있어짐
▶**주객전도(主客顚倒)** - 주인과 손의 위치가 뒤바뀜
ㄴ사물의 경중・선후・완급이 서로 바뀜
▶**주경야독(晝耕夜讀)** - 낮에는 밭을 갈고 밤에는 공부함
ㄴ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꿋꿋이 공부함
▶**주마간산(走馬看山)** - 말을 타고 가면서 산을 봄
ㄴ시간 들여 찬찬히 훑어보지 않고 서둘러 대충 보고 지나침
▶**중구난방(衆口難防)** - 뭇 사람의 말을 막기가 어렵다
ㄴ막기 어려울 정도로 여럿이 마구 지껄임
▶**지기지우(知己之友)** - 자기를 알아주는 벗
ㄷ자기의 속마음과 가치를 알아주는 친구
▶**지란지교(芝蘭之交)** - 지초와 난초의 사귐
ㄴ벗 사이의 맑고도 높은 서귐

▶**지록위마(指鹿爲馬)** - 사슴을 가리켜 말이라 함
ㄴ교묘한 꾀로 윗사람을 농락하여 권세를 마음대로 휘두름
▶**진퇴유곡(進退維谷)** - 나아가는 길과 물러나는 길이 막힘
ㄴ나아갈 수도 물러날 수도 없는 곤란한 상황에 몰림
▶**창해일속(滄海一粟)** - 큰 바다에 떠 있는 좁쌀 한 톨
ㄴ광대한 것 중의 아주 하찮은 것을 이름
▶**천고마비(天高馬肥)** - 하늘은 높고 말은 살이 찜
ㄴ'가을'을 비유적으로 이름
▶**천석고황(泉石膏肓)** - 자연을 즐기는 것이 마치 불치의 고질병과 같다.
ㄴ고질병이 될 정도로 자연을 사랑함
▶**천우신조(天佑神助)** ㄷ하늘이 돕고 신이 도움
▶**천인공노(天人共怒)** - 하늘과 사람이 함께 분노함
ㄴ누구든 분노할 만큼 증오스럽거나 도저히 용납할 수 없음
▶**천재일우(千載一遇)** - 천 년에 한 번 만남
ㄷ좀처럼 만나기 어려운 좋은 기회
▶**청천벽력(靑天霹靂)** - 마른하늘에 날벼락
ㄴ생각지 못했던 큰 재앙
▶**청출어람(靑出於藍)** - 푸른색은 쪽에서 나옴
ㄷ푸른색이 쪽빛보다 푸르듯, 스승이나 선배보다 제자나 후배가 더 뛰어남
▶**초동급부(樵童汲婦)** - 땔 나무를 하는 남자와 물 긷는 여자
ㄴ평범한 보통사람
▶**초미지급(焦眉之急)** ㄴ눈썹이 타들어가고 있는 상태처럼 위태롭고 급함
▶**측은지심(惻隱之心)**-측은하게 여기는 마음
ㄴ슬퍼하면서 불쌍하고 가엾게 여기는 마음
▶**침소봉대(針小棒大)** - 바늘을 몽둥이라 말함
ㄷ바늘처럼 작은 일을 몽둥이처럼 큰 일로 과장해서 말함
▶**칠종칠금(七縱七擒)** - 제갈량이 맹획을 일곱 번 잡고 일곱 번 풀어줌
ㄴ상대방을 마음대로 다룸
▶**탁상공론(卓上空論)** - 탁상 위에서 펼치는 논의
ㄴ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이론상으로만 떠드는 이야기
▶**태산북두(泰山北斗)** - 태산과 북두칠성
ㄴ세상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
▶**파렴치한(跛廉恥漢)** - 염치(廉恥-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을 아는 상태)를 깨뜨리는 사람
ㄷ부끄러움이나 수치를 모르는 사람
▶**패가망신(敗家亡身)** - 집안이 무너지고 몸이 망함
ㄴ집의 재산을 모두 탕진해 버리고 몸을 망침
▶**표리부동(表裏不同)** ㄴ겉과 속이 같지 아니함
▶**초록동색(草綠同色)** - 풀빛과 초록색은 같은 색
ㄷ사람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끼리 어울리거나 편들게 마련임
▶**촌철살인(寸鐵殺人)** - 작고 날카로운 쇠붙이로 사람을 죽임
ㄴ짧은 문구나 말로 사람을 감동시키거나 사안의 핵심을 찌름

▶**천양지차(天壤之差)** - 하늘과 땅의 차이
ㄴ아주 큰 차이
▶**타산지석(他山之石)** - 남의 산의 돌도 자신의 옥을 닦는 데 도움이 됨
ㄴ타인의 사소한 언행조차도 나의 수양에는 도움이 된다.
▶**태연자약(泰然自若)** ㄴ마음의 동요가 생길 만한 일이 있어도 아무렇지 않고 예사로움
▶**태평성대(太平聖代)** - 태평한 시대
ㄷ덕이 많은 어진 임금이 다스려서 아무 걱정이 없고 평안한 세상
▶**파죽지세(破竹之勢)** ㄴ대나무를 쪼개듯 거침없이 무찔러 나아가는 형세
▶**폐포파립(弊袍破笠)**-해진 옷과 부러진 갓
ㄴ허름하고 지저분한 차림새
▶**포복절도(抱腹絶倒)** ㄷ배를 잡고 구를 정도로 몹시 심하게 웃음
▶**풍수지탄(風樹之嘆)** ㄴ부모를 봉양코자 하나 이미 돌아가셔서 행할 수 없음을 탄식함
▶**풍월주인(風月主人)** ㄴ자연을 즐기는, 풍류는 아는 사람
▶**풍전등화(風前燈火)** ㄴ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움
▶**필부지용(匹夫之勇)** - 하찮은 사내의 용기
ㄴ혈기만 믿고 무모하게 덤비는 용기
▶**필부필부(匹夫匹婦)** - 한 여자의 남자와 한 남자의 여자
ㄴ평범한 일반사람
▶**하석상대(下石上臺)** - 아랫돌 빼서 윗돌 괴고 윗돌 빼서 아랫돌 괴기
ㄴ일이 급할 때 임시적으로 이리저리 둘러맞추어 일하거나 행함
▶**학수고대(鶴首苦待)** - 학처럼 목을 길게 빼고 기다림
ㄴ몹시 애타게 기다림
▶**한강투석(漢江投石)** - 한강에 돌 던지기
ㄴ어떤 사물이 지나치게 미미하여 아무런 효과나 영향을 미치지 못함
▶**한우충동(汗牛充棟)** - 수레에 실으면 소가 땀을 흘리고 쌓으면 들보에 닿음
ㄷ많은 양의 책
▶**함구무언(緘口無言)** - 입을 봉하고 말이 없음
ㄴ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을 지킴
▶**함포고복(含哺鼓腹)** - 배불리 먹고 배를 두드림
ㄴ태평한 세상의 모습
▶**함흥차사(咸興差使)** - 조선 태조가 함흥에 있을 때 태종이 보낸 사신에도 전혀 소식이 없었다.
ㄴ심부름을 가서 돌아오지 않거나 아무 소식이 없음
▶**화룡점정(畵龍點睛)** - 용을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동자를 그려 넣었더니 그 용이 하늘로 날아 올라갔다.
ㄴ무슨 일을 하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을 완성시킴
▶**허장성세(虛張聲勢)** - 헛되이 목소리만 높임
ㄷ실력은 없으면서 거짓으로 부풀려 큰소리침
▶**혈혈단신(孑孑單身)** - 외로운 한 몸
ㄴ의지할 곳이 없는 외로운 홀몸
▶**형창설안(螢窓雪案)** - 반딧불이 비추는 창과 눈빛이 비추는 책상

ㄴ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노력함
▶**호가호위(狐假虎威)** - 여우가 범의 힘을 빌림
ㄴ남의 힘에 의지해서 위세를 부림
▶**호각지세(互角之勢)** - 짐승의 뿔이 서로 버티고 있는 형세
ㄴ역량이 서로 비슷비슷하여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형세
▶**호언장담(豪言壯談)** - 호기롭거나 자신 있게 하는 말
ㅁ자기의 능력이나 분수를 넘어서는 말을 자신 있게 떠벌임
▶**회빈작주(回賓作主)** - 손님이 주인 행세를 함
ㄴ타인의 의견을 무시하고 마음대로 행동함
▶**회자정리(會者定離)** - 만난 뒤에는 반드시 떠남
ㅁ만남이 있으면 반드시 헤어짐 또한 있다는 불가의 가르침
▶**흥진비래(興盡悲來)**-흥이 다하면 슬픔이 옴
ㄴ세상의 좋은 일과 나쁜 일은 돌도 돎
▶**희로애락(喜怒哀樂)** ㄴ기쁨, 노여움, 슬픔, 즐거움 등 사람의 온갖 감정
▶**호사유피(虎死留皮)** -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
ㄴ사람은 죽어서 명예를 남겨야 한다.=인사유명(人死留名)
▶**화용월태(花容月態)** - 꽃다운 얼굴과 달 같은 모습
ㄴ아름다운 여자
▶**환골탈태(換骨奪胎)** - 뼈를 바꾸고 태를 빼냄
ㄴ몰라볼 정도로 용모나 상태가 좋아짐
▶**희로애락(喜怒哀樂)** - 기쁨, 성냄, 슬픔, 즐거움
ㄴ인간이 살아가면서 느끼는 온갖 감정
▶**학리궁구(學理窮究)** - 학문의 이치를 끝까지 따짐
ㄴ학문의 원리나 이치를 속속들이 깊이 연구함
▶**한단지몽(邯鄲之夢)** - 한단 땅에서의 꿈
ㅁ인생의 무상함
▶**함구무언(緘口無言)** - 입을 닫고 말이 없음
ㄴ아무런 말을 하지 않음
▶**허장성세(虛張聲勢)** ㄴ실력은 없으면서 목소리만 드높여 떠벌임
▶**호구지책(糊口之策)** - 입에 풀칠하는 꾀
ㄴ겨우 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일
▶**호사다마(好事多魔)** - 좋은 일에는 마귀가 많음
ㄴ좋은 일에는 그것을 방해하는 안 좋은 기운이 끼게 마련임
▶**호시탐탐(虎視耽耽)** - 범이 눈을 부릅뜨고 먹이를 노려 봄
ㄴ기회를 노리고 형세를 살핌
▶**화중지병(畵中之餠)** - 그림의 떡
ㄴ실제로 이용하거나 차지할 수 없는 것
▶**혹세무민(惑世誣民)** ㅁ세상을 어지럽히고 사람들의 마음을 흐리게 만듦
▶**환골탈태(換骨奪胎)** - 뼈를 바꾸고 태를 빼냄
ㄴ몰라 볼 정도로 용모나 상태가 좋아짐
▶**후생가외(後生可畏)** - 젊은 후배들은 두려워할 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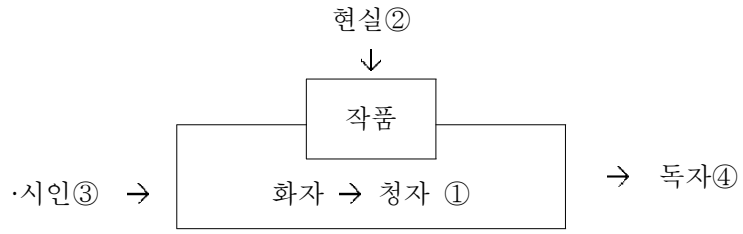
ㄴ젊은 후배들은 선인의 가르침을 배워 어떤 훌륭한 인물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가히 두렵다.

■ 나이와 관련된 한자숙어

▶**충년(沖年)** ㄴ열 살 안팎의 어린 나이
▶**지학(志學)** - 십유오이지우학(十有五志于學)
ㄴ배움에 뜻을 둔 15세
▶**약관(弱冠)** ㄷ예전에 남자가 갓을 쓰고 어른이 되는 의식을 하는 20세
▶**방년(芳年)** =묘령(妙齡)
ㄴ여자 20세 전후의 꽃다운 나이
▶**이립(而立)** - 삼십이립(三十而立)
ㄷ홀로 설 수 있는 30세
▶**불혹(不惑)** ㄴ세상의 모든 것에 유혹되지 않는 40세
▶**지천명(知天命)** ㄴ하늘의 명령을 아는 50세
▶**이순(耳順)** ㄴ어떤 말을 들어도 귀에 거슬리지 않는 60세
▶**환갑(還甲)** =회갑(回甲) =화갑(華甲)
ㄴ태어난 해의 간지가 돌아왔다는 61세
▶**진갑(進甲)** ㄴ환갑에서 한 살 더 앞으로 나아갔다는 62세
▶**고희(古稀)** - 인생칠십고래희(人生七十古來稀)
ㄴ인생에서 드물다는 70세
▶**종심(從心)** - 마음대로 행해도 법도에 어긋나지 않았다 하는 70세
▶**희수(喜壽)** - '희(喜)'자를 초서체로 풀어쓰면 '칠십칠(七十七)'이 되는 것에서 유래
▶**망구(望九)** ㄷ90세를 바라본다는 81세
▶**미수(米壽)** ㄷ'미(米)'자를 풀면 '팔십팔(八十八)'이 되는 것에서 유래
▶**망백(望百)** ㄴ백(百)을 바라본다는 91세
▶**백수(白壽)** ㄴ'백(百)'에서 '일(一)'을 빼면 '백(白)'이 되는 것에서 유래

8.필수 어휘

▶**심상(心象)** - 특정한 언어를 듣거나 보았을 때, 마음 속에 재현되는 사물의 감각
▶**소통 구조** - 문학 작품이 창작되어 독자에게 수용되기까지의 과정으로, 작가, 독자, 현실 등의 작품 외적인 요소와 화자, 청자, 그리고 작품의 작품 내적 요소의 상호관계로 이루어진다.



▶**감상의 관점** - 문학작품의 소통 구조 중에서 어느 요소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시를

감상하는 관점이 나누어지게 된다. 크게 내재적 관점과 외재적 관점(반영론 · 표현론 ·효용론)으로 나뉜다.

①내재적(절대적) 관점-작품 속에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다는 인식 아래 작품 자체만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는 관점

②반영론적 관점-작품과 현실의 관계에 초점을 맞춰 시를 감상하는 관점

③표현론적 관점-작가와 작품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를 감상하는 관점

④효용론적 관점-작품과 독자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시를 감상하는 관점

▶**시적 화자** - 시인이 만들어 낸 가공의 인물로 시인 자신의 정서와 사상이 투영된 인물=서정적 자아=시적 자아

▶**정서(情緖)** - 화자가 세계와 부딪치며 느끼게 되는 온갖 감정과 생각 등을 말하는 것으로, 시의 정서라고 하면 시 속에 나타난 여러 가지 느낌, 생각, 사상 등을 가리킨다.

▶**시상 전개 방식** - 시인이 주제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기 위해 시상을 일정한 순서로 전개하는 방식으로, 시간적 · 공간적 · 점층적 · 대립적 전개 · 기승전결 · 선경후정 · 수미상관 · 연상 작용 등이 있다.

▶**시적 화자의 태도** - 시적 화자가 시적 제재 · 독자 · 사회 등 시적 대상을 향해 내는 개성적 목소리와 그 대응방식을 말하는데, 주로 어조를 통해서 드러난 것이 일반적이지만, 경우에 따라 화자의 생각을 통해 드러나기도 한다.

▶**시어(詩語)** - 시에 사용하는 단어를 뜻하는 말로, 시구나 시행에서 특수한 의미를 나타내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기 위해 간혹 문법에 어긋난 표현(시적 허용=시적 파격)을 쓰기도 한다.

▶**시어의 기능** - 시어는 구체적으로 음악적 효과를 주거나 심상 · 어조 ·분위기 등을 만들어 내며, 함축적 의미를 갖는 동시에 풍자, 반어 등의 특수한 기법에 의해 시적 긴장을 가져오는 기능 등을 하게 된다.

▶**형상화(形象化)** - 시적 대상을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심상(心象)을 통해 그려낸다.

▶**시적 화자의 어조(語調)** - 시 속의 화자가 대상이나 독자에 대하여 취하는 태도가 반영된 독특한 말씨나 말투, 즉 시의 제재나 독자에 대한 시적 화자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말한다. 어조는 시 전체의 느낌, 분위기를 형성하고 시의 주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시인 자신의 시적 대상에 대한 인식 방법과 태도도 담겨 있다. 시에서는 남성적, 여성적, 해학적, 냉소적, 풍자적 어조 등으로 구체화된다.

▶**시적 화자의 현실 인식** - 시적 화자를 둘러싸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시적 화자가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는가를 말하며, 대부분 현실을 상징하는 시어에 투영되어 표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객관적 상관물** - 정서를 상징적으로 암시하는 시적 기법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사물, 정황, 사건 등을 말하며 특히 시적 화자의 정서를 담았을 때를 '감정이입'이라 한다.

▶**반어(反語 · irony)** - 의미의 모순(矛盾)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

▶**역설(逆說 · paradox)** - 표현의 모순으로 의미를 강조하는 방식으로 진술 내용 자체가 논리적으로 모순을 드러내는 모순 어법과 수식어와 피수식어 사이에 논리적 모순이 성립되는 모순 형용의 두 가지가 있다.

▶**주제** - 시인이 시를 통해서 나타내려 하는 중심 생각이나 사상

▶**사건** - 소설은 여러 가지 사건이 인과적(因果的)으로 연결되어 전개된다. 소설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중심 사건과 중심 사건을 뒷받침하는 보조 사건으로 구성된다.
▶**인물** - 작가가 꾸며낸 상상의 존재로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중심인물과 이야기의 진행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부수적 인물로 구분된다.
▶**개연성(蓋然性)** - 소설은 꾸며진 허구(虛構)적인 이야기지만 독자는 이를 읽고 마치 실제로 이루어진 사건인 것처럼 인식한다. 이것은 소설에서 독자들이 어떤 사건이나 인물의 행동이 그럴 듯하게 여겨질 수 있도록 인과적으로 구성되는 요소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이를 개연성이라고 한다.
▶**갈등(葛藤)** - 인물의 심리나 인물 간에 서로 의견이 합치되거나 해결되지 못하고 서로 얽혀 있는 것을 말한다. 갈등은 그것을 형성하거나 해결하는 과정에서 인물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므로 사건이 전개될 내용에 대한 필연성을 부여한다. 갈등의 유형에는 ①한 개인 내면에서의 갈등 ②개인과 개인 사이의 갈등 ③개인과 사회 사이의 갈등 ④개인과 운명 사이의 갈등 ⑤개인과 자연과의 갈등 등이 있다.
▶**반어(反語)** - 표면적 진술과 내면적 의도를 상반되게 드러내어 주제를 강조하는 표현기교로, 소설에서는 겉으로 드러난 진술과 서술자나 인물의 의도가 정반대로 관계되어 있는 표현 상황을 '반어적 기법'이라고 한다.
▶**서술자** - 소설에서 인물이나 사건, 서사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존재로, 서술자는 원칙적으로 작가가 아니라 작가가 소설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내세운 대리인이다.
▶**거리** - 작가가 서술자를 통해 소재나 사건을 다루어 예술적, 미적 효과를 얻어내기 위한 심리적, 미적 절제나 정도를 일컫는 말로, 서술자와 등장 인물, 서술자와 독자, 등장인물과 독자 사이에 가깝고 멀게 느껴지는 심리적 거리감

거 리	1인칭 주인공 시점	전지적 작가 시점	1인칭/작가 관찰자 시점
서술자-인물	가깝다	가깝다	멀 다
서술자-독자	가깝다	가깝다	멀 다
독자-인물	가깝다	멀 다	가깝다

▶**배경(背景)** - 작품의 주변 상황을 나타내는 개념으로, 인물의 행동이나 심리가 펼쳐지거나, 사건이 전개되는 데 필요한 주요 구성 요소로 이야기 전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복선(伏線)** - 앞으로 다가올 상황에 대한 암시로 사건 전개에 필연성과 인과적 요소를 부여하는 역할을 한다.
▶**사건(事件)** - 소설에서의 사건은 등장인물이 일으키는 의미 있는 행동과 갈등을 가리킨다. 가선은 유기적으로 연결하여 전개하는 역할을 하며, 전체의 뼈대를 이루는 중심 사건과 이를 뒷받침하는 작은 보조 사건으로 나뉜다.
▶**서술자** - 소설에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주체로 인물이나 사건, 서사 등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는 존재로 소설의 주제를 구현하기 위해 내세운 대리인이다.
▶**시점** - 작품의 시간, 인물 상황 등 작중 현실을 서술자가 어떤 각도로 서술하는가와 관련된 서술 초점으로 똑 같은 사건이라도 보는 각도와 입장에 따라 그 내용이 각각 다르게 판단되듯이 시점은 주제, 인물의 성격, 그리고 미적 효과 등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

1인칭 주인공 시점	①주인공인 '나'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시점 ②'나'의 내면세계를 드러내는 데 효과적이며, 독자에게 신뢰감과 친근감을 줌
1인칭 관찰자 시점	①'나'가 관찰자로서 주인공 옆에서 관찰하며 묘사하는 시점 ②주인공의 내면을 숨김으로써 긴장과 경이감을 자아내는 효과가 있음
3인칭 작가 관찰자 시점	①서술자가 외부 관찰자의 위치에서 이야기하는 시점 ②서술자는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외부적인 사실만을 관찰하고 묘사함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	①작가가 전지전능한 신의 입장에서 사건을 서술하는 시점 ②작중 인물의 심리, 행동 등을 해석, 분석하여 서술함 ③작가의 사상과 인생관이 직접 드러나기도 함

▶액자(額字) 소설 - 이야기 속에 하나 또는 여러 개의 내부 이야기를 안고 있는 구성 방식으로 이야기 밖에 또 다른 서술자의 시점을 배치함으로써 다각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나갈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인과성(因果性) - 사건 간의 관계가 원인과 결과에 의해 연결되는 것을 말하는데 특히, 고전소설과 같이 사건들이 순차적인 인과 관계로 연결되어 최종 결말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다른 사건에 영향을 주는 경우에 많이 나타난다.

▶인물 - 작품 속에서 사건을 전개해 나가는 이야기의 주체로서, 그 인물이 지닌 심리나 감정, 속성 등의 성격을 포괄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야기를 이끌어 나가는 중심인물과 이야기의 진행에 보조적 역할을 하는 부수적인 인물로 구분된다.

▶전형성 - 특정한 역사적 단계에 처해 있는 어떤 특정한 사회의 성격과 계급, 직업 등을 가장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성질들, 혹은 그런 성질들이 소설 속에 잘 반영된 경우를 지칭한다.

▶편집자적 논평 - 전지적 작가시점에서 서술자가 진행 중인 사건이나 인물의 언행 등에 대하여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것으로 작중 화자의 개입이라고도 한다.

▶개성(個性) - 일상적 사물이나 현상을 바라보고 이를 해석하는 글쓴이만의 자유롭고 창조적인 생각을 이르는 말로, 글쓴이 나름대로의 독특한 관점이나 생각, 사고방식 등을 의미한다.

▶에피소드(episode) - 수필에서 남에게 알려지지 아니한 재미있는 이야기 또는 어떤 이야기나 사건의 줄거리에 삽입된 짤막한 한 토막의 이야기로 일화(逸話)라고도 한다. 에피소드는 작품의 주제를 구현하는 데 중요하게 쓰이며, 작품의 분위기를 바꾸거나 내용을 풍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방백(傍白) - 사건 진행상 등장 인물에게는 들리지 않고 관객에게만 들리는 것으로 약속되어 있는 대사

▶장면(scene) - 시나리오를 구성하는 한 단위로서 동일한 시간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이나 사건을 의미한다. 시나리오는 '장면'들이 이어짐으로써 이야기가 전개되고 통일성을 획득하며, 보통 장면 번호를 뜻하는 S#으로 표시된다.

▶시나리오 용어 -

S#(scene number)	장면 번호
INS(insert)	삽입화면. 장면을 집중 확대하거나 장면과 장면을 잇기 위해 넣은 장면
O.L.(over lap)	화면이 겹치면서 다른 화면으로 전환되는 기법
F.O.(fade out)	화면이 점점 어두워지는 기법
D.E.(double exposure)	이중 노출, 한 화면 위에 다른 화면이 겹쳐져서 이루어진 합성 화면
NAR.(narration)	설명 형식의 대사, 해설
E.(effect)	효과음(음향 효과)
F.I.(fade in)	화면이 점점 밝아지는 기법
C.U.(close up)	인물이나 장면을 크게 확대하여 보여 주는 것
W.O.(wipe out)	한 화면의 일부가 닦아내는 듯이 없어지면서 다른 화면이 나타나는 수법

▶**지문(地文)** - 등장인물의 동작, 행동, 표정, 심리 등과 배경, 분위기, 효과 등을 지시하고 설명하는 말로 대사와 함께 지문을 통해 전체 이야기를 입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

▶**현재화** - 희곡은 무대 위에서 직접적으로 인생을 표현하는 문학으로, 모근 사건이 현재 눈앞에서 공연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를 현재화라고 한다.

▶**글쓴이의 태도** - 글에서 글을 쓴 사람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입장으로, 주로 글의 대상이 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 된다.

▶**관점(觀點)** -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주체가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일컫는다.

▶**견해(見解)** -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대하여 밝힌 자기의 의견이나 생각을 말한다.

▶**대상(對象)** - 사전적 의미로는 어떤 일의 상대 또는 목표나 목적이 되는 것을 말하지만, 글에서는 글의 주요 소재나 글을 통해 밝히고자 하는 개념 등을 말한다.

▶**논증(論證) 방식**-어떤 근거를 내세워 주장을 밝혀 상대방을 설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방법을 말한다.

연역(演繹)	일반적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결론으로 이끌어 내는 방법
귀납(歸納)	개별적인 특수한 사실이나 원리를 전제로 하여 일반적인 사실이나 원리로서의 결론을 이끌어 내는 방법
유추(類推)	같은 종류의 것 또는 비슷한 것에 기초하여 다른 사물을 미루어 추측하는 방법으로 두 사물이 여러 면에서 비슷하다는 것을 근거로 다른 속성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론하는 방법
예증(例證)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논지(論旨) 전개 방식** - 논지(論旨)란 논하고자 하는 말이나 글의 취지를 말하며, 논지 전개 방식이란 이러한 논지를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어떠한 전개 방식을 취하느냐 하는 것을 말한다.

①어느 한 주장에 입각해서 다른 주앙을 논박
-어느 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의 주장들이 지닌 논리적 문제점을 밝히는 방식
②여러 주장의 문제점을 분석한 다음 대안 제시
-어떤 문제에 관한 여러 주장들을 소개, 분석, 평가한 다음, 기존 주장들이 지닌 문제점을 해결할 새로운 주장을 제시하는 방식
③대립되는 주장을 소개한 다음 절충해서 마무리
-대립되는 주장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 그 주장들의 장점을 위한 제3의 주장을 제시하는 방식
④서로 다른 주장을 객관적으로 소개
-글쓴이의 주관을 배제한 채 서로 다른 몇 가지의 주장을 소개하는 방식
⑤다양한 학설들을 소개한 다음, 그 공통점과 차이점을 열거
-여러 학설들의 내용을 소개한 다음, 그 학설들이 지닌 공통점이나 차이점을 제시하는 방식
⑥정의, 비교, 대조, 예시의 방법을 활용하여 현상에 대해 설명
-어떤 현상에 대해 정의, 비교, 예시 등의 다양한 진술 방식을 활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식
⑦일반적 통념에 대해 문제 제기
-누구나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는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면서 내용을 전개시키는 방식
⑧예상되는 반론을 반박하면서 주장을 강화
-글쓴이 스스로가 자신의 견해와 상반되는 견해를 소개하고 이를 논리적으로 반박하면서 자신의 견해가 옳음을 강조하는 방식
⑨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고찰
-여러 분야에서 구체적인 예들을 뽑아 나열하고 이를 통해서 어떤 주장을 내세우는 방식
ㅐ문제점을 지적한 다음 그 원인을 분석
-어떤 현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원인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밝히는 방식

▶**단락 전개 방식** - 몇 개의 단락으로 구성된 글 전체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 단락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요구된다. 단락의 내용을 파악하고, 단락 간의 논리 구조를 파악하면 글의 구조와 전체 내용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

주지(主旨)	글의 주제와 직접 관계되는 중심 단락
도입(導入)	글을 쓰는 목적이나 과제 등을 제시하는 보조적 기능의 단락
요약(要約)	결론을 맺거나 글을 마무리하는 단락
예시(例示)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쉽게 설명하거나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단락
부연(敷衍)	덧붙여 자세하게 설명하는 단락
연결(連結)	두 부분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어주는 단락
보조(補助)	주지 부분의 내용을 드러내기 위해 구성되는 보조적 기능의 단락
전개(展開)	앞 부분의 내용보다 넓게 펼쳐가는 단락
전제(前提)	주장(결론)을 이글어 내기 위한 논거 따위를 조건으로 제시하는 단락
첨가(添加)	앞에 진술된 내용을 보충하는 단락
강조(强調)	내용을 특히 강조하기 위한 단락

▶**반응** - 사전적 의미로는 자극에 대응해 어떤 현상이 일어남을 의미하지만, 글에서는 읽는 이가 주어진 지문의 내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는가를 의미한다. '국토 개발 문제의 폐해'에 관한 글을 읽고 '환경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느끼게 되었다'는 식이 반응이라고 할 수 있다.

▶**설명 방식**-설명이란 말(說)로써 분명(明)하게 한다는 의미이다. 따라서 대상에 대한 의문점을 명백하게 풀이하여 읽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말한다.

정의(定義)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특성이나 개념의 내용, 성격 등을 다른 것과 구별하여 명확하게 규정해 주는 설명 방법
지정(指定)	글의 대상이 어떤 것인지를 밝히는 것으로, 정의가 용어와 개념의 관계라면 지정은 용어와 속성과의 관계로 연결된다. 따라서 정의는 'A=B'의 역인 'B=A'가 성립되지만 '지정'의 경우에는 성립되지 않는다.
비교(比較) **대조(對照)**	설명의 대상을 다른 사물에 견주어 공통되는 성질이나 유사점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방법이 '비교'이며, 대비되는 성질이나 차이점을 들어서 사물의 특성을 설명하는 방법을 '대조'라고 한다.
구분(區分) **분류(分類)**	사물의 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큰 항목을 작은 항목으로 나누는 것을 '구분'이라 하고, 작은 항목들을 그 특성에 따라 한데 묶어 큰 항목으로 만드는 것을 '분류'라고 한다. 즉, 전체적인 내용을 쪼개어 나가면 '구분'이고 특성에 따라 묶어서 통합해 가면 '분류'가 된다.
분석(分析)	사물이나 개념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는가를 알리기 위해 그 구성 요소별로 나누어 보여 주는 방법을 말한다.
예시(例示)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알기 쉽게 설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오류(誤謬)** - 오류란 그릇되어 이치에 맞지 않는 일로, 논리적 오류란 논리적인 전개 과정이 일반적인 추론의 과정을 벗어난 것을 말한다.

의도 확대의 오류	상대방의 말이나 행동의 본래 의도를 잘못 해석하거나 확대 해석하고 주장하는 오류 **<보기>**A:어머니 전 그 여자와 결혼할 수 없어요. B:아니, 그럼 넌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말이냐?
애매어의 오류	어떤 상황에서 두 가지 이상의 의미로 해석될 수 있는 낱말을, 그 중 하나의 의미로 부당하게 해석한 다음 추론하는 오류 **<보기>**모든 살인자는 마땅히 사형되어야 한다. 모든 사형 집행관은 살인자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형 집행관은 마땅히 사형되어야 한다.
강조의 오류	문장이나 표현에서 특히 어느 한 부분을 강조함으로써 범하게 되는 오류 **<보기>**A:사회적으로 흡연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는 요즘에 특히 청소년들의 흡연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흡연을 억제해야 한다. B:그럼 어른들은 흡연을 해도 되나요?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	제한된 몇 가지의 정보를 근거로 하여 전체적인 의미로 사용하려고 할 때 발생하는 오류 **<보기>**수학 선생님께서 풀지 못하는 문제를 내 친구가 풀었다. 다라서 내 친구는 틀림없이 수학 선생님보다 수학을 더 잘 할 것

	이다.
인과적 오류	어떤 두 사건이 동시에 발생할 때 그 중 한 사건이 다른 사건의 원인이라고 잘못 추론하거나, 한 사건이 다른 사건보다 단지 먼저 발생한 것을 가지고 전자가 곧 후자의 원인이라고 잘못 추론하는 오류 **<보기>**당산에 절이 들어선 뒤로 사람들이 계속해서 죽어 나가고 우환이 끊일 날이 없다. 그러니 빨리 절을 철거해야 한다.
논점 일탈의 오류	주어진 논점과는 다른 방향으로 주장하는 오류로 논점을 벗어나게 되면 무엇을 논의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횡성수설하기 쉽다. **<보기>**A:왜 당신은 끝가지 아들을 고집하십니까? B:저도 딸을 사랑하지만 어쨌든 아들은 필요합니다. 사실 성차별이란 건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차별이 아닙니까?

▶**주장** - 논리적인 글에서 글쓴이가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주장은 기본적으로 주관적이기는 하지만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논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여야 한다.

▶**논거(論據)** -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시하는 근거를 말한다. 근거가 불충분하거나 객관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면 주장 역시 신뢰성을 얻기 어려우므로 타당성 있는 논거를 적절하게 제시해야 한다.

▶**반론(反論)** - 글쓴이의 주장에 반대되는 논리를 가진 주장을 '반론'이라고 한다. 글쓴이가 자신의 주장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예상되는 반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논리적으로 비판한다.

▶**비판(批判)** - 사전적 의미로는 사물의 옳고 그름을 가리어 판단하거나 밝히는 것을 말하나, 주로 글의 논리나 글쓴이의 태도, 입장 등에 대하여 나름대로의 의견이나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추론(推論)** - 어떠한 판단을 근거로 삼아 다른 판단을 이끌어 내는 것을 추론이라고 한다. 추론이 자연스럽고 논리적이어야만 글 전체의 논리가 정연하게 된다.

▶**개요(槪要)** - 글을 쓰기 전에 작성해 놓는 글의 설계도로, 불필요한 내용의 삽입을 막고 글 전체의 논리를 일관되게 하여 내용을 통일시키기 위해 필요하다.

▶**고쳐 쓰기** - 쓰기의 마지막 과정으로 불완전한 글을 손질하여 보다 완벽한 글이 되도록 하는 마무리 작업으로 '글 전체의 수준→문단 수준→문장 수준→어휘 수준'으로 고쳐 쓰기가 이루어진다.

①부가의 원칙-빠져 있거나 설명이 부족한 부분을 첨가, 보충하여 글의 충실성을 높인다.

②삭제의 원칙-불필요하거나 주제와 거리가 먼 내용, 주제를 해칠 수 있는 내용을 삭제하여 글을 간결하게 한다.

③재구성의 원칙-글의 순서나 전개 방식을 문맥의 흐름에 맞게 재배열하거나, 단락들을 재구성하여 짜임새 있는 글이 되도록 한다.

▶**글감** - 글의 내용이 되는 재료로, 좋은 글감은 주제를 뒷받침하며, 근거가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확실해야 하고, 독자의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키며 정보로서 신뢰할 만한 가치가 있어야 한다.

▶**연상(聯想)** - 하나의 관념이 다른 관념을 불러일으키는 현상을 뜻하는 말로, 글을 쓰는 과

정에서 주제를 설정하고 내용을 선정하는 데 필요한 사고 과정을 의미한다. 연상에는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자유 연상을 통해 독창적으로 사고를 확장해 나가는 발산적(發散的) 사고와 떠올린 생각을 글의 주제에 바탕을 두고 체계적, 논리적으로 엮어 나가는 수렴적(收斂的) 사고가 있다. 주어진 자료를 토대로 제한된 범위 안에서 생각을 펼치는 연상은 제한됨이 없이 생각을 펼치는 구상(構想)과는 구분된다.

▶표현하기 - 글쓴이의 생각이나 느낌을 주어진 조건에 따라 드러내어 나타내는 것으로 적합한 어휘와 정확한 문장 구조를 선택해야 하며, 문법에 맞는 문장이어야 한다. 또한 여러 가지 표현법을 활용하여 개성적인 문체가 되도록 한다.

▶표현법 - 글쓴이의 사상과 감정을 보가 효과적으로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표현기교를 말한다.

비유법	표현하려는 대상(원관념)을 그것과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다른 대상(보조관념)에 빗대어 표현함으로써 그 자체의 성질, 모양 등을 두렷하고 선명하게 하여 내용을 쉽게 이해시키기 위한 방법 <보기>직유, 은유, 대유, 풍유, 활유, 의인법
강조법	표현하고자 하는 바를 보다 강력하게 드러냄으로써, 한층 더 강하고 절실하게 나타내는 방법 <보기>과장, 반복, 억양, 점층, 점강, 연쇄법
변화법	문장의 단조로움과 지루함을 피하기 위해 표현 방법에 변화를 주어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주의를 환기시키기 위한 방법 <보기>반어, 역설, 도치, 문답, 대구법

▶가공적(架空的) - 이유나 근거 없는, 또는 사실이 아니고 거짓이나 상상으로 꾸며 내는

▶가부장적(家父長的) - 가장(家長)이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가족을 통솔하는

▶감각적(感覺的) - 감각 기관으

로 포착된 외부의 자극에 의한

▶감동적(感動的) - 무엇에 깊이 느끼어 마음이 움직이는

▶감성적(感性的) - 자극에 대해 일어나는 느낌이 빠르거나 날카로운

▶감정적(感情的) - 사물의 현상에 느끼어 움직이는 마음의 작용 중에서 유쾌, 불쾌, 기쁨, 노여움 따위의

▶개성적(個性的) - 낱낱의 사물 또는 한 사람의 인간에게 나타나는 특유한 특징이나 성질, 성격, 성향의

▶개연적(蓋然的) - 일정한 조건 아래서 어떤 현상이 일어날 만한

▶객관적(客觀的) - 개인의 주관을 떠나 냉철한 마음으로 대상을 바라보는

▶격정적(激情的) - 강하고 급격하여 누르기 어려운 정서의

▶경세적(警世的) - 세상 사람을 깨우치는

▶고답적(高踏的) - 현실과 동떨어진 것을 고상하게 여기는

▶고백적(告白的) - 비밀이나 생각하는 바를 사실대로 솔직하게 말하는

▶고전적(古典的) - 조화, 전통, 형식을 중히 여기는

▶공리적(公利的) - 어떤 행위가 자기에게 이로울 것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하는

▶공상적(空想的) - 현실적이 아닌, 또는 실현될 가망성이 없는

▶과장적(誇張的) - 사실보다 지나치게 나타내는

▶관념적(觀念的) - 현실을 무시한 추상적이고 공상적인

▶**관능적(官能的)** - 육체적(성적) 쾌감을 자극하는=말초적(末梢的)
▶**괴기적(怪奇的)** - 괴상하고 기이한
▶**교술적(敎述的)** - 사물을 객관적으로 묘사하고 설명하여 감흥을 자아내는
▶**교훈적(敎訓的)** - 앞으로의 행동이나 생활에 있어서의 지도적인 구실이 될 만한
▶**구비적(口碑的)** - 민요나 판소리처럼 말로 전해져 내려오는
▶**구체적(具體的)** - 직접 경험, 지각할 수 있는
▶**국수적(國粹的)** - 제 나라 것만 우수하다고 생각하는
▶**낭만적(浪漫的)** - 비현실적이며 이상적이고 공상적인
▶**냉소적(冷笑的)** - 쌀쌀한 태도로 업신여겨 비웃는
▶**당위적(當爲的)** - 마땅히 행해야 하는
▶**대비적(對比的)** - 두 가지 것의 차이를 명백히 하기 위해 서로 비교하는
▶**대조적(對照的)** - 서로 반대적으로 대비되는
▶**대중적(大衆的)** - 널리 일반 민중을 중심으로 한
▶**도식적(圖式的)** - 이미 이루어진 틀이나 공식에 맞추어 보려는
▶**독백적(獨白的)** - 혼자 중얼거리는
▶**목가적(牧歌的)** - 서양의 시골 냄새가 나는
▶**묘사적(描寫的)** - 보고 들은 것이나 마음에 느낀 것을 그림이나 소설 따위에서 예술적, 객관적으로 재현하는
▶**반어적(反語的)** - 나타내려는 의미와 내용이 모순되는
▶**배타적(排他的)** - 남을 따돌리거나 밀어내치는
▶**보수적(保守的)** - 재래의 풍습, 습관, 전통 등을 중시하여 그래도 지키려는
▶**봉건적(封建的)** - 상위에 있는 자가 절대적 권력을 가지고 하위에 있는 자를 종속시켜 다스리려는 전제적, 계급적, 인습적인
▶**분석적(分析的)** - 어떤 현상이나 사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요소를 파악하는
▶**비약적(飛躍的)** - 단계나 순서를 차례로 밟지 않고 아주 빨리 발전・향상하는 성질을 띠는
▶**비유적(比喩的)** - 그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사물에 빗대어 뜻을 표현하는
▶**비현실적(非現實的)** - 현실과는 동떨어진
▶**사실적(事實的)** - 실제로 존재하는
▶**사실적(寫實的)** - 실제의 상태를 있는 그대로 그려내는
▶**사색적(思索的)** - 깊이 생각하고 이치를 더듬는
▶**산문적(散文的)** - 글자의 수나 운율 따위에 제한 없이 자유롭게 기술하는
▶**상대적(相對的)** - 사물이 다른 것과의 관계나 대립・비교 등의 상태에 놓여 있는
▶**상보적(相補的)** -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상적(想像的)** - 어떤 사물이나 현상에 관하여 마음 속에 그려보는
▶**상투적(常套的)** - 늘 버릇이 되다시피 한
▶**서경적(敍景的)** - 자연의 풍경을 글로 나타내는
▶**서사적(敍事的)** - 사건을 있는 그대로 적는
▶**서술적(敍述的)** - 어떤 내용을 차례를 좇아 말하거나 적는
▶**선험적(先驗的)** - 논리상 경험에 앞서서 인식의 주관적 형식이 인간에게 주어져 있다고 주장하는

▶**설명적(說明的)** - 상대방이 잘 알 수 있도록 밝혀서 말하는
▶**수사적(修辭的)** - 말이나 글을 꾸며 보다 아름답고 정연하게 하는
▶**수의적(隨意的)** - 자기 마음대로 하는
▶**순종적(順從的)** - 거슬리지 않고 순순히 복종하는
▶**순행적(順行的)** - 차례대로 진행되는
▶**시사적(時事的)** - 현재의 정치, 경제, 사회와 관련된
▶**신비적(神秘的)** - 사람의 힘이나 지혜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초월적인
▶**심미적(審美的)** -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암시적(暗示的)** - 어떤 것이라고는 꼭 집어서 밝히지 않고 넌지시 깨우쳐 주는
▶**애상적(哀傷的)** -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하는
▶**역동적(力動的)** - 힘차게 움직이는
▶**역설적(逆說的)** - 나타내려는 의미와 반대로 표현하거나 표현이 모순되는
▶**역학적(力學的)** - 부분을 이루는 요소가 서로 의존적 관계를 가지며 서로 제약하는
▶**염세적(厭世的)** - 세상을 싫어하고 모든 것을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예속적(隷屬的)** - 남의 지배 아래 놓인
▶**예술적(藝術的)** - 인간의 정신적 · 육체적 활동을 빛깔 · 모양 · 소리 등에 의하여 미적으로 창조, 표현하는
▶**예찬적(禮讚的)** - 존경하고 찬탄하는
▶**유기적(有機的)** - 각 부분 사이에 긴밀한 통일을 이루어 부분과 전체가 필연적 관계를 가지는
▶**유추적(類推的)** - 어떤 사물에서 다른 사물이 성질이나 상태를 미루어 짐작하는
▶**의지적(意志的)** - 목적을 자각하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이지적(理智的)** - 사물을 분별 · 이해하는 슬기를 지닌
▶**일반적(一般的)** - 어떤 특정한 분야에만 한정되지 않고 전체에 두루 해당되는=보편적인
▶**임의적(任意的)** - 강제나 제한이 없이 마음 내키는 대로
▶**자조적(自嘲的)** - 스스로 자기를 비웃는
▶**자주적(自主的)** - 간섭을 받지 않고 자기 뜻과 책임 아래 처리하는
▶**전기적(傳奇的)** - 이상하고 진기하여 비현실적인
▶**전원적(田園的)** - 시골 생활의 자그마한 것들에 애정을 쏟는
▶**전위적(前衛的)** - 예술 운동에서 가장 선구적인
▶**전지적(全知的)** - 모든 것을 다 아는
▶**전통적(傳統的)** - 지난 세대에 이미 이루어져 그 후로 계통을 이루어 전해지는
▶**전형적(典型的)** - 동류의 사물들 가운데서 그 사물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고 있는
▶**절대적(絶對的)** - 아무런 조건도 붙지 않고 어떠한 제약도 받지 않는
▶**정서적(情緖的)** - 어떤 사물에 접했을 때 사람의 마음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감정을 띤
▶**주관적(主觀的)** - 개인적인 관점이나 견해를 가진
▶**주술적(呪術的)** - 무당 등이 신의 힘이나 신비력을 길흉을 점치고, 재앙을 물리치거나 복을 비는
▶**주정적(主情的)** - 정서를 위주로 하는
▶**주지적(主知的)** - 지성 · 사유 등의 지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는
▶**직서적(直敍的)** - 상상 · 감상을 덧붙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서술하는

▶**직설적(直說的)** - 있는 그대로를 말하는
▶**직접적(直接的)** - 중간에 제삼자나 어떤 사물을 개재시키지 않고 바로 접촉하는
▶**참회적(懺悔的)** - 잘못에 대하여 뉘우쳐 마음을 고치는
▶**추상적(抽象的)** - 구체성이 없어서 그 뜻이 분명하지 않은
▶**탐미적(耽美的)** - 아름다움을 추구하거나, 미의 세계에 빠져 도취하는
▶**통속적(通俗的)** - 일반에게 널리 통하는 대중적이며 보편적인
▶**통시적(通時的)** - 역사(시간)적으로 파악하는
▶**퇴폐적(頹廢的)** - 풍속・도덕・문화 따위가 문란하여 건전하지 못한
▶**풍류적(風流的)** - 속된 일을 떠나서 운치가 있고 멋스럽게 노는
▶**필연적(必然的)** -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함축적(含蓄的)** - 말이나 글 가운데 많은 뜻이 집약되어 있는
▶**해설적(解說的)** - 어떤 문제를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하는
▶**해학적(諧謔的)** - 우습고 익살스러운
▶**향토적(鄕土的)** - 일정한 지방에 특유한 자연과 풍속 또는 생활 등을 전제로 한
▶**허구적(虛構的)** - 실제로는 없는 사건을 작가의 상상력에 의하여 창조해 내는
▶**현실적(現實的)** - 존재하거나 실현되어 있는
▶**현학적(衒學的)** - 학식을 자랑하여 뽐내는
▶**형식적(形式的)** - 내용을 따르지 않고 겉발림으로 하는
▶**환상적(幻想的)** - 현실적 기초도 가능성도 없는 헛된 생각이나 공상
▶**회의적(懷疑的)** - 어떤 일에 의심을 품는
▶**희화화(戱畵化)** - 인물의 외모나 성격 혹은 사건 자체를 의도적으로 우스꽝스럽게 묘사함으로써 대상을 풍자하는 기법

▶**미적 범주**

▶**숭고미(崇高美)** - 어떤 사물이나 대상의 힘이나 의지가 보통 사람의 한계를 넘어서는 절대적이고 위대한 속성을 가짐으로써 빚어내는 아름다움으로 절대적 가치를 추구하는 인물의 행동을 통해 느끼게 됨.
▶**우아미(優雅美)** - 사물이나 대상이 조화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빚어내는 아름다움으로서, 대체로 대상이 곱고 세련되고 정갈한 데서 오는 것으로 순수미라고도 함
▶**비장미(悲壯美)** - 인간의 의지에 반하여 일어나는 사건으로 인해 빚어지는 비극적 아름다움.
▶**골계미(滑稽美)** - 대상의 성질이나 외모, 기지나 풍자 등으로 익살스럽거나 우스꽝스러움을 유발하는 아름다움.